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8년 교육 연구 주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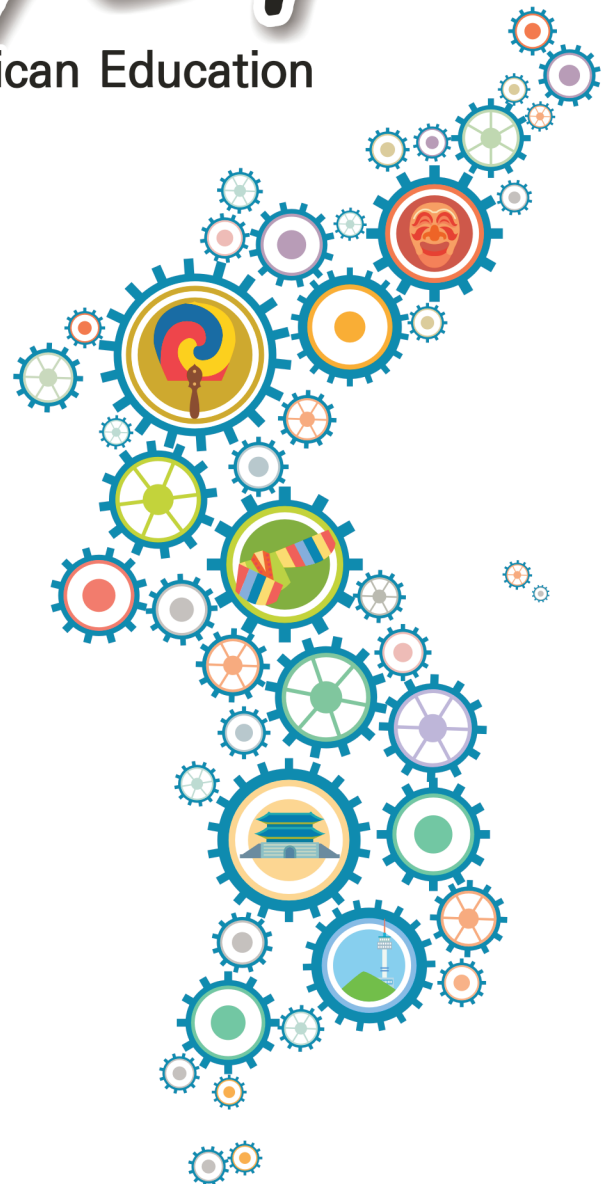
한글학교 선생님께 고하는 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NAKS 3대 중점 사업

교사의 역량과 저변 확대

표준화된 교육과 운영 지침서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남서부
뉴잉글랜드
동남부
동북부
동중부
미시간
북가주
서북미
워싱턴
중남부
중서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www.naks.org

통권 제33호



한인교육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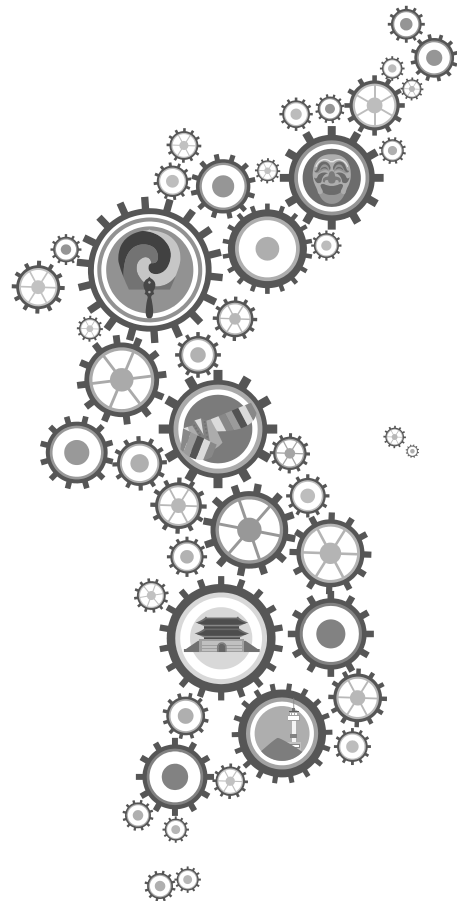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8년 교육 연구 주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연구
한글학교 선생님께 고하는 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Contents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의 설립 및 목적.....	4
------------------	---

교육 연구 주제 :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정희원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합 노력.....	9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2) - 띄어쓰기와 표준어 익히기 -.....	17
권재일	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의 이해.....	30
김양진	우리말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39
박상훈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44
권진주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소개.....	52
방정웅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	56
김민정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2).....	65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연구〉

최영환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설정.....	69
이정희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82
문영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의 방향.....	99
주현영	지역연계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	115



박기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124
	21세기 세종대왕의 꿈 품기

김수희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오인 폭격과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132
------------	---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고하는 글〉

강용철	‘개인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가는 길 141
------------	-------------------------------------

NAKS 최근 2년간 연혁 (2016. 7. ~ 2018. 6.)..... 142

37년 전체 연혁은 웹사이트 (www.nak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KS 조직도 148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149

역대 이사회 임원 150

역대 협의회 임원진 151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153

낙스의 설립 및 목적 /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 (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 Goal

-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 Annual SAT Subject Test Korean - Pilot Test
-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 Develop & Publish SAT Subject Test Korean - Workbook
-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Publish Annual White Paper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Mid-Atlantic Chapter: PA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국어 교육 연구

.....

정희원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합 노력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2)

권재일 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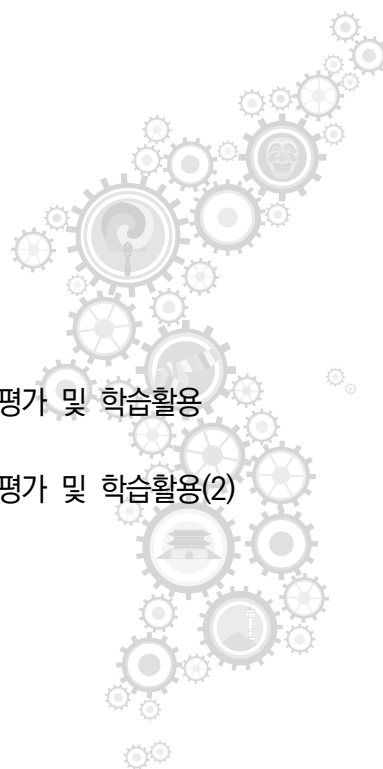
김양진 우리말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박상훈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권진주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소개

방정웅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

김민정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2)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합 노력

정회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1. 머리말

남북한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 단들이 긴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 회담’은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의 지역 방언보다는 차이가 크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 분단이 되기 전에도 서울 경기 지역의 말과 평안도 말은 방언 차이가 적지 않았다. 거기에 분단 이후 70여 년간 서로 왕래가 없다보니 차이가 좀 더 심해졌다. 현재 남북한 언어 상황은 문법은 거의 같고 발음에는 지역에 따른 자연스런 차이가 있으며, 그에 비해 어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북한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를 비교해 보면 일상어는 34%가 다르고, 학술용어 등 전문어는 64% 정도가 차이가 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쪽에 와서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언어 문제라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를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따라 음운, 문법, 화법 분야에서의 차이도 살펴보고,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표준어와 문화어

남북한은 양쪽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한동안은 같은 어문 규범을 사용하였다. 1950년대 이후 각기 다른 언어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언어 차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문 규범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이다. 해방 이후 한동안은 남북 양쪽에서 이 규범을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였다. 이후 1954년 북한에서 〈조선어철자법〉을 따로 정하였는데, 이때부터 남북한 맞춤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표준어는 1966년 북한에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대신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를 새로 제정함으로써 달라지게 되었다. 본래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지정한 말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나(예, 중국의 표준어는 북경 중심의 푸통화(普通話)이다.), 북한에서는 서울말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아예 ‘문화어’라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냈다. 남한은 1930년대 정해진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계속 써 오다가 1988년에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표준어와 문화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준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문화어: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조선말대사전(1992)>

3. 남북한 어휘 비교

남북한의 어휘가 서로 달라지게 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지역어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북한에서 어휘 정리를 하면서 새말을 많이 만들어냈다. 셋째,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규범이 다르다. 넷째, 서로 다른 체제 때문에 정치·경제·문화가 달라져 새로운 말이 많이 생겨났다.

1) 형태가 다른 말들

(1) 문화어로 오른 방언 어휘들

1966년 북한이 새로 문화어 정책을 펼 때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지역의 많은 방언들이 문화어에 포함되었다. 북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와 차이를 두고, 되도록 고유어를 많이 살려 쓰기 위해 방언 어휘들을 문화어로 격상시켰다. 약 4,000여 개의 방언 어휘들이 문화어가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남쪽에서도 표준어가 아닐 뿐 지역 방언이나 일상 구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말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거위’를 가리키는 ‘게사니’, ‘아직’을 뜻하는 ‘상기’, ‘값이 싸다’는 뜻의 ‘늑다’ 등은 남쪽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갑자르다(말을 하기 거북하여 주저하다):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말끝마다 갑자르는데.

검석거리다(자꾸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검벽거리다): 머리를 검석거리다

게사니(거위): 불구경 가는 게사니 걸음.

그쫘하다(빠짐없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세간들을 그쫘하게 차려 놓고

뚝쟁이(무뚝뚝한 사람): 남자들이란 어쩌면 이렇게도 뚝쟁이들일가.

마사지다(부서지다): 꺾꽂이 마사져서 못쓰게 되었다.

망탕(되는데로 마구): 망탕 내굴리다, 망탕 하는 이야기.
 바라다니다(마구 돌아다니다): 비가 오는데 어디를 자꾸 바라다니느냐?
 바재다/바재이다(마음 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재이었다.
 번지다(거르다): 점심을 번지고 일하다, 차례를 번지다.
 상기(아직): 옥희는 상기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다.
 세관게(성질이나 기세가 세게): 일을 세관게 하다, 손을 세관게 잡다.
 숙보다(깡보다): 헛내기라고 숙보지 말아요.
 여가리(옆의 가장자리나 언저리): 길의 여가리로 비켜서다
 인차(곧, 이내): 그곳에 가면 인차 편지를 하여라.
 한벌(가득): 산 언덕에 한벌 덮인 진달래.
 한본새(처음과 끝이 같은 모양): 눈은 아직 멎지 않고 한본새로 내린다.

(2) 말다듬기에 의한 차이

말다듬기는 점점 사라지는 우리 고유의 말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래어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말다듬기 사업을 꾸준히 벌여 왔다. 이에 비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남한 사회에서는 외래어 외국어 낱말들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과 북이 달리 사용하는 말들이 많다.

큰물(홍수)	안바다(내해)	바깥힘(외력)
왼쪽지기(좌익수)	잔짐(소화물)	설기과자(카스테라)
납작못(압정)	가루소젯(분유)	어두운모음(음성모음)
씩음막이악(방부제)	손기척(노크)	가까운바다(근해)
불견딜성(내화성)	기다림칸(대합실)	점수이김(판정승)
진단물(시럽)	가락지빵(도넛)	사자고추(피망)
늪은눈(노안)	마른얼음(드라이아이스)	향참외(멜론)

남한에서도 정부 주도로 국어순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다만 순화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점이 북한과 다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 다듬은 말 중에는 남한에서 국어 순화를 통해 새로 만들어 낸 어휘와 같은 것들도 있다는 점이다. 남과 북이 같은 말로 고친 것들은 다음과 같다.

흔жат말(독백)	여러해살이(다년생)	알림판(게시판)
어깨뼈(견갑골)	큰골(대뇌)	늘푸른나무(상록수)
가슴둘레(흉위)	작은골(소뇌)	찾아보기(색인)
승강기(엘리베이터)	차림표(메뉴)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그런데 북한에서도 말다듬기의 결과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얼음보숭이’이다. ‘아이스크림’을 다듬은 이 말은 한때 교과서에도 실렸을 만큼 남쪽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북한어이다. ‘얼음보숭이’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예로 우리에게 소개됐지만 사실 정작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다. 1990년대 이후에 발간된 국어사전에는 아예 실려 있지도 않다. 대신 북한 사람들

은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쓰거나 ‘에스키모’를 쓴다. ‘에스키모’는 남쪽에서 보통 ‘하드’라고 하는 얼음과자를 가리키는데 상품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3) 어문 규정의 차이로 인해 달라진 어휘들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 남북한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라진 말들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는 ㄴ과 ㄹ이 첫 소리에 올 때 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여성, 낙원, 노동, 내일, 양심’으로 쓰고 발음하는 것들을 북한에서는 ‘녀성, 락원, 로동, 래일, 량심’으로 적고 발음한다. 고유명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남한의 ‘이’씨 성은 북한에서는 ‘리’가가 된다(리순신, 리씨 조선 등). 2004년 평안북도 龍泉에서 열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남한 언론에서는 이곳을 북한식 표기에 따라 ‘룡천’으로 써야 할지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용천’으로 적어야 할지 혼란을 겪은 일이 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남쪽 언론은 ‘리설주, 이설주’ 등으로 다르게 표기했다.

사이시옷도 남북한이 다르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고유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에서 ‘바닷가, 뱃길, 냇물, 나뭇잎, 촛불’로 적는 어휘들을 북한에서는 ‘바다가, 배길, 내물, 나무잎, 초불’로 적는다. 그러나 이는 표기만 다를 뿐이지 북한에서도 발음은 [바다까, 낸물, 나문입, 초뿔] 등으로 한다.

외래어 표기 차이에도 따라 달리 쓰는 말들도 있다. 다음은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적는 외래어들이다. 남쪽에서는 많은 외래어들이 영어로부터 들어오지만 북한에서는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말들이 많다.

아파트:아빠트	팜플렛:뱀플레트	탱크:땅크
발코니:발콘	트랙터:뜨락뜨르	그룹:그루빠
캠페인:깜빠니아	라디오:라지오	텔레비전:텔레비존
헝가리:웡그리아	마라톤:마라손	미얀마:만마
폴란드:폴스까	포르투갈:보르뚜갈	베트남:웬남

2)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들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른 낱말들이 있다. 아예 말이 다르면 무슨 뜻인지 물어나 볼텐데 이처럼 같은 말이 뜻이 다르면 큰 혼동을 불러오게 된다.

(1)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

대표적인 것이 ‘오징어’와 ‘낙지’이다. 북한에서는 우리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른다. 오징어라는 말

도 쓰기는 하는데 손바닥처럼 생겨서 등 쪽에 뼈가 있는, 보통의 오징어보다 좀 작은 ‘갑오징어’만을 가리킨다. 금강산에 갔던 관광객이 ‘마른 낙지’를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집에 와서 포장지를 풀어 보니 오징어였다는 경험담은 잘 알려진 얘기다. 한동안은 북한 상인들이 거짓말로 오징어를 낙지로 속여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언어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가치담배’는 남과 북에서 각기 뜻이 다르다. 남한에서는 담뱃갑을 뜯어 날개로 파는 담배를, 북한에서는 종이로 만 담배, 곧 ‘퀄런’을 가리킨다. ‘일꾼’(북한식 표기는 ‘일군’)은 남한에서는 주로 샅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는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교육일군, 보건일군) ‘노작’(북한식 표기는 ‘로작’)이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힘들여 만든 작품을 뜻하는데 북한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저작을 이룰 때 쓴다. ‘다치다’는 북한에서 ‘만지다, 건드리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새터민이 남의 아기를 “다쳐봐도 될까요?”라고 말해서 아이를 아프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남한 부모에게 오해를 샀다는 일화도 있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 없습니다.’라는 표현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를 사양할 때 ‘괜찮다’는 의미로 ‘일 없습니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남쪽 사람들에게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는 말로 해석돼 호의를 가지고 권유한 남쪽 사람들이 무안해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2) 어감이 다른 말들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어감이 다른 말들도 있다. ‘소행’이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좋지 않은 행위에 쓰이나(소행이 패썹하다), 북한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아름다운 소행,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애무하다’는 남한에서 주로 남녀간의 애정 행위에만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나 동물 따위를 어루만지는 경우에도 쓰인다.(귀여운 제 살붙이를 애무했다) 남한에서 ‘부자’는 단지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뜻하지만, 북한에서는 ‘착취와 헐뜯으로 긁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여 매우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보채다’는 남한에서는 성가시게 조른다는 뜻인데(아이가 울며 보챘다),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당조직들은 과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에는 독촉하고 보채며...) ‘신사’는 남한에서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 바른 남자를 가리키나 북한에서는 말쑥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라고 하여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다. 접미사 ‘-질’의 사용도 상당히 다르다. 남쪽에서는 ‘질’이 직업이나 직책과 결합하면 비하하는 뜻을 지니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선생질’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교사로서의 직분’이라는 평범한 의미를 지닌다. ‘늬은이’에도 전혀 낮추는 뜻이 없어 북한 사전에는 ‘늬은이들을 존경하고 레절 바르게 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품성’이라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산보하다’는 말도 남과 북에서 다르게 사용된다. 남쪽에서는 단순히 바람을 쐬거나 쉬기 위해 이러저리 거니는 ‘산책’을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약 이성간에 ‘산보하러 갈까요?’라고 한다면 북쪽에서는 데이트 신청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살이 쪼다’는 표현도 남북한 쓰임이 다르다. 남쪽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북한에

서는 주로 동물에게 ‘살찌다’를 쓰고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사람, 특히 높여 말해야 할 대상에게는 ‘살찌다’ 대신에 ‘몸이 나다’라는 표현을 한다.

(3) 새로운 뜻이 더해진 말들

남북한 모두 기본적인 뜻은 같으나 특히 북한에서 새로운 뜻이 더해져서 차이가 나는 말들이 있다. 북한어에서 ‘번거롭다’는 일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는 뜻 외에 생각이 어수선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차츰 머리가 번거로워지는...) ‘바쁘다’는 남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기 매우 어렵거나 딱하다는 뜻도 지닌다.(너 요새 얼굴 보기 바쁘구나) ‘충질’은 눈충을 쓰는 것, ‘종자(種子)’는 문예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창작에서 종자를 옳게 잡고...), ‘해살’(남한식 표기는 ‘햇살’)은 ‘인민에게 비추어 주는 희망과 행복의 빛살’이라는 뜻이 덧붙여졌다. ‘세포’는 남한에서는 생물체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여 지도하는 기본 조직이라는 뜻도 있다.(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아버이’는 남쪽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뜻으로만 쓰이나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수령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여 이를 때에 주로 쓴다. ‘아저씨’는 본래 아버지와 항렬이 같은 친척 남자를 이르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이 말이 ‘형부’를 부르는 말로, 남한에서는 남자 어른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

3) 남과 북에서 새로 생겨난 말들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념에 관계되는 말들은 당연히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화어의 낱말들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또는 북한 특유의 제도와 풍물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가정혁명화: 온 가족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 가정을 혁명가 집단으로 되게 하는 것.

동요분자: 사상이나 립장이 철저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

밥공장: 밥을 비롯한 주식물들을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평양속도: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건설하는 데서 창조된 사회주의 건설의 비상히 빠른 속도.

강냉밥: 쌀과 강냉이를 섞어서 지은 밥. 또는 강냉이만으로 지은 밥.

가두녀성: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녀성. (남한:전업주부)

남한에도 북한과 다른 정치·경제·문화의 차이로 생긴 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인, 킥서비스, 콘도’ 등은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 분단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말이 엉뚱하게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한 벗을 가리키는 말인 ‘동무’는 이전에는 널리 쓰던 말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말로 널리 썼다. 그러자 남한에서는 이를 공산주의 말이라 하여 피하고 대신 한자어인 ‘친구’를 널리 쓰게 되었다.

4. 그 밖의 언어 차이

말소리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 사람들은 모음이 원순화되어 ‘어’를 ‘오’처럼, ‘으’를 ‘우’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별/불’, ‘서리/소리’, ‘꿀/꿀’ 등을 서로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이’ 모음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화되지 않은 발음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턱받이, 가을걷이’ 등을 [턱바디], [가을거디]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숫자를 읽는 데서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십이개월’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열두 개월’이라고 한다. 1kg, 2kg, 10kg 등을 북한에서는 ‘한 키로, 두 키로, 열 키로’ 등으로 읽는다. 308차는 ‘삼백공팔차’로 읽고 ‘2015년’은 ‘이천공십오년’으로 읽는다. 북한에는 ‘백공두 삼’이라는 표현이 있다. 102삽을 가리키는데, 남들이 100삽을 뜰 때 102삽을 뜬다는 말로, 일하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을 비꼰다. 즉 여럿이 함께 일할 때 조금 먼저 일을 시작하면서 ‘얼른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서 한 삽을 먼저 뜨고, 모두 다 100삽을 뜨고 쉬기 시작할 때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라면서 한 삽을 더 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문법에 있어 남북한 언어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문법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 사람들의 입말에서 부정부사 ‘안’과 ‘못’의 위치가 용언의 뒤에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알아 못 듣다’, ‘도와 안 주다’ 같은 것이다. 또한 ‘-라요’ ‘-자요’, ‘-기요’같은 어미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들은 모두 명령과 청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들어가자요’, ‘다음차를 이용하시라요’ 등)

친족 호칭어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낯선 말들이 있다. 남편을 가리켜 ‘주인’이나 ‘세대주’라는 말을 흔히 쓰고, 노년의 남편을 부를 때는 ‘령감’ 외에 ‘로친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시동생을 ‘적은이’라고 하고 올케를 ‘오레미’라 하며, 큰어머니를 ‘삼촌어머니’, 고모와 이모를 ‘고모어머니, 이모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남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남편의 형제 자매에게 사용하는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아기씨’ 등을 봉건시대의 잔재로 간주하여 옳지 않은 표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좀 더 심하다. 국립국어원에서 남북 교과서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일신라/후기신라, 갑오개혁/1894년 부르조아개혁, 만적의 난/개경 노비들의 투쟁, 흥경래의 난/평안도 농민전쟁’ 등 역사 용어는 특히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도 ‘가감법/더덜기법, 공배수/공통곱질수, 대우/거꿀반명제, 인력/끄는힘, 밝기/빛넙도, 일식/해가림, 락테이스/젓당분해효소’ 등 많은 차이가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남북한 화법 차이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 사람들은 직설적인 발화를 많이 한다. 그들은 상대를 배려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둘러 거절하거나 상대에 대한 인사나 관심의 표현으로 빈말 인사를 건네는 것을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칭찬을 하거나 받는 것에 대해 어색해 하며 지나친 칭찬은 아첨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 한 잔 하자’거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등의 인사말을 끝이듣고 연락을 기다리거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은 완곡한 거절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에 남쪽 사람들은 ‘책 좀 빌려 주시오.’ ‘창문 좀 열라’ 같은 북한식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무례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5.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국립국어원은 1991년 개원 이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주로 북한에서 발간된 국어사전 및 교과서, 문학 작품 등을 분석하여 남한 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조사를 하였다. 이 결과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북한어 표제어 선정 및 뜻풀이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은 1996년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처음 만난 이후 2007년까지 7차에 걸쳐 북한 학자들과 직접 교류를 하였다. 이는 남북한 언어학자가 직접 교류함으로써 남북한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언어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중단되었다. 2018년 이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벗어나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남쪽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는 북한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다 가시적인 성과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반영하고 기존 사전에 없던 새말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약 30만 개의 표제어를 수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고 문익환 목사가 1989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에게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제안하면서 태동되었다. 이후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이후 2009년까지 공동편찬회의를 1년에 네 차례씩 개최하여 집필 지침 등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2009년부터는 선정된 표제어에 대한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2010년에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2014년 6월까지 공동회의가 중단되었다. 2014년 7월 편찬회의가 재개되었다 다시 중단되어, 2015년까지 총 25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남북의 편찬위원들은 편찬지침을 합의하고, 사전에 수록할 30만여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올림말에 대해 남북이 분담하여 집필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사용해 온 자모의 명칭과 순서,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 등을 합의하였으며,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등 일부 규범 문제는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상대방이 집필한 원고에 대해 교차 검토 후 1차 합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합의 원고가 작성되면 다시 교열, 교정 작업을 진행하여 2019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어 어문 규정의 이해(2)

- 띄어쓰기와 표준어 익히기 -

정호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pulsa@hanmail.net

지난 호에서는 어문 규정의 개괄과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면 사정으로 심지 못했던 띄어쓰기와 표준어 관련 부분을 이번 호에 마저 심게 되었습니다.

IV. 띄어쓰기 익히기

1. 성과 이름과 관직명

- ☞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ㄱ. 홍길동, 김동인, 이퇴계, 서화담, 이충무공 / 충무공 이순신 장군
 - ㄴ.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 ㄷ. 홍길동 과장, 홍 전무, 김 선생, 김 장군, 이 대감
 - ㄹ. 우리나라에는 이씨가 많다.(접미사)

2. 조사의 띄어쓰기

- ☞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로 파악된 것은 모두 앞말과 붙여 적어야 한다. 조사는 여러 개가 겹칠 경우에도 앞말에 붙여야 하고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앞말에 붙여야 한다.
- ㄱ. 조사의 겹침 : 서울에서부터입니다. / 부산에서부터였습니다. / 집에서만이라도
 - ㄴ. 어미 뒤 :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알았어.”라고 말했다.
 - ㄷ. 너같이 여우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 복수는커녕 / 너뿐만 아니라 / 친구밖에 없다.

그리고 ㄷ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띄어 쓰는 일이 많다. 이 가운데 ‘뿐, 밖’ 등은 같은 형태가 (의존) 명사로도 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로, 만큼’도 마찬가지)

ㄹ. 천 원밖에 없어. / 이 일은 철수밖에 못해. /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 돈밖에 몰라. (조사)

ㄴ. 그 밖에 일이 많다. / 너 밖에도 많다. / 기대 밖의 성적을 거두다 / 건물 밖에는(명사)

ㄹ. 천 원뿐이야. / 철수뿐만 아니라 / 나한테는 너뿐이야. (조사)

ㄹ.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 가격이 천 원일 뿐이다. (의존 명사)

3. ‘데’의 띄어쓰기

☞ ㄱ의 ‘-는데, -는데’는 일정 상황을 전제하는 뜻으로 쓰이는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하지만 ㄴ, ㄷ의 ‘데’는 ‘장소, 경우, 처지’ 등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ㄱ. 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릴 하니 / 밤인데도 집에 안 가고 뭐하니?

문을 나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 뭐 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다.

ㄴ. 그를 설득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 / 가는 데를 알려다오.

이 글은 온 국민이 맞춤법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ㄷ. 그는 얼굴도 잘생긴 데(에)다가 돈도 많아.

4. ‘만큼’의 띄어쓰기

☞ ①의 ‘-으니만큼, -으니만큼’은 하나의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의 ‘만큼’은 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그러나 ③의 ‘만큼’은 의존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ㄱ. 열심히 일했으니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ㄴ. 꿈쩍도 못하리만큼 기운이 없다

② ㄱ.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ㄴ. 그 일만큼은 내가 할 것이다.

③ ㄱ.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ㄴ. 꿈쩍도 못할 만큼 기운이 없다.

ㄷ.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다.

5. ‘바’의 띄어쓰기

☞ ㄱ의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ㄴ의 ‘(은/는)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ㄱ. 그 일은 면밀히 고려해 본 바(가) 없다.

cf) 그 일은 면밀히 고려해 본바 계획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했다.

불의에 굴할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

ㄴ. 그는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었던바,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바 이를 알려 드립니다.

6. '밖'의 띄어쓰기

☞ '밖'은 명사이므로 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며 조사로 쓰이므로 ㄴ과 같이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ㄱ. 창문 밖을 내다 보라. 동구 밖까지 따라가다. / 건물 밖에 나가 보라 / 기대 밖의 점수를 받다, 합격자는 철수 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 예상 밖으로 일이 커졌다.

ㄴ. 내겐 너밖에 없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돈이 천 원밖에 없다, 사랑밖엔 난 몰라.

ㄷ. 합격자는 너 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 → 명사 '밖'
합격자는 너밖에 없다. → 조사 '밖에'

7. '뿐'의 띄어쓰기

☞ ①의 '뿐'은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에서는 '-을뿐더러'가 쓰인 것으로 이 말은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③에서는 의존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ㄱ. 나에게는 너뿐이다.

ㄴ. 동생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린다.

ㄷ.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② ㄱ. 얼굴도 예쁘뿐더러 마음씨도 곱다.

③ ㄱ.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ㄴ. 철수는 영철이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

ㄷ.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순 날강도다.

8. '지'의 띄어쓰기

☞ ㄱ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ㄴ의 '-근지, -는지'는 추

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ㄱ. 떠난 지 세 시간이 넘었다. /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 /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 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얼마나 부지런한지 혼자 세 사람 몫을 한다.

9. 명사+명사의 띄어쓰기

☞ 명사와 명사가 이어질 때 붙여 쓰는 일이 많으나, 그 둘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나 ('국회의원'), ㄱ.처럼 전문어로서 단어에 준하는 것인 경우 외에는 띄어 써야 한다. '기본 계획, 납부 실적, 조사 결과, 입찰 대상 업체' 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명사와 명사의 나열에 불과하다. 사실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를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 ㄴ.의 예들은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 ㄱ. 모음 조화/모음조화, 손해 배상/손해배상, 우편 번호/우편번호
- ㄴ. 기본 계획/*기본계획, 납부 실적/*납부실적, 조사 결과/*조사결과, 공직 기강/*공직기강, 입찰 대상 업체/*입찰대상업체

10. 'X-하다'의 띄어쓰기

☞ '하다'가 ㄱ처럼 그 자체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다'가 붙어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가 된 말들이 국어에 수없이 많다. '공부하다, 준비하다, 자랑하다, 조사하다, 만족하다, 암전하다...' 등. 이 말들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하다'를 띄어 쓰면 안 된다.

- ㄱ. 막노동을 하다, 입사 시험 준비를 하다
- ㄴ. 공무원법을 공부하다/*공부 하다, 입사 시험을 준비하다/*준비 하다

11. '-이다'의 띄어쓰기

☞ '-이다'는 조사이므로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

- ㄱ. 나는 학생이다/*학생 이다
- ㄴ. 너 때문이다. / 지금은 친구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이다.
- ㄷ. 그 친구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고향에서부터였다.(이- + -었- + -다)
- ㄹ. 밤에 책을 본 것은 잠이 오지 않아서였다. / 숙제를 못 낸 것은 몸이 아파서였다지만

12. ‘우리’의 띄어쓰기

☞ ‘우리’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것은 다음의 세 단어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들 이외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ㄱ.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부서, 우리 원, 우리 기관 ……

13. 연월일의 문장 부호 쓰기

ㄱ. 2000년 10월 7일 / 2000. 10. 7.

ㄴ. '99. 3. 1. / '00. 3. 1.

※ 표준어 추가 선정 1(2011. 8. 22.)

2011년 8월,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떡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 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표준어 대상으로 선정된 총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세간살이	세간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등물	목물	토란대	고운대
맨날	만날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못자리	뫼자리	흙담	토담
복숭아뼈	복사뼈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려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주	손자(孫子)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꼬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하다	"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견’,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 표준어 추가 선정 2(2014. 8. 29.)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삐지다’는 비표준어로서 ‘삐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삐지다’도 ‘삐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삐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다’ 등 모두 5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삐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삐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구안와사	구안괘사	삐지다	삐치다
굽신*	굽실	초장초	작장초
눈두덩이	눈두덩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둘째,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준어

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얹이', '허접하다', '딴지', '섬찐', '꼬시다' 등 모두 8항목이다.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8개)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꼬시다	꺾다	꼬시다: '꺾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꺾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꺾다.)
놀잇감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딴지	딴죽	딴지: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찐*	섬뜩	섬찐: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얹이	속병	속얹이: 「1」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속병: 「1」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위장병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섬찐'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찐하다, 섬찐섬찐, 섬찐섬찐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한편, 국어심의위원회에서는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한글 표기로 '레이다'와 '레이더'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어 발음이 [reɪdɑ:(r)]인 것을 반영하여 '레이다'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 표준어 추가 선정 3(2015. 12. 14.)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이쁘다'는 비표준어로서 '예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쁘다'도 '예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마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등 모두 4항목**이다. 이 가운데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과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에 대해서만 표준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예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이쁘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푸르르다’는 ‘푸르다’로 고쳐 써야 했으나 ‘푸르르다’와 ‘푸르다’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푸르르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꼬리연, 의론(議論), 이크, 앞새’ 등 모두 5항목**이다.

셋째,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활용형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말다’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ㄹ’을 탈락시켜 ‘(잊지) 마/마라’와 같이 써야 했으나,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잊지) 말아/말아라’와 같이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랑다, 동그랑다, 조그랑다’ 등과 같은 ㅎ불규칙용언이 종결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ㅎ’을 탈락시켜 ‘노라네/동그라네/조그마네’와 같이 써야 했으나, 불규칙활용의 체계성과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노랑네/동그랑네/조그랑네’와 같이 ‘ㅎ’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복수의 표준형으로 인정된 말은 **‘말아, 말아라, 말아요’처럼 ‘말다’에 ‘-아(라)’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과 ‘노랑네, 동그랑네, 조그랑네’처럼 ㅎ불규칙용언에 어미 ‘-네’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 등 모두 2항목**이다.

○ 복수 표준어: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4개)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비고
마실	마을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함.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임. ○ ‘마실꾼, 마실방, 마실놀이, 밤마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예문)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마고 말했다.
이쁘다	예쁘다	○ ‘이쁘장스럽다, 이쁘장스레, 이쁘장하다, 이쁘디이쁘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예문) 어이구, 내 새끼 이쁘기도 하지.
찰지다	차지다	○ 사전에서 <‘차지다’의 원말>로 풀이함. (예문) 화단의 찰진 흙에 하얀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고프다	-고 싶다	○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예문)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양 울었다.

○ 별도 표준어: 현재 표준어와 뜻이 다른 표준어로 인정한 것(5개)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꼬리연	가오리연	○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띄우면 오르면서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린다. (예문)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을 수놓았던 대형 꼬리연도 비상을 꿈꾸듯 끊임없이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의론	의논	○ 의론(議論):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 의논(議論):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 ○ ‘의론되다, 의론하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예문) 이러니저러니 의론이 분분하다.
이크	이끼	○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끼’보다 큰 느낌을 준다. ※ 이끼: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끼’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예문) 이크,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허겁지겁 뛰어갔다.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앞새	앞사귀	○ 앞새: 나무의 앞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앞사귀: 날날의 앞. 주로 넓적한 앞을 이른다. (예문) 앞새가 몇 개 남지 않은 나무들이 창문 위로 뻗어올라 있었다.
푸르르다	푸르다	○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할 때 이르는 말.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푸르르다'는 '으불규칙용언'으로 분류함. (예문) 겨우내 찌푸리고 있던 잿빛 하늘이 푸르르게 맑아 오고 어디선지도 모르게 흙냄새가 뭉클하니 풍겨 오는 듯한 순간 벌써 봄이 온 것을 느낀다.

○ 복수 표준형: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2개)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마 마라 마요	○ '말다'에 명령형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예문)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말아. 얘야, 아무리 바빠도 제사는 잊지 마라/말아라. 아유, 말도 마요/말아요.
노랑네 동그랑네 조그랑네 ...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	○ 으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그렇다, 노랑다, 동그랑다, 부엌다, 어떨다, 조그맣다, 커다랗다' 등등 모든 으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됨. (예문) 생각보다 훨씬 노랑네/노라네. 이 빵은 동그랑네/동그라네. 건물이 아주 조그랑네/조그마네.

※ 표준어 추가 선정 4(2016 12. 27.)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4항목이다. 그동안 '실뭉치'는 '실뭉당이'로 고쳐 써야 했으나 '실뭉치(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와 '실뭉당(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뭉치'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실뭉치, 걸판지다, 걸움음, 까탈스럽다' 등이다.

둘째는,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표현 형식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2항목이다. 그동안 '주책'에 '이다'가 붙은 '주책이다'는 잘못된 용법으로 다루어져 왔고 그 대신 '주책없다'를 쓰도록 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책이다'도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주책이다'도 표준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그곳엘랑'은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그곳에는'으로 고쳐 써야 했으나 '엘랑' 역시 '에는'과는 어감상 차이가 있고 문법에 어긋난 표현도 아니므로 표준성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추가 표준어(4항목)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겉판지다	거방지다	겉판지다 [형용사] ① 매우 푸지다. 예 술상이 겉판지다 / 마침 논문 돈이 생긴 것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겉판지게 사지.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예 싸움판은 자못 겉판져서 구경거리였다. / 소리판은 옛날이 겉판지고 소리할 맛이 났었지.
		거방지다 [형용사] ① 몸집이 크다.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③ =겉판지다①.
겉울음	건울음	겉울음 [명사]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예 꼭꼭 참고만 있다 보면 간혹 속울음이 겉울음으로 터질 때가 있다. 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예 눈물도 안 나면서 슬픈 척 겉울음 울지 마.
		건울음 [명사] =강울음. 강울음 [명사]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형용사]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예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 가스레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까탈스러운 숯 굽기 작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비칠 수도 있겠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예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딸아이는 사 준 옷이 맘에 안 든다고 까탈스럽게 굴었다.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까다롭다 [형용사] ①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실뭉치	실뭉당이	실뭉치 [명사]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예 뒤엀킨 실뭉치 / 실뭉치를 풀다 / 그의 머릿속은 엉켜버린 실뭉치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실뭉당이 [명사]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

○ 추가 표준형(2항목)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엘랑	에는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교실에설랑 떠들지 마라. 나를 앞에 얹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없다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 '주책이다'는 '일정한 주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틀리기 쉬운 말(목록)

번호	맞는 말	틀린 말
1	가르마	가리마
2	가르치다	가르키다, 가리키다
3	갈는지(-는지)	갈런지
4	갈아	갈애
5	개비	개피
6	할짝 갠 날씨[개대]	개인
7	거예요	거에요
8	거친[거칠대]	거칠은
9	걸맞은[걸맞대]	걸맞는
10	게시판(揭示板)	계시판
11	고달파[고달프대]	고달퍼
12	고마워[고맙대]	고마와
13	곰곰이	곰곰히
14	곰빼기	곰배기
15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6	그옥이[그옥하대]	그옥히
17	금세	금새
18	깎두기	깎두기, 깎독이
19	깎다	깎다
20	깨끗이	깨끗히
21	꼬이다(=피다)/꼬시다	꼬시다→표준어
22	꽃봉오리	꽃봉우리
23	끼어들다	끼여들다
24	(새가) 나는	날으는
25	(병이) 나왔다	(병이) 나셨다
26	나직이	나죽이
27	나지막이	나즈막이, 나지막히
28	난쟁이	난장이
29	날름거리다	널름거리다
30	날아가다	날라가다
31	낭떠러지	낭떨어지
32	넙적다리	넙적다리
33	놀라다	놀래다(사동사)

번호	맞는 말	틀린 말
34	(담장을) 높여라	높혀라
35	높지막이	높지막히
36	눈곰	눈곶
37	눈썹	눈섭
38	다르다	틀리다(의미 구분)
39	단출하다	단출하다
40	담개[담그대]	담귀
41	대가(代價)	뎡가
42	뎡밥	덥밥
43	(눈으로) 덮였다	덮혔다
44	도왜[돔대]	도워
45	돼/돼요/돼도/돼서/똥다	되/되요/되도/되서/똥다
46	되게	디게
47	두 살배기(-배기)	두 살박이
48	뒤쪽	뒷쪽
49	뒤치다꺼리	뒤치닥거리
50	들러/들렀대[들르대]	들려[*들리대]
51	디더/디뎡대[디디대]	딘어/딘렀대[딘대]
52	떡볶이	떡복기, 떡볶기
53	떼려야 뗄 수 없는	땨래야 땨수 없는
54	뜨개질	뜨게질
55	띠어쓰기	띠여쓰기
56	(문제를) 맞히다	(문제를) 맞추다
57	맙시	맙씨
58	머리말	머릿말
59	머지않아	멀지 않아
60	먹습니다(-습니다)	먹읍니다
61	먹지 않다	먹지 안다
62	멋쟁이	멋장이
63	메밀	모밀
64	메스껍다	메시껍다
65	메숙거리다	메식거리다
66	메우다	메꾸다

번호	맞는 말	틀린 말
67	며칠	몇일
68	모듬 회	모듬 회
69	몹시	몹씨
70	미숫가루	미수가루, 미숫가루
71	방귀를 꺾다	방귀를 꾸다
72	벗나무	벗나무
73	배품[배풀다]	배품
74	별의별	벼라별
75	볶음밥	볶음밥/볶은밥
76	(내일) 뵈요	(내일) 뵈요
77	부스러거리다	부시력거리다
78	부스스하다	부시시하다
79	불리다	불리우다
80	불은(국수)[불다]	뽕은[뽕다]
81	(경례·따귀를)올려붙이다	올려부치다
82	비로소	비로서
83	삐치다/삐지다	삐지다→표준어
84	사귀어[사귀다]	사겨
85	삼가고, 삼가야[삼가다]	삼가하고, 삼가해야
86	설렁탕	설농탕
87	설레는[설레다]	설레이는
88	섬뜩하다/섬찐하다	섬찐하다→표준어
89	성실하므로	성실하므로써
90	솔직히	솔직이
91	수놈	숫놈
92	스라소니	시라소니
93	실낱같은	실날같은
94	아귀탕	아구탕
95	아기	애기
96	아까워	아까와
97	아니예요	아니예요
98	예/아니요	예/아니오
99	아등바등	아등바등
100	아비	애비
101	안 먹다	않 먹다

번호	맞는 말	틀린 말
102	알맞은[알맞다]	알맞는
103	알아맞히다	알아맞추다
104	어떡하지	어떻가지
105	여태껏	여지껏
106	(회계) 연도	(회계) 년도
107	염두에 두다	염두해 두다
108	예쁘다/이쁘다	이쁘다→표준어
109	예스럽다	옛스럽다
110	오랜만(예)	오랫만
111	오랫동안	오랜동안
112	오십시오(-십시오)	오십시요
113	오이소박이	오이소백이
114	올바른[올바르다]	옳바른
115	웬지	웬지
116	우려먹다	울귀먹다
117	웁름	웁름
118	웃어른	윗어른
119	웬일	웬일
120	육개장	육계장
121	으스스하다	으시시하다
122	이래 봐도	이레 봐도
123	인사말	인삿말
124	있사오니(-사오-)	있아오니
125	있음	있슴
126	잠가[잠그다]	잠귀
127	재떨이	재털이
128	주웠대[줍대]	줏었다, 주셨다
129	집게	집개
130	김치찌개	김치찌게
131	치러[치르다]	치뤄
132	하고자 합니다(-고자)	하고저 합니다
133	할걸(-ㄹ걸)	할겄
134	할게(-ㄹ게)	할게
135	했고요(-고)	했구요

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의 이해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kwonjil@snu.ac.kr

1. 머리말

올해 2018년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조선 제4대 왕으로 즉위한 지 600돌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 글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창제 원리, 창제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언어학 강의’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2]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 조상들이 처음으로 언어에 대한 창의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표기법 문제였습니다. 표기법에 대한 관심은 삼국시대에 이미 비롯하였으며, 오랜 시일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결과, 궁극적으로는 훈민정음이라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한국의 언어학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언어학사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큼니다. 체계적인 음운 이론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 그리고 운소까지 갖춘, 더 나아가 모음조화라는 음운 체계를 반영한, 새로운 음소문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토마스가 2011년에 《언어와 언어학을 빛낸 50인의 사상가》라는 저서를 펴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대인도의 파니니, 고대로마의 바로, 그리고 흄볼트, 그림, 소쉬르, 사피어, 블룸필드, 야콥슨, 촘스키 등을 비롯하여 동양과 서양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인 언어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인 중에는 한국의 세종대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 언어학, 한국 언어학의 탁월한 성과를 한마디로 대변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자와 문자의 유형

세계에는 수천 가지의 언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문자를 다른 언어에서 쓰는 것을 빌려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고유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란 사람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입니다. 입과 귀에 의존하는 말, 즉 음성 언어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류는 일찍부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음성 언어가 지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언어는 뜻과 소리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발생도 이 두 요소와 관련을 맺는데, 이에 따라 문자의 종류를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나눕니다. 표의문자는 언어의 두 요소 가운데 뜻을 기준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글자 모습에 의미가 드러나 있는 문자입니다. 이 표의문자는 기본적으로 상형문자에서 발생했는데, 사물의 형상이나 의미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는 문자의 수도 역시 무한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문자인데, 한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자의 수는 수십만 자에 이르고 있어서 문자 자체를 익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표음문자는 언어의 두 요소 가운데 소리를 기준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사물의 수가 무한한 것과는 달리,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는 유한합니다. 표음문자는 소리가 글자 모습에 드러나 있는 문자이므로, 글자를 보면 그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바로 표음문자입니다.

표음문자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리의 단위가 음절인 문자를 음절문자라 하고, 소리의 단위가 음소인 문자를 음소문자라 합니다. 일본의 가나가 음절문자의 예이며, 로마자가 음소문자의 예입니다.

3.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동기

옛날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조상들이 독특한 문자를 쓰고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학술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국어를 적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용했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일찍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가 들어왔고, 한국인 조상들은 이것을 한국어를 적는 데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구조와 전혀 다른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문자 생활을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응용해서 한국어를 적으려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대체로 한자의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쓰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 “처용가”의 한 구절 ‘夜入伊遊行如可’의 예를 들어 보면, “밤 드리 노니다가” 정도로 해독됩니다. ‘밤’은 ‘夜’, ‘드리’의 ‘들-’은 ‘入’, ‘노니다가’의 ‘노니-’는 ‘遊行’과 같이 한

자의 뜻을 이용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의 문법 형태는 주로 한자의 소리를 이용하여했습니다. ‘드리’의 ‘이’는 ‘伊’로, ‘노니다가’의 ‘-다가’는 ‘如可’로 표기했는데, 이 때 ‘伊, 如可’가 가진 본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 없는데, 모두 소리를 빌려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문법 형태를 적기 위해 한자의 형태를 줄여서 匕=니(尼), 夕=다(多) 등과 같은 새로운 줄임 문자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줄임 문자가 되면,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음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나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어의 경우 음절수가 적어 이러한 음절문자가 정착할 수 있었으나, 음절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음절 구조가 복잡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정착할 수 없어, 한국어의 일반화된 표기법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자 사용의 어려움에다, 음절문자가 실패함으로써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소문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훈민정음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자학적인 배경과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건국과 함께 민족에 대한 자의식을 높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나라의 부강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선행조건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들 생활에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는 중국과 달라서 중국어를 적는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말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 세종대왕의 민족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한국말은 중국말과 달라 중국 문자로써는 문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으므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강한 민족자주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간 문자 생활을 누리지 못해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한 강한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4.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해례(풀이와 보기)를 짓게 하여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이제 그 창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의 원리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으며, 모음은 이 세상의 중요한 세 가지 즉, 하늘, 땅, 사람[천(天), 지(地), 인(人)]을 삼재(三才)로 잡

고 세 기본 글자 ‘· — ㅣ’를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음의 제자 원리입니다.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인 ㄱ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습을 본떴으며, 설음(舌音, 혀소리)인 ㄴ는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습을 본떴으며, 순음(脣音, 입술소리)인 ㄹ는 입의 모습을 본떴으며, 치음(齒音, 잇소리)인 ㄷ는 이의 모습을 본떴으며, 후음(喉音, 목소리)인 ㅇ는 목구멍 모습을 본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자음을 만든 첫 번째 원리는 발음기관을 본뜬, 상형의 원리입니다. 이리하여 ‘ㄱ, ㄴ, ㄹ, ㄷ, ㅇ’의 기본 글자 다섯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음을 만든 두 번째 원리는 가획(可劃)의 원리입니다. ‘ㄱ, ㄴ, ㄹ, ㄷ, ㅇ’ 다섯 글자를 기본 글자로 하여, 획을 하나씩 더하여 ‘ㅋ, ㄸ, ㅌ, ㅍ, ㅊ, ㅌ, ㅎ’의 아홉 글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ㅋ은 ㄱ에 비해 소리남이 세다. 그러므로 획을 더한다. ㄴ에서 ㄸ, ㄹ에서 ㅌ, ㄷ에서 ㅍ, ㅊ에서 ㅌ, ㅊ에서 ㅎ, ㅇ에서 ㅎ을 만드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획을 더하는 뜻은 한가지다.”

즉 어금닛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소리의 다섯 소리에 각각 기본 글자 하나씩을 만들고, 각 소리에 속한 소리들을 이 다섯 글자를 토대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한글은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체계적으로 표현해 내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탁월한 문자가 되었습니다.

모음은 ‘·, —, ㅣ, ㅜ, ㅡ, ㅗ, ㅓ, ㅛ, ㅝ, ㅙ, ㅟ, ㅛ, ㅜ’의 열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는 ‘呑’ 글자 가운데소리와 같다.”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음은 그 성격상 조음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지만, 모음은 그 조음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을 만드는 원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구하였습니다.

“·는 하늘이라 하고, ㅏ는 ·와 같되 입을 오므리고, ㅓ는 ·와 같되 입을 편다. —는 땅이라 하고, ㅓ는 —와 같되 입을 오므리고, ㅓ는 —와 같되, 입을 편다. ㅏ와 ㅓ는 모두 ·와 같고, ㅓ와 ㅓ는 —와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 ㅏ ㅓ가 한 부류이고, — ㅓ ㅓ가 한 부류임을 분명히 인식한 증거입니다. ㅣ는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도 넣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것과 독립된 자리에 있음을 인식한 증거입니다.

5. 훈민정음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

잘 알다시피 훈민정음(=한글)은 창제한 사람, 창제한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 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 기록인 “훈민정음해례”는 한국의 국보 제70호이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5세기에 당시의 한국어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직접 창안하였습니다.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되, 당시 중국 성운학에 없던 새로운 음운 개념을 창안하여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몇몇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훈민정음은 문자 발달의 최고 단계인 ‘자질문자’입니다. 영국 리스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교수는 인류가 사용해 온 각종 문자체계를 분류해 기술하면서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자이지만 다른 알파벳 문자와 한 부류로 묶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은 ‘ㄱ-ㄷ-ㅌ’처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음소 자질을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문자체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샘슨은 훈민정음을 따로 자질체계(feature system)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자음을 만들면서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고 그 기본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즉 가획하여 같은 무리의 소리를 모두 창제하였습니다. 모음을 만들면서는 하늘, 땅, 사람을 삼재로 잡고 세 기본 글자 ‘ㆍ — ㅣ’를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창제하였습니다.

셋째,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처음부터 따로 만든 문자입니다. 상형문자에서 발달한 문자는 자음 글자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페니키아문자도 자음 글자만 있었으며 현재 아랍문자도 자음 글자만 있고, 영어를 비롯하여 현재 여러 언어의 문자로 쓰이는 로마자에서 보는 모음 글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문자로 정착될 때 비로소 추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분리하여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창제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구별하여 만든 문자는 세계 문자학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넷째, 훈민정음은 초성-중성-종성의 음절 삼분법을 창안하였습니다. 중국의 말소리 표기법을 보면 하나의 음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즉 한 글자(음절)의 음을 성모와 운모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이란 음절을 ‘ㄷ’과 ‘웅’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동(東)=ㄷ(德)+웅(洪). 그런데 훈민정음은 이러한 성운학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한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동’을 ‘ㄷ’, ‘ㅇ’, ‘ㅇ’으로 나누는 즉, 하나의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분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운학에서는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다섯째, 훈민정음은 모음조화 현상을 이해하고 문자에 반영하였습니다. 모음의 기본 글자 ㆍ, —

, ㅣ를 바탕으로 한 부류의 모음은 ·를 각각 ㅡ와 ㅣ의 위쪽과 오른쪽에 두었으며(ㅏ, ㅑ) 다른 한 부류의 모음은 ·를 각각 ㅡ와 ㅣ의 아래쪽과 왼쪽에 두어(ㅓ, ㅕ). 모음글자끼리 어울릴 때도 ‘ㅑ, ㅕ’처럼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을 설축, 설소축, 설불축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설축(舌縮)이라는 개념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1960년대에 이르러 현대 언어학에서 증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음조화가 있는 알타이언어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언어에서 혀뿌리의 전진과 후축 여부에 의해서 모음조화의 모음류가 변별된다는 점을 이미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밝혔습니다.

여섯째, 훈민정음의 또 하나의 언어학적으로 주요한 사실은 당시 언어인 중세 한국어 음운의 운율 실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한 점입니다. 중세 한국어 소리의 높낮이(성조[聲調])를 기술하고 방점(傍點)으로 표기한 것인데, 이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표기한 문자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훈민정음에는 현대 언어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의 뛰어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훈민정음을 보는 눈

6.1. 그간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훈민정음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저서로 최현배 선생의 “한글갈”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40년에 정음사에서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1976년에 “고친 한글갈”을 발행하였습니다.

초판의 머리말에서 이 책의 성격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訓民正音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들어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리어,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正音學)을 세워, 위로는 申景濬, 柳僖의 유업을 잇고, 아래로는 周時經 스승의 가르침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밝히고 기리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짜임이 가장 과학스럽고도 그 자형이 정연하고 아름다우며, 그 글자수가 약소하고도 그 소리가 풍부하며, 그 학습이 쉽고도 그 응용이 광대하여, 글자로서의 모든 이상적 조건을 거의 다 갖추었다 할 만하니, 이 글자를 지어낸 세종대왕 한 사람 당대의 밝은 슬기가 능히 천고만인의 슬기를 초월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2. 1890년 발행된 한글로 쓴 최초의 교과서인 ‘선비와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책’이란 뜻의 “사민필지”(士民必知)를 지은 헐버트(Homer Hulbert) 박사는 ‘단순함과 음성을 표기하는 능력에 있어 세계에서 한글을 당할 글자가 없다’(Korean alphabet scarcely has its equal in the world for simplicity and phonetic power)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의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 (원래,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소개하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평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국제 학계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60년 미국 하바드대학에서 출판된 라이샤워(E. O. Reischauer)와 페어뱅크(J. K. Fairbank)의 공저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의 제10장은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샤워는 15세기 한국 문화에 대하여 논하면서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포스(Frits Vos) 교수는 미국에서 열린 중국, 일본,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문자: 이두와 한글’에서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고 감탄하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예찬은 시카고대학의 맥콜리(J. D. McCawley) 교수가 1966년 미국 언어학회지 “언어”(Language)에 실은 서평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 교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글이 조음음성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며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 우수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언어학개론서의 문자론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리스대학의 샘슨 교수는 인류가 사용해 온 각종 문자체계를 분류해 기술하면서 한글을 따로 자질체계문자로 분류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사세(Werner Sasse) 교수는 ‘서양이 20세기에 들어서 완성한 음운 이론을 세종대왕은 그보다 5세기나 앞서 체계화했고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체계적임을 명시한 학자가 또 있습니다. 과학 잡지 “디스커버”(Discover) 제15권 제6호(1994년 6월호)에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글자인지를 밝힌,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의 저자인,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교수의 ‘표기법의 힘’(Writing Right)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글자가 한 눈에 구별되며 모음은 점과 수직선, 수평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정확히 본뜬 기하학적 기호로 이루어진다. 이들 자음과 모음은 사각의 공간 안에 잘 조합되어 한 음절을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28개의 글자만 기억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글이 세종대왕의 의지로 창제되었다는 데 감탄하였습니다.

6.3. 최근 두 학자를 더 소개합니다. 먼저 메릴랜드대학의 램지(Robert S. Ramsey) 교수입니다.

김영기(Kim-Renauld, Young-Key) 교수가 편찬한 “세종대왕”(King Sejong the Great)이라는 책에 실린 ‘한글’(The Korean Alphabet)과 국제문자학 전문잡지 “스크립타”(SCRIPTA) 제2권(2010년)에 실린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라는 글에서 한글의 창제한 이와 창제 배경, 창제 원리, 언어학적 의의 등을 국내외 어느 학자 못지 않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은 21세기에 인류 보편적인 문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의 탄생 - 〈문자〉라는 기적”(2011년)〔“ハングルの誕生”〕을 쓴 노마 히데키 교수(전 동경외국어대학)입니다. 지은이는 민족주의의 맥락이 아닌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를 통찰하여 ‘소리가 글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찾아내고, 하나의 글자 체계를 뛰어넘은, ‘말과 소리와 글자’가 함께하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한글을 그려 냈습니다. 노마 교수는 한글의 탄생은 앎과 글쓰기생활의 새로운 혁명이며 또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 내는 형태의 혁명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한 가지 독특한 문자체계를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음표, 즉 소리로 성립된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이 태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신비로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7. 맺음말 -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글에서 저는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창제 원리, 창제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언어학 강의’에서 한국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한국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한국어에 대한 열정)가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어 연구자,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면서도 제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서 연구하거나 학습자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가끔 보면 교수자나 학습자가 한글이 그저 훌륭하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 말하는 예를 자주 봅니다. 이제는 무엇이 왜 훌륭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언어학 강의’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두 경우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셋째, 훈민정음의 학술적인 주요 성과. 넷째, 훈민정음을 풀이한 책인 “훈민정음해례”.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한국언어학 강의에서는 “훈민정음언해”의 강독.*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맞이하는 올해, 이러한 저의 제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고문헌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원래,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hangeul/future/view/120?cId=25>

국립한글박물관 2017,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국립한글박물관. = [영어판] *A guide to Hunminjeongeum*, National Hangeul Museum.

권재일 2012, 세종 학문의 국어학사적 이해, “615돌 세종의 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주제: 세종대왕 다시 보기)”, 한글학회.

김주원 2008, 훈민정음 소개와 그 의미: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국립국어원.

김주원 2013,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노마 히데키 2011, “한글의 탄생, - 〈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옮긴이: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원서: “ハングルの誕生” 2010, 동경: 평범사.

박창원 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안병희 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최현배 1940, “한글갈”, 정음사. 1976, “고친판 한글갈”, 정음사.

허 웅 1999, 우리 말글을 보아 온/보는 두 가지 눈, “한한샘 주 시경 연구” 제12호, 한글학회.

홍윤표 2013, “한글 이야기”: 1. 한글의 역사, 2. 한글과 문화, 태학사.

Ramsey, S. Robert 1992, *The Korean Alphabet*, in Kim-Renauld, Young-Key (ed.) 1992, *King Sejong the Great: The Light of Fifteenth Century Korea*,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Ramsey, S. Robert 2010,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Writing Systems SCRIPTA* vol. 2, 1-13, The Hunmin jeongeum Society.

Thomas, Margaret 2011,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Routledge.

* 국립한글박물관 2017,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에서는 (1) 훈민정음이란 무엇인가, (2)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3) 훈민정음의 자모 순서, (4) 훈민정음의 자모 명칭의 순서로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든 목적과 배경,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훈민정음해례본, 훈민정음언해본)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말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현재 뉴욕주립대 방문학자

1. 들머리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들과 달리 의성의태어가 매우 발달해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웃음이나 울음 같은 감정이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다. 우리말이 이런 표현들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우리말 낱말 교육에 활용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우리말의 웃음 표현들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치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통 ‘ㅎㅎ’(히힝히힝)으로 웃음을 화면 위에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익명의 바다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ㅎㅎ’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웃음소리인지 실제 음성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의 우리말 웃음은 웃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웃는 웃음이냐에 따라 실제로는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호호’, ‘히히’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화자에 대한 정보가 익명의 조건 속에 갇혀 버린 인터넷에서의 ‘ㅎㅎ’는 환산될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웃음소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쁜 감정을 소리로 드러낸 것이다. 마땅히 우리의 정서 중 가장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웃음으로 실현되는 우리말 ‘하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주로) 젊은 남성들의 웃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호호’는 젊은 여성들(혹은 여성 일반)의 웃음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허허’는 주로 중후한 장년층 남성들의 웃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간혹 환경에 따라서는 ‘후후’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후후’를 웃음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후후’를 ‘허허’의 비표준적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물론 ‘허허’와 ‘후후’의 실제 뉘앙스는 약간 다르

다. ‘허허’에는 노쇠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는 데 비해서, ‘후후’에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결합해 있다고 할까)

‘헤헤’는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웃음으로 입을 조금 벌리고 주책없이 웃는 웃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호호’는 주로 비열한 남성들의 음흉한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물론 여성이라고 ‘호호’하고 웃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호호’에는 악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히히’는 흔히 사람이 아닌 귀신의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히히’가 사람의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헤헤’보다 더 장난기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나 순박한 청년의 멋없이 싱거운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 웃음소리를 ‘ㅎㅎ’(히옴히옴)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표현 공간이 너무 웅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세밀한 우리말 ‘ㅎㅎ’계 웃음들은 다시 ‘젊은이들의 거리낌 없는 웃음’을 나타내는 ‘아하하’, ‘여러 사람의 떠들썩한 웃음’을 나타내는 ‘와하하’, ‘원숙한 여성의 간드러진 웃음’을 나타내는 ‘오호호’, 할아버지들의 너털웃음이나 기가 막혀서 힘없이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허허’와 가소롭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천하고 비굴한 웃음을 나타내는 ‘에헤헤’, 비열하고 변태스러운 웃음을 가리키는 ‘으호호’, (귀신 따위의) 자지러질 듯이 크게 웃는 소리인 ‘이히히’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 영역이 놀랄울 정도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후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후’만을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후’는 쓰여도 ‘우후후’는 거의 쓰이지 않는 웃음인 것 같다. ‘우후후’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우후훗!’의 형태로 쓰이는 감탄사로 여겨진다) “입을 조금 벌리고 속없이 빙그레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헤~’, “마음에 흐뭇하여 멋없이 싱겁게 또는 장난스럽게 웃는 소리나 모양(혹은 비웃는 태도로 은근히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히~’도 기억해 둘 우리말 웃음 표현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이렇게 우리말 웃음들은 ‘ㅎㅎ’에 우리말의 기초 단모음 7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를 모두 활용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말 단모음에는 이밖에 ‘ㅛ, ㅜ, ㅠ’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ㅛ’와 ‘ㅛ’는 서로 합류되어서 발음상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고 ‘ㅛ, ㅠ’는 실제 발음에서 대개 이중모음 ‘we, wi’로 실현되기 때문에 모음에 따른 의미 변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모음으로 선택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말 웃음에는 ‘ㅎ’계 웃음 말고도 ‘ㅍ’계 웃음과 ‘ㅋ’계 웃음이 있다. ‘ㅍ’계 웃음에는 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르/까르르까르르’, 참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면서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륵/까르륵까르륵’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깔깔’ 웃음과,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꼴꼴’ 웃음, 아이들의 짓궂은 표정에서 나오는 ‘꺄꺄’ 웃음, 입을 꼭 다물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웃는 ‘꺄꺄’ 웃음 등이 있다.(‘꺄꺄웃음’이나 ‘꺄꺄웃음’, ‘꺄꺄웃음’이 없다는 점에서 ㅎ계열 웃음소리에 비해 제약이 있지만 ㅍ계 웃음도 우리말 웃음 표현의 중요한 영역이다.)

‘ㅋ’계 웃음은 ‘ㅍ’계 웃음보다 더 입을 벌리지 않거나 적게 벌리고, 웃음을 참으면서 웃는 웃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입을 가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아보지만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웃음소리들, ‘킁킁’, ‘키득키득’, ‘킬킬’, ‘키들키들’, ‘켈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인류의 언어 영역에서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다양한 표현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이뿐이 아니다. “방글, 방긋, 방그레, 병글, 병긋, 병그레, 병글, 빙긋, 빙그레”와 “상글, 상긋, 상그레, 생글, 생긋, 싱글, 싱긋, 싱그레”가 모두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뒤져 보면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를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방글’에 대해서는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고 보드랍게 한 번 웃는 모양”이라 뜻풀이하고 있고 ‘상글’에 대해서는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웃는 모양”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글’ 웃음은 입을 벌리며 웃는 것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움직이며 웃는 웃음이다. 두 웃음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방그레’와 ‘상그레’는 한번 웃은 웃음을 계속 짓고 있는 표정을 나타내고 ‘방글방글’과 ‘상글상글’은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방글’과 ‘상글’이 유아기의 아기나 아동들의 해맑은 웃음이라면 ‘병글’과 ‘싱글’은 성인들의 기분 좋은 웃음이다. ‘방글, 방그레, 방글방글’, ‘생글, 생그레, 싱글생글’이 한번 지은 웃음을 일정 시간 지속한 웃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방긋’과 ‘생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을 한번씩 살짝 지어주는 귀여운 웃음이고 ‘병긋’과 ‘싱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으로 전하는 매력적인 웃음이다. ‘방글’과 ‘상글’이 입을 벌리고, 혹은 눈을 뜨고 웃는 웃음이라면 ‘빙글’ 웃음은 입을 거의 다물고 웃는 것이고, ‘싱글’ 웃음은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예 감고서 웃는 웃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글 웃음’은 입을 ‘방긋거리면서 웃는 웃음’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상글거리면서 웃는 웃음인 것이니,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의미를 알고 보면 ‘상글방글’이나 ‘싱글병글’의 의미는 국어사전을 따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상글방글’은 아이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없이 웃는 정답고 환한 웃음’이고 ‘싱글병글’은 어른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없이 웃는 유쾌하고 상쾌한 웃음’인 것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에는 그 밖에도 “발썌발썌, 별썌별썌, 새물새물, 시물새물, 시물시물, 새실새실, 시실시실, 실실, 씹, ... 피식, 픽(픽픽), 해죽(해죽해죽), 해쭈(해쭈해쭈), 해실해실, 히물히물, 히죽(히죽히죽), 히쭈(히쭈히쭈), 히힝,...” 등등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발썌발썌’ 계열은 웃음이 위로 번져서 콧볼을 별름거리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새물새물’, ‘히물히물’ 계열은 웃음을 참고자 하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입술 한쪽이 들쭉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며 ‘해죽/해쭈’이나 ‘히죽/히쭈’ 같은 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슬쩍 한번 드러내면서 웃는 쭉스러운 웃음을, ‘새실새실’, ‘해실해실’은 실없이 까불거나 실속없이 맹하게 웃는 웃음들 나타내는 말이다.

이상의 수없이 많은 웃음표현들은 우리말 동사 ‘웃다’와 연어(colloquation)를 이루어 문장을 구성

한다.(하하 웃다, 깔깔 웃다, 킁킁 웃다, 방글방글 웃다, 싱글벙글 웃다, 씩 웃다, 피식 웃다, 헤실헤실 웃다, ... 등)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거리다, 하다’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쓰이기도 한다.(하하 거리며 웃다, 깔깔거리고 웃다, 킁킁하며 웃다, 방글방글거리며 웃다, 싱글벙글하며 웃다, 씩하고 웃다, 피식하고 웃다, 헤실헤실거리며 웃다, ... 등)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말 웃음의 이름들과 그 용법을 곱씹어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혼자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우리말 ‘울음’ 표현들

우리말에는 웃음 표현만큼은 아니지만 울음 표현도 매우 다채롭게 나타난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라면 누구나 앞으로 주어질 고난의 삶을 염려하며 ‘으아’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마련이다. 젖먹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응아/응애’로 울음소리에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을 싣기 시작하고 조금 세상이 분간되기 시작하면 ‘앙/양양~으양/으양으양’으로 어른들에게 따지듯 울음을 울게 된다. 젖먹이 시절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배고픔이 계속 되면 울음소리가 숨 넘어가는 소리 ‘까르르 까르르’, ‘까르륵까르륵’으로 바뀌게 된다. 아기 때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때로는 심한 웃음소리를, 때로는 심한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으양/으양으양’을 거쳐 ‘앙/양양’, ‘양양’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이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무렵이다. ‘으양으양’ 울다가 ‘양양’대기 시작할 무렵이면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할 때 처음에는 응석을 부리며 ‘응응’대다가 점차 떼를 쓰며 ‘깨깨’거리거나 ‘빠빠/삐삐’거리기 시작한다. 끝내 어른들에게 혼이 나고 나면 ‘잉잉’거리며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잉잉’거리는 단계가 되면 이미 아이들은 땀살맛은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우는 게 일상이고 또 그만큼 울음을 나타내는 말도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면 크게 소리 내어 우는 일은 대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홀쩍홀쩍’ 혹은 ‘홀쩍홀쩍’ 울거나 ‘흑흑’거리며 울게 된다. 때로 소리를 참으며 ‘꼭꼭’거리기도 하고 숨을 삼키며 ‘꼭꼭’거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 ‘으흐흐’하고 울음을 흘리거나 ‘으흐흑’하고 울음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때로 ‘엉엉’거리며 목놓아 우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된 한국인에게 가장 특별하게 허용되는 울음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제(喪制)가 되어 목이 쉴 때까지 울어대는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애고애고’이다. 상제(喪制)는 눈물이 마른 채 ‘아이고’를 반복하며 곡을 해야 하고 상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이어이’하며 곡을 하는 것이 상갓집에서의 우는 법도이다. 물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만큼이나 슬픈 일에는 ‘어이구/어이구어이구/에구에구’를 외치며 목 놓아 우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은 대개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울음소리들은 동사 ‘올다’와 연어를 이루어 사용된다.(엉엉 올다, 잉잉 올다, 홀쩍홀쩍 올다, 꼭꼭

울다, 어이어이 울다, ... 등) 웃음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미사 ‘-거리다, -하다’가 결합해서 쓰이기도 한다.(영영하며 울다, 잉잉거리며 울다, 훌쩍거리며 울다, 꺽꺽거리고 울다, 어이어이하며 울다, ... 등)

웃음소리에 비해 우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것은 아마도 울음이 일정한 나이가 지난 이후에는 억제되는 데 비해 웃음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눈물 흘리고 우는 일은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영문도 모르고 울던 것과 뜻한 바를 뜻대로 다 할 수 없던 어린 시절을 빼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고 돌봐 주신 부모님과과의 이별에서나 맘껏 울도록 한 한국적 문화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의 현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4. 맺음

이상에서 우리말의 다채로운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및 동물의 울음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 쓰임을 낱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웃음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의 다양한 양상을 웃음소리를 사용역(register)를 중심으로 재해석해 보고 그 낱말로부터 확장 가능한 다른 낱말들이나 핵심 문장들을 아동들의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우리말 울음소리는 웃음소리에 비하면 그 수가 적은데 이는 성인이 되면 울음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는 한민족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울음소리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성의태어들이 우리말 낱말 교육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서재극. 1980. 중세국어의 단어족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김광해. 1991. “어휘연구의 방향”,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802-820.
- 김양진. 2008. “고려사 속의 고려어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pp.189-219
- 홍윤표. 2008.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한 단견”,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131-158.
- 김양진. 2010. 「동요 노랫말 수수께끼」. 루텐스.
- 정승혜·김양진·장향실·서형국. 2011. 「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 박문사.
- 김양진. 2010. 「동물 이름 수수께끼」. 루텐스.
- 김양진. 2011. 「식물 이름 수수께끼」. 루텐스.
- 김양진. 2011.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박상훈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외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의사 소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발음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모국어(또는 제1 언어)의 발음과 음운 체계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영어권 화자(특히 미국 영어 화자)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수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특히 한국인들의 실제 발음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한국어 발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어와 한국어

먼저 한국어와 영어의 자·모음 체계와 억양, 강세, 리듬 등을 포함하는 초분절자질(Suprasegmentals)을 살펴 보도록 한다. 영어에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또 같은 미국 영어 내에서도 지역 방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반 미국 영어(General American English)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어 모음은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서울 방언을 살펴본다.

1) 모음 체계

한국어의 단모음(simple vowels)의 개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명확히 결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모음의 개수가 7개, 8개, 또는 10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어의 모음 중 /꺀/와 /꺁/의 이중 모음화(diphthongization)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국어의 단모음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전상이 2012:22; Sohn 1999:156; Chang 2017:4189).

	전설 모음 ¹⁾		후설 모음 ¹⁾	
	비원순 ²⁾	원순 ²⁾	비원순	원순
고모음 ³⁾	i	(ɪ)	—	ɪ
중모음 ³⁾	e	(ɛ)	ɜ	ʊ
저모음 ³⁾	æ		ɒ	

반면, 일반 미국 영어의 모음들을 고려할 경우 영어의 단모음은 아래와 같다.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i I		u ʊ
중모음	e (eɪ) ⁵⁾ ɛ	ə	o (oʊ) ⁵⁾ ɔ
저모음	æ	ʌ	ɑ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어 모음의 경우 후설 모음은 저모음인 /ɑ/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순 모음으로 발음되는 데 비해 한국어는 후설 모음 중에 원순·비원순 모음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자음

한국어의 자음 중 여기서는 파열음(Plosives), 파찰음(Affricates)과 마찰음(Fricatives)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그것들을 아래 표에 보인다(전상이 2012:21; Sohn 1999:153).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평음	ㅍ	ㅌ		ㄱ	
	격음	ㅂ	ㄷ		ㅋ	
	경음	ㅃ	ㄸ		ㆁ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마찰음	평음/격음		ㅅ ⁶⁾			ㅎ
	경음		ㅆ			

- 1) 발음할 때 혀의 어느 부분이 관여하는지에 의한 구분 방법이다. 혀의 끝부분(앞부분)이 사용되면 '전설 모음', 혀의 뿌리에 가까운 부분(뒷부분)이 사용되면 '후설 모음'이라 칭한다.
- 2) 모음 발화 시에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발음하면 '원순 모음', 그렇지 않으면 '비원순 모음'이라 칭한다.
- 3)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에 의한 분류이다.
- 4) 여기에서 화살표는 Chang (2017:4189)을 따른 것으로 /ɛ/ 모음과 /ɜ/ 모음이 중화(neutralized)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두 모음 간의 음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 5) 괄호 안은 이 모음들이 각각 이중 모음으로 실현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단모음으로 이 표에 포함한 것은 이 모음을 모국어 화자들은 단모음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모음을 발음할 때 [e]와 [ɪ]로 또는 [o]와 [ʊ]로 떼어 내어 소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자음 중 파열음(Plosives), 파찰음(Affricates)과 마찰음(Fricatives)은 다음 표에서 보인다. (Ladefoged 1999:41)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p b			t d		k g	
파찰음					tʃ dʒ		
마찰음		f v	θ ð	s z	ʃ ʒ		h

이 표에서 쌍으로 제시된 자음 중 먼저 제시된 것이 무성음⁶⁾ 나중에 제시된 것은 유성음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모든 자음이 무성음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의 자음은 유성음 사이에서만 유성음으로 실현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즉, 한국어 자음의 경우 유·무성음이 변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보겠다.

3) 초분절자질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로 흔히 분류된다. 강세에 의해 박자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음절의 모음의 음가에도 강세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aspire aspiration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에 -ation 이라는 명사화 접미사가 첨가되어 파생된 파생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발음(특히 각각의 첫음절의 a와 두 번째 음절의 i의 발음)을 비교하면 이 둘은 각각 서로 전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a는 소위 “schwa [ə]” 처럼 발음되는데 비해 두 번째 a는 전설 저모음[æ]으로 발음된다. i의 경우에는 처음 것이 이중모음 [aɪ]으로 발음되는 데 비해 두 번째 것은 [ə]와 같이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처음 단어의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놓이게 되지만 두 번째 단어의 경우 세 번째 음절에 제1강세가 놓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영어에서는 강세가 있는 음절은 해당 모음이 온전히 발음되지만,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은 보통 약화되어 중간 위치의 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의 발음에서는 강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강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음절이 대체로 동일한 정도의 길이와 세기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Jun (1993, 2000)에 의하면 서울 방언에서는 악센트 구(Accentual Phrase)의 끝에서 음높이(Pitch)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 단위는 음운 단위(Phonological Word)와 억양 구(Intonation Phrase)의 중간 단계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말하면 단어와 문장 사이의 구 단위의 끝에서 억양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6) ‘ㅅ’의 경우 그 제자 원리상 각자 병서하여 ‘ㅆ’을 얻을 수 있으므로 평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소리의 실현은 격음이 된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기로 한다.

7) 발음할 때 성대의 진동이 동반되는 말소리를 ‘유성음’, 그렇지 않은 소리를 ‘무성음’이라 한다.

3. 한국어와 영어의 자·모음 차이를 고려한 발음 교육

1)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모음

영어에는 대체로 /ai/, /aʊ/ 그리고 /ɔɪ/의 세 가지 이중 모음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중 모음이란 하나의 음절 안에서 중성으로 사용되는 모음의 조음 위치가 발화 시작점과 마침 점에서 변화가 있는 모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위의 모음들이 이중 모음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는 위 예에서와같이 모음의 조음 위치가 변화될 경우 하나의 음절로 보지 않고 두 개의 음절로 지각한다. 즉, 한국어의 /아이/는 두 음절이지만 영어의 /ai/는 하나의 음절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이 현상을 음절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모든 학생에게 유익하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어를 표기할 때는 자음과 모음을 묶어 음절 단위로 쓰지만 (그래서 음절이 매우 직관적이지만) 영어 표기의 경우 음절 단위로 묶어 쓰거나 띄어 쓰지 않기 때문에 음절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차이를 설명할 때는 영어의 [ai]의 첫 모음만 발음하고 [ɪ]를 같은 세기로 따로 발음하는 것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영어 단어 father의 첫 음절처럼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 경우 한국어의 /ㅏ/보다 조금 더 후설 모음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영어 모음 /oʊ/의 경우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모음의 시작점의 음가와 마침점의 음가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 모음으로 보이지만 모국어 화자들은 심지어 이를 단모음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영어권 화자들은 이 모음을 [o]와 [ʊ]로 나누어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발음할 때 흔히 /ㅜ/를 [oʊ]처럼 발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이 모음도 처음의 음가를 유지하며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반모음 /j/와 /w/에 관한 것이다. 영어 화자들(사실은 서구권 언어 사용자 전반)은 이 소리들을 자음으로 취급한다. 다음 예를 살펴 보자.

yes [jɛs] we [wi]

이 두 단어는 각각 CVC⁸⁾와 CV구조의 음절로 여겨진다.
반면 한국어 화자들은 해당 소리들을 모음으로 취급한다.

옛 [jet] 위 [wi]

위의 두 단어들은 각각 VVC와 VV 구조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영어권 학생들이 특히 자음 뒤의 ‘ㅣ 선행모음’이나 ‘ㅏ+기타 모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 영어권 학생들은 ‘귀’를 발음할 때 [구+위]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8) C와 V는 각각 자음(Consonant)과 모음(Vowel)을 의미한다.

반모음 [w]의 소리에 대한 직관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발음을 교정해 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를테면 /꺠/를 발음할 때, [꺠]를 단모음으로 짧게 발음하고 []를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꺠]을 발음함과 동시에 입술을 오므리고 혀는 []모음 발음할 때의 위치에 놓도록 지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 모음 음가의 차이

영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꺠/의 발음에 관한 것이다. /꺠/의 경우 영어권 학생들은 /o/로 인지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⁹⁾ 이 두 모음의 조음 위치는 (현재 서울 방언의 경우) 대체로 후설 중모음으로 유사하고 차이는 원순화 여부뿐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에서 후설 중모음은 원순 모음화 되는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⁰⁾. 다시 말해 영어에서 후설 중모음은 원순화를 동반하므로 후설 중모음인 /어/를 한국어에서처럼 입술의 원순화 없이 발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음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발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영어권 학습자의 모음 지각과 관련하여 한국어 모음 /ㅏ/와 /ㅑ/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장혜진 등(2015)은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60대 이하 화자는 모두 /ㅑ/와 /ㅏ/를 매우 유사하게 실현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필자의 직관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 해당 모음을 발음 또는 지각하는데 (특히 해당 모음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 /ㅡ/ 모음의 발음이다. 장혜진 등(2015)은 한국어의 /ㅡ/ 모음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60대 화자는 /ㅡ/가 /ㅏ/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ㅡ/가 /ㅣ/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남성 화자는 30대 화자부터, 여성 화자는 40대 화자부터 /ㅡ/가 전설 모음인 /ㅣ/에 더 가깝게 발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ㅡ/ 모음의 음가를 교육하는데 시사점을 보여준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원순화 되지 않은 후설 고모음으로 음가를 설명하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다시 말해, 영어의 /u/ 모음을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지 말고 발음하라고 설명할 경우 학생들이 현실음과의 차이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발음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ㅟ/와 /ㅢ/ 모음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이들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광충구(2003)에서 중부 방언의 70대 이상 화자는 /ㅟ/와 /ㅢ/를 단모음 음소로 가지고 있지만 60대 이하 화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장혜진 등(2015)에 따르면 60대 화자를 대상으로

9) 비슷한 이유로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o/모음이 한국어의 /꺠/에 가깝다고 느낀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Austin, TX의 경우 현지에 사는 한인들은 외래어 표기법 원칙(국립국어원 1986)에 따른 ‘오스틴’ 보다는 ‘어스틴’이라는 표기를 선호한다.

10) 그 이유가 전설 모음과의 최대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있다.

/니/와 /긔/의 실현 양상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화자가 이 두 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발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두 모음이 CVV(C) 음절을 이룰 경우에는 그 발음이 영어와 다르므로, 예를 들어 ‘자음+긔’의 경우 첫 자음을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혀의 위치는 /ㅣ/ 모음과 같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즉, 매우 짧은 원순 전설 고모음 [y]를 발음하고 바로 [i]를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3) 자음의 차이

영어의 경우 유·무성의 대조가 존재함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는 유·무성음의 차이는 변별력을 갖지 않고 평음, 격음, 경음 차이에 더 민감하다. 이런 차이가 한국어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을 발음 또는 지각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킨다.

달(the moon) 탈(mask) 딸(daughter)

대부분의 영어권 화자들은 이 세 가지 소리를 부분하여 발음하고자 할 때 특히 평음과 격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음성 지각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때 중요한 요소가 VOT (Voice onset time)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대가 /ㄷ/, /ㅌ/ 또는 /ㅌ/ 자음 같은 무성 파열음을 발음하기 위해 열려 있다가 그 뒤를 따르는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 닫혀야 하는데¹¹⁾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위 자음들의 VOT는 /ㅌ/ < /ㄷ/ < /ㅌ/의 순서로 커진다. 이때 대체로 /딸/의 경우 영어의 유성 자음 /d/와 유사한 VOT를 가지는데 비해 강세가 있는 음절의 맨 앞에서 실현되는 /t/는 기식음화(aspirated) 되어 VOT가 높고 그 수치가 /ㄷ/과 /ㅌ/ 사이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즉 영어권 화자들은 해당 위치의 /t/ 자음을 /ㄷ/과 유사하게 발음하든 /ㅌ/과 유사하게 발음하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어 자음 중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 한국어의 억양 패턴과 함께 교육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음을 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영어의 /s/와 한국어의 /ㅅ/ 발음의 차이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영어의 해당 소리는 치경 근처에서 발음되는 마찰음으로 보면 되나 한국어 시옷은 ‘ㅣ 선행모음’ 앞에서 구개음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시/에서 /ㅅ/은 치경보다는 경구개에 근접하여 발음되는 것이다. ¹²⁾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미 자음표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어의 /ㅅ/은 매우 강한 기식음과 함께 발음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자음을 음성학적으로는 “격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연구도 꽤 있다(문승재 1997; Park 1999). 이 차이가 영어권 화자들이 /사랑/을 [싸랑]에 가깝게 발음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말의 /ㅅ/은 강한 기식음을 동반하고 이 소리가 영어의 /s/와 다르므로 매우 주의를 기울여 교육해야 할 자음이라 볼 수 있다.

11) 모음과 같은 유성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성대의 진동이 필요하므로 성대가 가까이 붙어야 한다.

12)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쓰였던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서울시’를 ‘Seoul-si’가 아니라 ‘Seoul-shi’로 표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음만 놓고 보면 이 때 /ㅅ/은 영어의 ‘sh’ [ʃ]에 가깝다는 것이다(김선정 2012).

4. 한국어의 억양 교육

전술한 대로 한국어의 서울 방언에서는 대체로 단어와 문장의 중간 층위에 해당하는 악센트 구 끝에서 음의 높이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준다.¹³⁾ 영어권 화자에게 이런 간단한 패턴을 알려 주고 따라 하게 함으로써 해당 학생이 구사하는 한국어의 유창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영어권 학생들은 강세 박자 언어인 모국어의 영향으로 어구의 끝부분을 약하게 발음하기 쉬운데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억양 교육을 충실히 할 경우 이외에도 한국어 파열음의 평음, 격음, 경음 구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Jun (2000)에 따르면, 전술한 악센트 구의 기본 억양 패턴은 THLH이라고 한다. 여기서 H는 높은 소리를 L는 낮은 소리를 가리키며 제일 앞에 있는 T는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T는 이 구의 첫소리가 격음 또는 경음일 때¹⁴⁾ H로 그렇지 않을 경우 L로 실현된다고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정이가 사과를 좋아해요.

청이가 사과를 좋아해요.

‘정이가’는 평음으로 시작되므로 L로 실현되어 LLH의 패턴이 되고 ‘청이가’는 첫소리가 격음인 파찰음이므로 H로 실현되어 HLH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영어권 화자들이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이 소리의 높낮이를 함께 교수할 경우 학습자들이 조금 더 쉽게 평음과 격음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 차이와 초분절자질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 차이를 인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명한 것이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 차이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s)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교실 밖에서 쉽게 그것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말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3) 액센트 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사실 보기보다 간단치 않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환경에서는 교사의 직관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14) /ㅅ/과 /ㅎ/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문헌

- 곽충구. 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國語學 제41집:59-91.
- 국립국어원. 1986. 문교부 고시 제85-11호.
- 김선정. 2012. 한국어 발음 e교육을 위한 한영 음운대조. 한인교육연구 제 29호:78-83.
- 문승재. 1997. 국어 'ㅅ' 음가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 말소리 33:11-22.
- 장혜진, 신지영, 남호성. 2015.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연구 제21집 제2호:341-358.
- 전상이. 2012. 한국어 발음 현상의 이해. 한인교육연구 제 29호:20-26.
- Chang, S.-E. 2017. Enhancement effects of clear speech and word-initial position in Korean glid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41(6):4188-4199.
- Jun, S.-A.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A. 2000.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Journal of Speech Science* 7(1):143-169.
- Ladefoged, P. 1999. American English.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H. 1999. The phonetic nature of the phonological contrast between the lenis and fortis fricatives in Korean. In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 (ICPhS 99)"*, San Francisco, Vol. 1:424-427.
- Sohn, H.-M.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소개

권진주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연구원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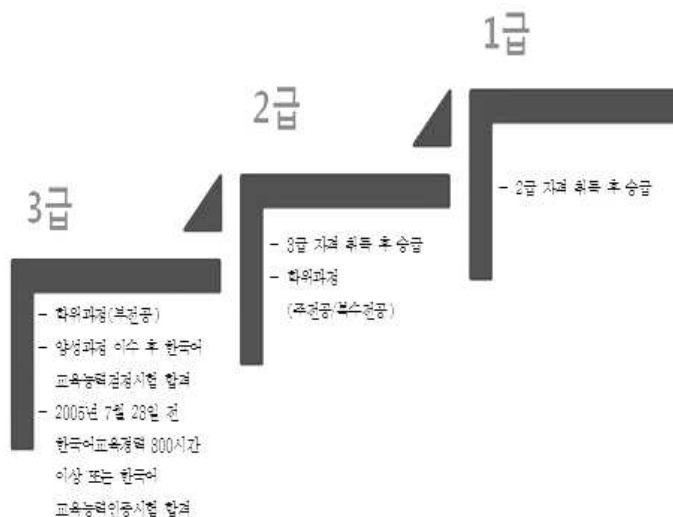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한글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전반에 관해 이해를 하고, 적절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 및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세부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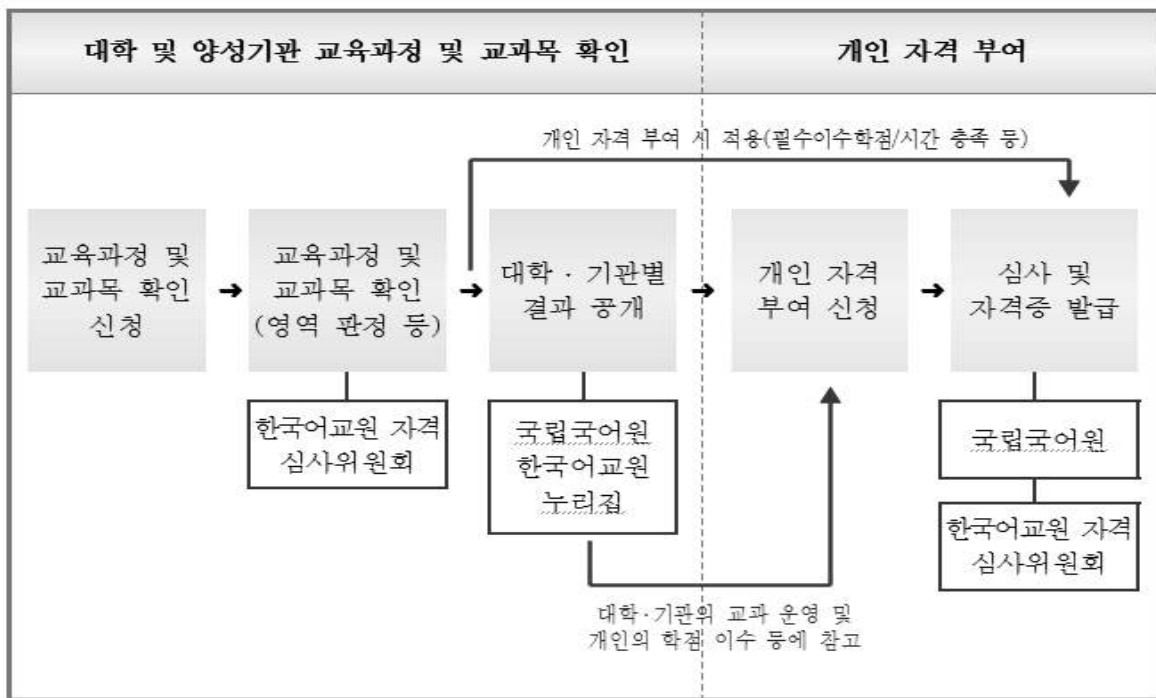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자격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뉘는데 일반 취득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



하며, 승급은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는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와 ‘개인 자격 부여 심사’로 나누어진다.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는 대학(원) 및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개인 자격 부여 심사’이다. 이때,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이수 여부는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을 보면 자격 부여 절차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앞선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뉘는데 이때 일반 취득의 경우, 다시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전 대상자와 이후 대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하여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과 5영역(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급 및 유형에 따른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다.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2급 1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u>주전공 또는 복수전공</u> 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5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u>주전공 또는 복수전공</u> 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0~17학점 또는 대학원에서 6~7학점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2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u>부전공</u> 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80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20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20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5. 7. 28. 이후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급 및 유형에 따른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다.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2급 9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u>주전공 또는 복수전공</u> 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0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u>부전공</u> 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또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총 120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급의 경우,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상위 급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승급 대상자 유형에 따른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1급 12번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2급 13번	학위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강의 기간 + 1,2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2급 14번	양성과정, 800시간 경력,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보다 더 자세한 심사 기준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양성기관 현황

2006년에 처음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된 이래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18년 5월 현재 37,000명을 넘어섰다. 2006년 당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가 86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2년 동안 40배가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격증 취득자 수	868명	639명	842명	1,037명	2,157명	1,810명	2,337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3,139명	4,566명	5,837명	6,102명	6,211명	2,352명	37,897명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도 증가했다. 2006년 당시 74개였던 양성기관이 2018년 현재 430개에 이른다. 기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가 51개, 대학원이 116개, 사이버대학(원)이 12개, 학점은행제가 34개, 단기양성기관이 217개에 해당된다. 연도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대학(원)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	81개소	95개소	123개소
단기 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	114개소	131개소	154개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계
대학(원) 전공학과	145개소	163개	182개	186개	205개	205개	205개
단기 양성기관	160개소	178개	188개소	202개소	213개소	213개소	213개소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한국어교원 및 양성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 한국어교원 및 양성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국어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

방정웅

교육학 박사, 달라스기독교한국학교 교장, 전 포트워스 교육청 교육평가관, 전 NAKS 총회장,
전 SAT 한국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실시하는 SAT 한국어 모의고사는 2017년으로 21회를 맞게 되었다. 1997년 처음으로 한국어가 미국대학입학검정시험인 SAT 시험에 아홉 번째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이 된 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주관으로 모의고사를 시작하였다.

1. 연도별 모의고사 응시 현황(표 1)

2016년에는 168학교에서 2,196명의 학생이 응시하였다. 1997년의 제1회에 4,825명과 1998년의 제2회에 4,643명의 모의고사 참여는 전국적으로 홍보로 참여도가 높았고 1999년의 제3회부터는 7학년 이상만 응시하도록 권장을 하여 연도별로 응시자의 수가 떨어졌으나 그동안 각 학교에서 꾸준히 한글 교육에 힘써서 점차 7학년 이상의 응시자가 늘어났다.

지역별로 응시자 수와 응시학교 수에 변동이 많고 지역협의회의 독려 여부에 따라 응시자의 수에 차이가 많다.

2016년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를 낮추고 문항 패턴의 조정으로 문항 수는 80문항이고, 평균은 56점이고 만점은 80점이었는데 만점자는 14명이 나왔다. 2015년까지는 만점자가 10명 미만이었다.

2. 연도별 SAT 한국어 모의고사와 정규 고사 응시상황(표 2, 3)

College Board의 본고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으로 출제되고 8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 범위가 200점에서 800점이지만 NAKS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점수의 범위가 0점에서 80점이다. 모의고사의 성적을 800점 만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의 점수 범위를 본 고사와 같게 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난이도나 문항 수 등 고려할 때 어려운 사항이 많다. 청취, 어법, 독해의 영역별 출제 문항 수의 조정과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문적인 문항 분석

능력에 따른 진단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모의고사에서 60점이 넘으면 본 고사에서 700점 이상을 70점이 넘으면 75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College Board의 외국어 고사 연도별 응시상황과 2015년 응시자 성적분포 비교 (표 3, 4)

College Board의 SAT 외국어 고사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9개의 외국어가 들어있다. 이 외국어 시험에는 청취력을 요구하는 시험과 요구하지 않는 시험의 두 종류가 있다. 청취력을 요구하는 시험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의 여섯 언어가 있고 청취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어시험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탈리아 라틴어 스페인어의 여섯 개의 언어가 있다.

2015년 11월에 실시한 외국어 시험 가운데 가장 많은 응시자는 스페인어이고 가장 적은 응시자는 일본어이다. 한국어는 청취력을 포함하는 영역의 외국어에서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은 2110명의 응시자를 내고 있다. 평균 점수는 외국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768점이다. 한국어 응시 학생의 83%가 750점 이상을 얻고 있다.

4. SAT 한국어 모의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 문제은행제도 적용 -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출제위원들의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여 영역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문제은행을 만들고 출제할 때에는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뽑아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출제도 쉬워지고 객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 나) 출제위원 선정 - 출제위원을 매년 위촉하는 것보다 출제위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위임하여 축적된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문항을 개발하도록 한다.
- 다) 전문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와 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실시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등 전문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라) 모의고사 만점자의 시상 - 2016년부터 모의고사 만점자의 시상을 실시하여 참가자와 학교에게 SAT 한국어를 홍보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SAT 한국어 모의고사의 학습활용 (표 5, 6, 7)

매해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는 평가과정을 거쳐 각 학교로 통계자료들이 보내진다. 이 자료에는 학교별 통계표, 학생 개인 성적표 그리고 학생 종합 성적기록부가 들어있다. 어려운 통계수치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별 평가해설 안내서도 같이 보내진다.

개인별 성적표는 학생에게 전해지고 학교에서는 학교 통계표와 학생 성적집계를 참고한다. 학생들에게는 시험결과를 전국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통계표가 개인별 성적표에 첨부된다.

가) 학교별 평가분석 내역의 이해

모의고사의 평가결과는 학교 통계표와 학생 성적집계로 나누어진다. 학교별 평가분석은 학교의 성적이 전국 결과와 비교되었다. 청취, 어법 및 독해의 분야별 성적과 전체성적이 성적집단별 (Score Range)로 집계되어있고, 학교통계표에는 문항 난이도(Item Difficulty)와 문항별 정답(Key)도 함께 들어있다.

학생 성적집계에는 각 개인의 모의고사의 분야별 성적과 전국백분율순위점수(National percentile ranks)가 들어 있다. 이외에 맞는 답의 수효, 틀린 답의 수효 그리고 생략한 답의 수효를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틀린 답에 대하여는 미국대학평의회(College Board)의 감점 방법을 적용하였다. (틀린 답의 수효의 1/3을 감점하였음). 생략한 답에 대하여는 감점을 하지 않았다.

2016년의 총점은 80점이고 분야별 총점은 청취는 26점, 어법은 27점, 독해는 27점이다.

나) 학교별 분석표 용어해설

1. Total score - 청취, 어법, 독해를 종합한 성적
2. Listening Comprehension - 청취 성적
3. Usage - 어법 성적
4. Reading Comprehension - 독해 성적
5. Years in U.S.A - 미국에 살아온 햇수
6. Years in Korean school - 한국어 학교에 다닌 햇수
7. Male - 남학생
8. Female - 여학생
9. Grade - 학년
10. Item difficulty - 문항난이도 (문항별정답율)
11. Key - 문항별 정답
12. N - 응시자 수
13. Mean - 평균점수
14. StdDev - 표준편차

다) 학생 성적 용어해

- | | | | |
|-------------|-------------|-------------|------------|
| 1. TOTAL | - 전체 성적 | 11. RIGHT_U | - 어법 맞는 답수 |
| 2. LISTEN | - 청취 성적 | 12. RIGHT_R | - 독해 맞는 답수 |
| 3. USAGE | - 어법 성적 | 13. WRONG_T | - 전체 틀린 답수 |
| 4. READING | - 독해 성적 | 14. WRONG_L | - 청취 틀린 답수 |
| 5. PR_TOTAL | - 전체 백분율 순위 | 15. WRONG_U | - 어법 틀린 답수 |

- | | | | |
|-------------|-------------|-------------|-------------|
| 6. PR_LSTN | - 청취 백분율 순위 | 16. WRONG_R | - 독해 틀린 답수 |
| 7. PR_USAG | - 어법 백분율 순위 | 17. OMIT_T | - 전체 생략한 답수 |
| 8. PR_READ | - 독해 백분율 순위 | 18. OMIT_L | - 청취 생략한 답수 |
| 9. RIGHT_T | - 전체 맞는 답수 | 19. OMIT_U | - 어법 생략한 답수 |
| 10. RIGHT_L | - 청취 맞는 답수 | 20. OMIT_R | - 독해 생략한 답수 |

라)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와 문항별 정답(Key)의 이용

학교통계표에 있는 문항난이도와 문항별 정답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학생들의 능력을 전국난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문항 중에서 지나치게 낮은 정답을 보인 문제는 다시 점검하여 문제가 너무 어려운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인지 판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복습시킬 수 있다.

영역별로 나타나 있는 학교의 평균점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평균능력을 진단하고 백분율분포표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6. 덧붙이기

지난 20년 동안 SAT II 모의고사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한 많은 경비는 대부분 NAKS의 재정으로 이루어졌다. 21회가 되는 지금까지 문제 출제와 프린트, 녹음, 송료 등을 NAKS에서 모두 부담을 했는데 응시자에게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세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감당해 오고 있다. NAKS의 중요한 사업이 학술대회/교육대회를 통한 교사훈련, 교재개발, 교과과정 연구 그리고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이다. 이 가운데 모의고사 실시는 NAKS가 20년 이상을 계속한 2세들의 모국어 활성화를 위한 독특한 사업이다.

1997년 한국어가 SAT 대학입학시험에 9번째의 외국어로 채택이 된 이후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응시하여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대부분이 다른 외국어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SAT 한국어 모의고사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정착에 공헌하여 왔다.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경향을 볼 때 부모가 강제로라도 자녀들을 모국어 교육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녀들의 장래를 보다 넓게 보장하는 길이 된다.

1996년에 SAT 대학입학시험에 한국어 채택을 위한 TASK FORCE 위원으로 SAT 한국어 채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모의고사 평가위원으로 책임을 맡아오며 많은 보람을 느껴왔다. 2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공헌할 수 있게 된 뒤에는 포트워스 교육청 (Fort Worth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의 초기 12년간의 커다란 배려와 지원이 있었다. 채점을 위한 고가의 컴퓨터 사용 및 평가를 위한 기술과 시간 등의 할애 등을 허락한 연구평가과 (Research & Evaluation Department)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표 1. 지역별 SAT 모의고사 연도별 응시자 수 및 학교수

번호	지역	학생수					학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01	남서부	88	144	148	101	148	5	8	11	8	13
02	뉴잉글랜드	101	94	116	129	117	5	3	3	5	4
03	동남부	168	171	141	140	136	14	15	11	11	14
04	동북부	266	267	262	310	413	15	20	21	21	24
05	미시간	91	93	85	29	77	5	5	3	2	5
06	북가주	260	319	285	206	216	23	23	12	17	16
07	서북미	143	144	121	164	149	16	15	10	16	12
08	와싱턴	185	160	92	153	146	21	13	7	15	10
09	중서부	60	49	47	72	67	8	7	6	9	9
10	콜로라도	51	33	43	40	41	7	5	6	5	5
11	플로리다	33	55	34	30	26	4	6	5	4	2
12	하와이	28	45	33	36	19	6	5	7	7	4
13	동중부	74	46	52	57	83	10	7	7	7	10
14	중남부	34	24	12	39	45	3	3	2	4	5
20	한국학교연합회	653	619	575	494	513	40	36	36	34	35
	합계	2235	2263	2046	2000	2196	182	171	147	165	168

표 2. 연도별 SAT 한국어 모의고사 및 College Board 정규고사 통계

연도		7-12학년				9-11학년		College Board 정규고사	
		학생수	학교수	문항수	평균	학생수	평균	학생수	평균
1997	제1회	4815	265	80	48.2	1946	54.8	2447	649
1998	제2회	4643	250	80	49.3	2106	54.7	2248	751
1999	제3회	3633	222	83	49.5	1431	55.2	2128	723
2000	제4회	3310	204	80	51.4	1268	59.2	2220	736
2001	제5회	3254	189	74	47.3	1184	54.0	2370	746
2002	제6회	3750	211	80	51.3	1502	57.1	2555	740
2003	제7회	3509	209	80	44.5	1456	51.0	2826	737
2004	제8회	3761	209	80	48.1	1501	53.4	2878	745
2005	제9회	4343	205	80	45.4	1846	51.3	3240	752
2006	제10회	3992	221	80	50.5	1762	55.4	3888	754
2007	제11회	3599	214	80	46.3	1489	51.8	4176	757
2008	제12회	3063	186	82	40.7	1305	46.2	4443	760
2009	제13회	2402	205	80	51.2	1180	55.6	4626	763
2010	제14회	2077	192	84	56.8	958	61.5	4540	764
2011	제 15회	1933	173	80	52.1	898	56.5	4273	767
2012	제16회	1667	179	81	56.8	764	59.0	3552	769
2013	제17회	1781	171	80	54.5	747	57.9	2986	767
2014	제18회	1624	147	80	53.7	667	55.9	2458	767
2015	제 19회	1387	165	80	63.2	597	64.9	2110	768
2016	제20회	1566	169	80	58.3	658	61.4	1891	764

표 3. College Board의 SAT 외국어 고사 연도별 응시상황 비교

응시연도	응시자수						평균점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1997	2447	3428	1174	4183	1045	6543	649	748	627	582	567	574
1998	2248	3918	1070	2849	907	5279	751	749	651	599	574	603
1999	2128	4297	1141	2454	814	4671	723	746	662	609	604	615
2000	2220	4657	1155	2500	919	4872	736	745	669	625	606	614
2001	2370	4990	1270	2492	938	5105	746	748	672	625	605	631
2002	2555	5113	1371	2369	779	4979	740	752	676	623	611	622
2003	2826	5234	1404	2457	848	5308	737	756	675	630	628	638
2004	2878	4917	1303	2279	751	5428	745	756	682	627	612	635
2005	3240	5062	1465	2542	830	5656	752	758	687	629	631	635
2006	3888	6166	1683	3358	1050	8252	754	764	682	621	596	638
2007	4176	6542	1733	2993	1039	7794	757	764	687	618	582	644
2008	4443	6878	1732	2900	949	7876	760	763	693	624	601	647
2009	4625	6896	1759	2684	919	7045	763	763	689	637	609	652
2010	4540	6877	1818	2700	854	7152	764	761	688	620	612	653
2011	4273	7294	1966	2370	770	6399	767	758	684	646	611	663
2012	3552	6585	1750	2288	710	4898	769	759	692	656	614	670
2013	2986	6167	1521	1972	675	3868	767	759	688	654	624	668
2014	2453	5682	1410	1870	620	3321	767	758	695	664	620	664
2015	2110	5204	1332	1621	438	2982	768	759	694	666	635	656
2016	1891	4925	1317	1533	479	2914	764	761	704	664	629	660

참고: 1) 자료출처: <https://reports.collegeboard.org/sat-suite-program-results/>

2) 위의 통계는 청취력을 요구하는 외국어만을 비교한 것임

표 4. College Board의 2015년도SAI 외국어 고사 성적분포 비교

성 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N	PCT	N	PCT	N	PCT	N	PCT	N	PCT	N	PCT
750-800	1,741	83	4,011	77	638	48	502	31	117	27	901	30
700-740	187	9	545	10	228	17	237	15	53	12	494	17
650-690	83	4	257	5	122	9	217	13	52	12	378	13
600-640	43	2	170	3	82	6	222	14	54	12	417	14
550-590	26	1	97	2	72	5	163	10	47	11	336	11
500-540	12	1	61	1	69	5	139	9	29	7	237	8
450-490	13	1	44	1	55	4	88	5	44	10	127	4
400-450	3	0	17	0	29	2	32	2	29	7	54	2
350-390	2	0	2	0	17	1	19	1	10	2	31	1
300-340					10	1	1	0	2	0	6	0
250-290					6	0			1	0	1	0
200-240					4	0	1	0				
Total	2,110		5,204		1,332		1,621	(7,587)	438	(706)	2,982	(19,302)
Mean	768		759		694		666	(636)	636	(644)	665	(651)
SD	56		66		120		112	(122)	129	(126)	106	(111)
75th %ile	800		800		790		770	(740)	760	(750)	760	(740)
50th %ile	790		790		740		680	(640)	650	(670)	680	(670)
25th %ile	760		750		630		590	(540)	530	(540)	590	(580)

참고: 1) 자료출처: <https://secure-media.collegeboard.org/digitalServices/pdf/sat/total-group-2015.pdf>

2) 위의 통계는 청취력을 요구하는 외국어만을 비교한 것임 3) 괄호 안의 숫자는 청취력을 요구하지 않는 외국어의 통계임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SAT KOREAN PILOT TEST - 2016**

Region: 01 Southwest

School: 09 GDKS (Carrollton)

Test Date: 3/18-3/20, 2016

표 5. SAT 한국어 모의고사 학교통계표

Total Score				Listening Comprehension				Usage				Reading Comprehension			
Score Range	Yours		National		Score Range	Yours		National		Score Range	Yours		National		
	N	%	N	%		N	%	N	%		N	%	N	%	
80	1	7.7	14	.6	28	2	15.4	108	5	26	6	46.2	367	16.8	
79	2	15.4	53	2.4	27	5	38.5	234	10.7	25	3	23.1	242	11.1	
78	0	0	2	.1	26	0	0	.5	.24	0	0	0	17	.8	
77	1	7.7	65	3	25	1	7.7	262	12	23	1	7.7	159	7.3	
76	2	15.4	93	4.3	23-24	2	15.4	296	13.6	22	0	0	188	8.6	
70-75	2	15.4	332	15.2	21-22	0	0	281	12.9	21	1	7.7	176	8.1	
65-69	2	15.4	281	12.9	19-20	1	7.7	256	11.7	19-20	0	0	222	10.2	
60-64	1	7.7	256	11.7	17-18	1	7.7	347	15.9	17-18	0	0	120	5.5	
55-59	0	0	242	11.1	15-16	1	7.7	138	6.3	15-16	1	7.7	169	7.7	
50-54	1	7.7	149	6.8	13-14	0	0	141	6.5	13-14	1	7.7	69	3.2	
45-49	0	0	135	6.2	11-12	0	0	.25	1.1	11-12	0	0	122	5.6	
40-44	1	7.7	160	7.3	09-10	0	0	40	1.8	09-10	0	0	50	2.3	
35-39	0	0	100	4.6	07-08	0	0	.5	.2	07-08	0	0	75	3.4	
30-34	0	0	78	3.6	05-06	0	0	16	.7	05-06	0	0	47	2.2	
00-29	0	0	221	10.1	00-04	0	0	22	1	00-04	0	0	158	7.2	
N	13		2181		N	13		2181		N	13		2181		
Mean	69.9		55.8		Mean	22.7		19.8		Mean	24.3		19.1		
StdDev	11.3		17.5		StdDev	3.6		4.5		StdDev	4.4		7.6		

Years in	U.S.A.		Korean School	
	Yours	National	Yours	National
1-3	1	103	3	571
Mean	76	70	76.7	55.9
StdDev	0	9.2	2.1	18.5
4-6	4	117	4	655
Mean	76	66.2	56	53.1
StdDev	5.5	13.2	10.4	17.4
7-10	1	359	2	614
Mean	76	57.4	77	58
StdDev	0	17.3	2.8	15.9
11-16	7	1414	0	57
Mean	64.7	53.9	0	59.8
StdDev	13.2	17.4	0	15.8

Years	Grade		Grade	
	Yours	National	Yours	National
7	N	1	437	
Mean	76	53.8		
StdDev	0	17		
8	N	5	433	
Mean	62.8	58.2		
StdDev	12.1	16.3		
9	N	0	344	
Mean	0	61.6		
StdDev	0	14.6		
10	N	5	230	
Mean	77.4	61.9		
StdDev	2.1	17.8		
11	N	0	81	
Mean	0	59.9		
StdDev	0	18.9		
12	N	0	33	
Mean	0	56.1		
StdDev	0	20.1		

Years	Male		Female	
	Yours	National	Yours	National
6	976			
Mean	62.5	51.4	7	1171
StdDev	12.9	18.6	4.1	15.6

Item Difficulties and Answer Keys						
Years	Item Key		Yours National		Item Key	
	Yours	National	Yours	National	Yours	National
01	B	100	98	21	D	84.6
02	D	100	97.6	22	D	82.4
03	B	76.9	50	23	B	84.6
04	C	100	97.9	24	A	60.8
05	A	69.2	51.7	25	C	75.5
06	C	61.5	65.5	26	B	100
07	C	100	92.9	27	C	100
08	B	84.6	87	28	B	100
09	A	100	96.2	29	D	84.6
10	B	92.3	72.2	30	D	84.6
11	D	61.5	66.1	31	B	84.6
12	B	100	96.2	32	D	84.6
13	C	92.3	95.2	33	D	84.6
14	A	92.3	77.6	34	D	76.9
15	D	92.3	65.3	35	B	100
16	B	84.6	63	36	C	100
17	A	100	98.6	37	C	100
18	C	100	94.8	38	B	100
19	C	76.9	71.4	39	B	92.3
20	A	100	92.8	40	A	100

84.6	82.4	61	A	92.3	67.1
41	C	42	C	92.3	81.8
42	C	84.6	60.8	63	C
43	C	100	84.2	64	A
44	D	100	79.9	65	A
45	A	76.9	58.4	66	D
46	B	100	82.6	67	D
47	C	100	86.6	68	C
48	A	100	87.8	69	B
49	A	100	77.3	70	D
50	A	84.6	60	71	A
51	D	84.6	77.2	72	B
52	A	100	93.4	73	C
53	C	100	83.8	74	B
54	C	92.3	83.8	75	A
55	A	92.3	67.4	76	C
56	B	92.3	65.8	77	A
57	D	69.2	80.9	78	D
58	C	84.6	83.8	79	C
59	D	100	84.9	80	B
60	A	100	51.9		

표 6. SAT 한국어 모의고사 - 개인 성적표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SAT II: KOREAN PILOT TEST - 2013

Region: 13 Mideast

School: 030 The Emmanuel KS of Philadelphia

Test Date: 3/16-3/17, 2013

Name: SHIN LAUREN

Sex: F Grade: 07 Birthday: 08/5/00

Years in U.S.A.: 10

Years in Korean school: 7

Student			
	Full Score	Your Score	National Percentile Ranks
Total:	80	61	62.4
Listening:	27	19	28.9
Usage:	26	22	76.8
Reading:	27	20	65.2
Response Statistics			
	Right Answer	Wrong Answer	Omitted Answer
Total:	66	14	0
Listening:	21	6	0
Usage:	23	3	0
Reading:	22	5	0

Total Score			Listening Comprehension			Usage			Reading Comprehension		
Score Range	N	% Rank	Score Range	N	% Rank	Score Range	N	% Rank	Score Range	N	% Rank
80	8	100	27	146	100	26	147	100	27	62	100
79	27	99.6	26	268	93.5	25	166	93.5	26	155	97.3
78	1	98.5	25	6	81.7	24	6	86.2	25	7	90.4
77	40	98.4	24	330	81.4	23	135	85.9	24	144	90.1
76	60	96.6	23	296	66.9	22	144	79.9	23	160	83.7
70-75	271	94	21-22	284	53.8	21	185	73.6	21-22	197	76.7
65-69	285	82	19-20	363	41.2	19-20	168	65.4	19-20	270	68
60-64	248	69.4	17-18	152	25.2	17-18	290	58	17-18	152	56
55-59	253	58.5	15-16	174	18.5	15-16	144	45.2	15-16	260	49.3
50-54	203	47.3	13-14	52	10.8	13-14	229	38.8	13-14	141	37.8
45-49	197	38.3	11-12	87	8.5	11-12	92	28.7	11-12	198	31.6
40-44	167	29.6	09-10	30	4.6	09-10	179	24.6	09-10	115	22.8
35-39	129	22.2	07-08	32	3.3	07-08	76	16.7	07-08	139	17.8
30-34	95	16.5	05-06	12	1.9	05-06	108	13.3	05-06	70	11.6
00-29	279	12.3	00-04	31	1.4	00-04	194	8.6	00-04	193	8.5
N	2263		N	2263		N	2263		N	2263	
Mean	52.7		Mean	20.7		Mean	15.9		Mean	16.1	
StdDev	17.6		StdDev	5.1		StdDev	7.2		StdDev	7.2	

13 030 3 NAKS 2013 - SAT II

가) 개인별 평가분석 결과 해설

개인별 통계에는 전체성적과 분야별성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맞는 답의 수효 (Right answer), 틀린 답의 수효 (Wrong answer) 생략한 답의 수효 (Omitted answer)도 각 분야별로 수록하였습니다. 틀린 답에 대하여는 미국대학평의회 (College Board)의 감점(Lost score)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틀린 답의 수효의 1/3을 감점하였음) 생략한 답에 대하여는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총점(Full score)은 80점입니다. 분야별 총점은 청취(Listening comprehension)는 27점, 어법(Usage)은 26점, 독해(Reading comprehension)는 27점입니다. 전국 백분율 순위 점수 (National percentile ranks)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국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과 전국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청취(Listening comprehension), 어법(Usage) 및 독해(Reading comprehension)의 분야별 성적과 전체성적(Total score)이 성적분포별(Score Range)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와 문항별 정답(Key)은 학교별 평가분석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개인별 분석표 용어해설

1. Full Score - 문항 총점
2. Your Score - 학생 점수
3. Total - 전체 성적
4. Listening - 청취 성적
5. Usage - 어법 성적
6. Reading - 독해 성적

7. National Percentile Score
8. Right Answer
9. Wrong Answer
10. Omitted Answer
11. Lost Score

- 전국 백분율 순위점수
- 맞는 답수
- 틀린 답수
- 생략한 답수
- 감점한 점수

다) 전국평가 분석표 용어해설

1. Total score
2. Listening Comprehension
3. Usage
4. Reading Comprehension

- 청취, 어법, 독해를 종합한 성적
- 청취 성적
- 어법 성적
- 독해 성적

5. N - 응시자 수
6. Mean - 평균점수
7. StdDev - 표준편차

NAKS - SAT II Korean : National Pilot Test 2013
01 Southwest

schname: 011 GDKS (Carrollton)

re	gn sch	um num	lastname	firstname	S GR	yr yr_	u ksc	tot lis	usa din	rea	pr to pr_ls	pr us ag	pr re ad	rig rig											
----	--------	--------	----------	-----------	------	--------	-------	---------	---------	-----	-------------	----------	----------	---	--	--	--	--	--	--	--	--	--	--	--

Number of cases read:	30	Number of cases listed:	30
-----------------------	----	-------------------------	----

표 7. SAT 한국어 모의고사 - 학생성적 집계표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분석평가 및 학습활용(2) (2017년 제21회 ~ 2018년 제22회)

김민정

Ph.D., SAT Subject Test Korean Evaluation Committee

2017년~2018년 분석한 결과입니다.

표 1. 지역별 SAT Subject Test 모의고사 연도별 응시자 수 및 학교 수

협의회	2014 학교수	2014 학생수	2015 학교수	2015 학생수	2016 학교수	2016 학생수	2017 학교수	2017 학생수	2018 학교수	2018 학생수
남서부	11	148	8	101	13	148	11	136	13	160
뉴잉글랜드	3	116	5	129	4	117	7	134	6	128
동남부	11	141	11	140	14	136	16	184	15	165
동북부	21	262	21	310	24	413	24	416	20	443
미시간	3	85	2	29	5	77	5	130	4	85
북가주	12	285	17	206	16	216	16	243	25	360
서북미	10	121	16	164	12	149	12	203	14	159
워싱턴	7	92	15	153	10	146	16	249	12	214
중서부	6	47	9	72	9	67	9	70	10	57
콜로라도	6	43	5	40	5	41	5	45	5	50
플로리다	5	34	4	30	2	26	3	34	2	24
하와이	7	33	7	36	4	19	5	29	4	21
동중부	7	52	7	57	10	83	10	92	9	72
중남부	2	12	4	39	5	45	5	34	5	39
남가주	36	575	34	494	35	513	45	631	45	673
합계	147	2046	165	2000	168	2196	189	2630	189	2650

표 2. 연도별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및 College Board 정규고사 통계

2017	2018
학생수 2630 평균 56.3384 7~12 학년: 학생수 1823 평균 59.2106 9~11 학년: 학생수 752 평균 61.7832	학생수: 2650, 평균 64.3294 7~12 학년: 학생수 1743 평균 66.1549 9~11 학년: 학생수 700 평균 67.8171

1. 평가로 알 수 있었던 점 중에 여러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9학년 이후 12학년까지에서 학년별 점수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9학년 이전에 한국어 이해능력이 거의 완성되며, 9학년 이후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SAT 한국어 응시인원의 절대다수가 Native Speakers로서 767점의 고득점을 받았으며, 순수 외국어로서 SAT에 응시하는 학생수는 미미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는 한국태생 혹은 한국인 2세가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자국어 교육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눈높이에 걸맞게,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뚜렷하게 제시할 협회차원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3. 다만,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앞으로 비한국계에도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로 보입니다
4. SAT 모의고사 점수와 Collegeboard SAT 실제 점수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점도 방정웅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몇 년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은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이 실제 SAT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를 트랙하는 방법입니다. 그 데이터가 몇 년 동안 모아지면, 문제의 신뢰도와 동시에 모의고사 점수 분석/실제 점수 예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연구

.....

최영환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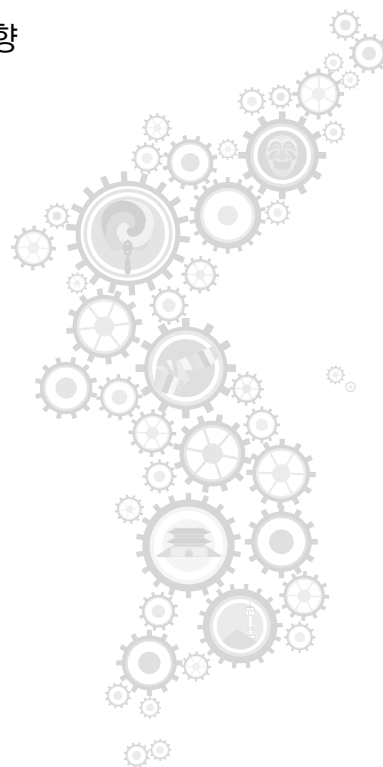
이정희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문영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의 방향

주현영 지역연계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

박기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21세기 세종대왕의 꿈 품기

김수희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오인 폭격과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설정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1. 서론

그동안 한국어 교육학은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풍부한 기초 지식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을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학의 위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좌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문화가 무엇인지,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는 어떤 관계에 서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학에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논점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2.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경계 인식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를 적절하게 구별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역시 한국 문화의 산물로 매우 중요한 실체이며, 한국어에 담긴 문화적 속성은 한국 문화의 속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화를 토대로 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의 내용 인식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식, 국가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 그리고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2010년 국립국어원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보고서인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인데, 한국어 능력의 등급별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각 등급별 문화 교육의 내용 중에는 한국어 문화적 속성은 찾

기 어렵고, 일반적인 생활 문화나 대중문화, 제도, 예술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문화 영역을 종합한 설명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문화 영역은 한국 사회 적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보충이 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초급에서는 문화 지식과 문화실행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중급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문화관점의 비중을 높여 설계한다. (김중섭 외, 2010; 185)

이런 설명에 따르면, 문화 영역에서 한국어 문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적 사회생활이나 한국의 예술이나 제도 등의 문화적 산물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식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중 ‘다’항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여기서 목표로 제시하는 문화는 한국어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사회 문화 현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화 내용 체계 역시 문화 의식과 태도로 규정하고, ‘문화 인식·이해·수용’과 ‘긍정적 자아정체성·공동체 의식’으로 나누어 가르치도록 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문화를 언어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일반 문화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5대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한국 문화는 한국어 교육 실습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과정에서 한국 문화 과목으로 예시한 강좌명 중 ‘한국 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 현장실습, 한국 현대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등은 한국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한국어 교육에 긴밀한 관련을 갖는 요소인지,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관련을 갖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의 현대 문학, 한국문학 개론, 한국문학의 이해’ 등은, ‘문학’이라는 면이 늘 그러하듯이, 한국어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어 문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에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문화’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교육의 내용은 ‘역사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조건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 ‘필요’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으나,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다 보면, 해석의 다양성을 하나의 틀 안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한국어 교재이다. 실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속의 한국 문화 내용은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문화 교육의 내용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 안에는 한국어 문화뿐 아니라,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이면서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로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 세종 한국어이다. 세종 한국어 1~8권의 한국어 학습 단원에서도 한국어 문화를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의사소통 일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문화적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한국 문화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세종 한국어의 한국 문화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 자료를 보면 1~8권의 교재 중 문화 내용은 36개이며, 한국어 문화는 5권의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한국인의 부탁과 거절 방식', 6권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단 3개뿐이다.

<표 1> 세종 한국어의 한국 문화 교육 내용

권	한국 문화 내용	권	한국 문화 내용
1권	한국인의 인사법 한국의 화폐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주말 활동	2권	한국 음식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의 여행지 한국 사람들의 모임
3권	한국인의 축하하는 날 한국인의 휴가 한국인의 공공 예절 한국의 날씨와 음식	4권	한국인의 주거생활 한국의 결혼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지리
5권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직업 한국의 선물 문화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한국인의 부탁과 거절 방식 소원을 비는 한국인	6권	한국인의 여행 문화 한국의 대표 도시 세계 속의 한국 기업 한국의 AS 서비스 한국어와 한국 문화
7권	한국의 민간요법 한국인의 가족 문화 한국의 결혼 풍습 한국의 면접 한국을 소개하는 유용한 사이트	8권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기업 문화 한국의 옛날이야기 속 인물들 한국의 입학과 졸업

사실 이렇게 적은 비중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어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어 문화를 문화적 속성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문화적 산물의 한 예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 한국어 1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종 한국어 1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

문화 주제	세부 내용	설명 내용(일부)
한국인의 인사법	* 처음 만나는 상황 인사 *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인사 * 한국의 절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한국의 설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한국의 화폐	*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	물건을 살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표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 한국의 사계절 * 한국의 계절 레포츠 * 한국의 계절 축제 * 한국의 계절별 활동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산에서 스키를 탑니다. 봄에는 꽃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갑니다.
한국인의 주말 활동	* 한국인의 주말 활동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등산이나 운동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 한국어 1은 문화 교육 내용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어 교육의 내용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이 내용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중 ‘영역별 과목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이라는 조건이 중요한데, 위 네 가지 문화 교육 내용 중 어떤 점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 2〉의 ‘한국의 사계절’의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물놀이를 하고 스키를 타거나 단풍놀이를 간다는 것이나, ‘한국인의 주말 활동’에 언급한 내용 등은 한국어 문화는 아니며, 한국의 문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한국어 교육에서 다룬다면 어떤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다. ‘한국어 문화’라면, ‘한국인의 인사’에서는 ‘절’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과 몸짓’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여기 ‘절’,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인사’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그대로 둔다고 해도, 한국 문화로서의 ‘인사’를 다룰 때는 인사할 때의 언어적 표현과 그 안에 담긴 사용 방식 등을 한국어 문화로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특히 절을 할 때는 사용하는 인사의 내용을 다루되,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기보다는 그런 인사법이 실제 한국어 사용에서 다른 영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우법 체계 및 다른 의사소통 방식과 연계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화폐’는 화폐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의 수를 세는 단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하나, 둘, 셋’과 같은 수 세기는 화폐 단위에는 사용하지 않고, ‘일, 이, 삼’과 같은 수 세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 즉 ‘화폐 단위와 수를 세는 방식에 담긴 한국적 표현’, ‘물건을 사고팔 때의 흥정’ 등에 나타나는 ‘한국의 언어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 방식은 문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 중 언어 문화적 속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내적 체계 및 사용 원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얻은 내용을 교육적 위계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국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서 언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재배열하는 것이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의 개념 이해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혼란이 발생하는 까닭은 문화의 개념역이 너무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문화의 개념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 개념의 스펙트럼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문화 개념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0)에서 제시한 문화의 개념을 보기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문화의 개념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는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문화에 관한 전문적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문화는 ‘상징체계’ 또는 ‘생활 양식’이라고 본다. 이것은 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 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양상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생활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지위,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한 언어 규범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 규범에 따라 말을 할 때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따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사회에서 의미 질서, 혹은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 자체가 문화임을 알 수 있다. 문화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95)(밑줄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 또는 ‘양식’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문화가 가진 재생산의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문화가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 유지, 발전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와 과정이 일정한 양식으로 존재하여 세대 간 전승을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물로서의 ‘산물’은 양식이 반영된 결과는 보여줄 수는 있어도 재생산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실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학습한 언어 자체를 그대로 반복하여 복사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점은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유사한 언어 사용 방식을 언어 문화로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문화는 한국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한국어로 사유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운이나 형태에서 화용까지 모든 언어 체계에 작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넘나드는 핵심 기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화를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어휘, 문법, 문학 작품 등을 일컫는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문의 문화면은 문학, 예술, 종교, 학문, 교육, 패션, 방송, 영화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이는 신문의 다른 면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과 구분된다. 문화를 이렇게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는 방식에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분리해 사고하는 관념이 깔려 있다. 여기에는 흔히 배타성, 순수성, 전문성과 같은 개념이 개입한다. 문화는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것이며 고유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이런 식의 문화 개념에서 쉽게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문화를 인식하는 것은 ‘교양으로서 문화’ 개념을 대중문화에까지 확장하면서도 유구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95)(밑줄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엄밀히 말해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즉 문화를 일정한 생활 양식, 사유 방식, 표현 양식이라고 할 때, 이런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문화의 산물

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자료는 그 자체를 한국어 문화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한국어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문화 개념을 하나의 선 위에 배열하면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 있다.

〈표 3〉 문화 개념역과 특성

이해 요소		문화 개념역			
개념		(가)사유방식 (나)	상징체계 생활 양식	(다)산물	
범주	공통적 사고와인식	종교	↓	↔ ↔	예배, 장례
		예술	↕	↔ ↔	한국화, 소설
		사회	↕	↔ ↔	가족, 경제
		제도	↑	↔ ↔	교육, 법률
특성	가시성	내재적		외현적	
	추상성	추상적		구체적	
	접근법	통찰적		분석적	

〈표 3〉에서 보면, 문화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상징체계’, ‘생활 양식’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산물’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를 관점(prospect), 시행(practice), 산물(products)로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구분도 있으나, 대부분 위의 ‘사유방식’에서 ‘산물’에 이르는 스펙트럼의 중간 지점에 분포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연구는 구체적 산물을 중심으로 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한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런 문화의 산물에 집중하는 까닭은 자료의 외현성, 구체성으로 인해 다루기가 용이하고, 분석이라는 보편적인 연구 방법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예배나 장례 행위와 같은 것은 구체적 행위로서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라는 범주 안에 있는 행위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추상화를 통하여 종교적 사유 방식이나 종교 양식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회화나 한국 소설도 내적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의 예술 문화라는 점에서 공통 특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예술적 사유 방식과 구체적 소설의 특성은 상호 연결된다.

그러나 문화 연구는 구체적 산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는 내재적인 ‘상징체계’나 ‘생활 양식’을 드러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시적 영역의 산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산물에 대한 연구는 분석적으로 진행되며, 이 결과는 곧바로 공통 요소와 특성에 의해 일정한 체계나 양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양식은 다른 산물을 이해하는 틀로 작

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산물을 생산하는 원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 표에서 구체적 실체에 해당하는 예배와 한국화, 교육 제도 등의 문화적 연결이 쉽지는 않으나, 각각의 문화적 산물들이 사유 방식이나 생활 양식으로 추상화될 경우 상호 비교와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범주들이 서로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섭이 더 큰 단위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 양극단에 서 있는 개념은 직선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회귀적이다. 문화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승하고 발전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회귀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2) 한국어 문화 교육 안에서 한국어 자료의 위상

문화의 개념을 통해 한국어 문화를 재정립할 경우, 한국어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자료는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문화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자료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어 교육
- ②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 ③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①의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표 3>의 (다)‘산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앞서 살펴본 세종한국어의 ‘한국인이 부탁과 거절’,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등이 그러한 예이며, 한국어의 어휘, 한국어의 관용어와 속담, 한국어의 욕설, 한국의 시, 한국의 소설 등의 구조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점차 ②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가 늘고 있다.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은 <표 3>의 (다)의 문화 산물을 기반으로 하여 (나)의 상징체계나 생활 양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정우(2009: 7)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 필요한 기본적 관점은 문학의 예술성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이른바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윤여탁, 2003:511-2)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사회문화 이해 확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예술문화로 문학 작품을 대할 때에도 예술성 그 자체에 대한 전문적 내용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김대행, 2003:175)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자료의 일부로서 문학 작품을 다룰 때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사회문화 이해 확대’라는 효과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안에서는 ②와 같은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에서 오지혜(2013), 윤여탁(2013), 김대행(2012) 등과 같이 ‘한국문학 작품이나 장르

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틀로 구성된 논문 제목이 아주 일반적이라는 현상은 이를 대변해준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③과 같이 '한국어 자료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표 3>의 (나)와 (가)에 걸치는 것으로, (가)에서는 범주가 나누어지지 않고, (나)에 제시한 범주들 사이에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상징체계나 생활 양식이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는데, 바로 ③이 이러한 범주 사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안에서 한국 문화 교육은 한국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 문화 교육이 적지 않다. 세종 한국어 교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문화 교육 내용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 지식일 수는 있으나, 한국어 사용에 필요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③과 같은 접근을 통해 한국어 문화와 그 문화의 심층에 내재하는 한국 문화 즉 한국인의 사유 방식에 닿을 수 있다면,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제고하는 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①과 ②, ③ 사이에는 회귀적 관계가 성립한다. 연구자로서는 ①과 같이 분석적 접근 방법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산물로서의 한국어 사용을 다루게 된다. 이어서 이를 통해 그 안에 내재하는 한국어 사용 방식, 한국어의 문화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②에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거쳐서 다시 더 큰 단위의 통찰에 이르면, ③과 같이 한국인의 사유 방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다시 ③에서 ②와 ①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한국어다운 표현과 이해에 이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 한국어 5권의 문화 교육 내용으로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어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어 사용의 조건을 가르치고 실제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위의 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①에서 ③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표 4〉 세종 한국어 5권의 대우법 교육 내용

대우 체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조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이가 같은 사람에게 친한 친구 사이

〈표 4〉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 등은 한국어 사용의 체계로 보아 '상징체계'에 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께'는 다른 요소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층위가 맞지 않고 ①에 치우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의 조건이 한국인의 대우법 사용 체계를 잘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같아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친하게 되면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건

은 외적으로 드러난 언어 사용 방식만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게 되면, 대우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우법을 ②에 접근시켜 다룬다면, 한국인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을 때 존댓말을 쓰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지 않을 때 반말을 쓴다’는 더 추상화된 원리가 필요해진다. 우리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태도가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높여주는 조건을 ‘나이, 신분, 공식성, 초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예를 통한 적용력을 확대할 수 있고, 낮추는 조건으로 ‘나이, 신분, 친밀도’ 등도 있으므로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을 때’라는 원리와 그것의 조건인 ‘나이, 신분, 친밀도, 공식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③과 같이 한국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즉, ①과 ②를 통해 기본 원리를 이해하였다면, 한국인의 문화에서 ‘자리에 앉거나 일어날 때 누가 먼저 앉거나 일어나는지’, ‘식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지’, ‘길을 걸을 때도 누가 앞서가야 하는지’ 등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식사 문화를 가르치는 것과 대우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서로 분리할 수 있으나, 이 둘 안에 담긴 한국인의 사유 방식, 생활 양식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르친다면 개별 문화로서의 구체적 결과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의 ①, ②, ③은 한국어 교육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된 연속체처럼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교육은 ① → ② → ③의 순서로 작동하도록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한국어교육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인의 언어 사용 방식을 배우기 위한 자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한국어 자료를 통해 한국어 문화를 경험하며, 최종적으로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수용하게 하는, 교육적 연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어 자료로서의 문학 작품이나 기타 언어 자료는 문화적 산물로서 제한되지 않고, 한국어 문화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인의 언어 사용 양식, 한국인의 언어 사유 방식, 한국어의 사용 체계를 보여주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

사실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내용으로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이라는 세부 항목을 제시하면서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것은 한국 문화 교육이 문화 교육이라는 독자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에 초점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칫 한국 문화 교육이 한국어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어 초점을 잃게 될 우려를 반영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에게 한국 문화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연구 초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문화 교육이고 이를 토대로 한 한국 문화 교육이어야 한다.

4.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으나, 그중에서도 ‘다문화 언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성기철(2008:12)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면, 언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답을 제공한다. 언어 교육에서 출발하는 다문화 교육은 그 중심에 언어 교육을 두고 있다. 많은 다문화상의 문제가 의사소통의 문제, 곧 언어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다문화 사회 공통의 보편적 현상으로, 그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하다. 언어교육이다.(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러한 주장은 한국어 교육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어의 사용 방식을 넘어 한국이 문화로까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언어는 문화 간 장벽을 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면서 가장 고등하고 정교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접근은 문화 개념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문화적 논의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자료를 ‘산물’로서의 문화로 보고 이를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양식’으로서의 문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 한국 문화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출발점을 갖되, 한국어를 통한 문화적 소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추세에 따른 한국어 교육학의 현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학의 과거에 대한 반성의 고찰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자료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이면서 한국어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어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해야 하며, 한국 문화의 전반에 내재하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이해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출발점을 두고 분석적 교육 단계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자료를 사용하고, 한국어 문화의 통합적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 문화 여러 요소 및 수준이 복합된 한국어 자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한국어 사용 방식 또는 한국어 문화에 담긴 내적 체계와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문화적 요소를 찾아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한국어 교육이 한국 문화에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육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한국어교육과정.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13ㄱ), 세종 한국어1권~8권, 세종학당재단.
- 국립국어원(2013ㄴ),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교사용 지도서.
- 국립국어원(2013ㄷ),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교사용 지도서.
- 김대행(1995), 시조형식의 의미, 시조학 논총 11집, 한국시조학회, pp.15~21.
-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 문화,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7~180.
-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62.
- 김대행(2012),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학제적 접근 가능성의 탐구,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3~25.
- 김영순(2013), 한국 문화교육의 교과내용학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13~119.
- 김재욱(2012), 세종학당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나라사랑 121집, 외솔회, pp.76~97.
- 김정우(2009),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제6권 제2호,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pp.1~31.
- 김중섭(2004),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75~92.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해영(2015),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수의 연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pp.43-476.
- 민현식(2006),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pp.137~180.
- 박갑수(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 학회, pp.1~26.

윤여탁(2003),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31~152.

윤여탁(2013),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49~176.

최영환(2006), 상생언어 연구의 과제,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pp.249~285.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창간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63~8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길라잡이.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이정희

경희대학교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학을 기반으로 하여 재미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모형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문화 교육은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¹⁾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 2, 3세의 경우 정체성을 깨닫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계승어 및 계승 문화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Cho, G., 2000).²⁾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어야 하며 이는 일방향적인 한국 문화의 전달이 아닌 해당 아동 거주국의 문화와 계승 문화인 한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의 함양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³⁾.

본고에서는 재미동포 아동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학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을 미국으로 한정된 것은 미국 내의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이는 미국에서 한글학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

*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26-2호에 게재되었던 논문임.

- 1)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학령 전기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다. 만 3세-만 7세까지는 유아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Vygotsky(1962)에 의하면 유아원과 유치원 시기가 끝날 때쯤이면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초기 복합체를 다듬어 가는데 이러한 복합체의 형성은 이후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비교 문화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그동안 한국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정작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글학교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 문화 교육은 언어에 기반하여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 3)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의사소통능력에 해당하는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의 바탕이 되어 모든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태도, 지식, 해석 및 말하기 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식 등 다원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Byram, 1997:11).

라 재외 동포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⁴⁾

재미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이 중요하며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양 언어와 문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큰 이점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정희, 2013:406-412).

본고에서 한국학을 기반으로 한글학교 문화 교육의 내용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최근 미국 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들의 구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후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 문화를 전승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한글학교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1.5세대 부모들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글학교의 유아, 유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계승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장이자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글학교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 비해 문화 교육에 할당된 교육 시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미동포 아동들에게는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제외하고는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한국 문화 학습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언어 수업 내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과 문화 활동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⁵⁾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계승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한·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외동포 대상 연구는 국가 기관의 한국어 보급·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부모 인식과 관련한 연구, 교육과정 개발 연구,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재외동포 관련 선행 연구 중 본고

4)

지역별	한글학교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북미	962(50.1%)	9,071(59.1%)	51,274(48.19%)
계(116개국)	1,918개교	15,333명	106,397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2014. 2.)

- 5)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에서의 표준을 주와 카운티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만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의 초기학습기준(early learning standards)에 사회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 영역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 인종, 문화, 언어, 가계도와 등과 같은 사람들 사이의 유사점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http://www.fairfaxcounty.gov/ofc/docs/elguidelines_final.pdf).

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미동포 아동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여 연구물들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재미교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과 정체성 지각 양상의 연관성을 살펴본 조혜영(2001), 안한나(2008)은 한국어 학습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문화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교육은 곧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부모 인식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화자(2005), 정아현(2010)이 있는데 두 연구 모두 미국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아현(2010)에서는 재미동포 아동의 한국인 어머니들이 한국 유아원에서 미국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재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미국 문화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재미 한글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태진(2011)이 있다. 또한 재미동포 청소년 대상 요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문화 중심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하연주(2007)에서는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고 문화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재미동포 아동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이정희(2013a, 2014)에서는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사용하여 만 4세와 5세 아동의 수용과 표현 어휘 발달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의 언어 발달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정희(2014)에서는 아동의 어휘 능력 발달을 종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재미동포 전반의 교육 방법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피고 있는 손호민(1999)과 재미동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홍애란(2006)이 있으며 온라인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준희(2005)도 있다. 이정희(2013b)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한글학교 교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이경란(2006)에서는 재미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뿌리, 예절, 의례, 음식의 네 가지 주제 아래 제시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는 김명희(2014)에서는 아동 교육에 필요한 한국 문화 어휘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방안 제시에서 문화의 내용을 도구적이고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⁶⁾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

6) 안수정(2015)과 박혜경(2015)은 각각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고의 대상인 재미동포 아동이 주 대상이 아니며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을 다루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육 방안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국학 기반의 문화 교육 접근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⁷⁾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미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으로서 한국학 기반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그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1) Byram(1997)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정의하기 전에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Byram(1997)은 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Geertz의 정의에 나타난 상징과 의미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개념을 선택한다. Geertz(1975:89)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란 역사적으로 계승되며 상징 속에서 구체화된 의미의 유형이다. 즉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발전시키고 영속시키며, 또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계승된 체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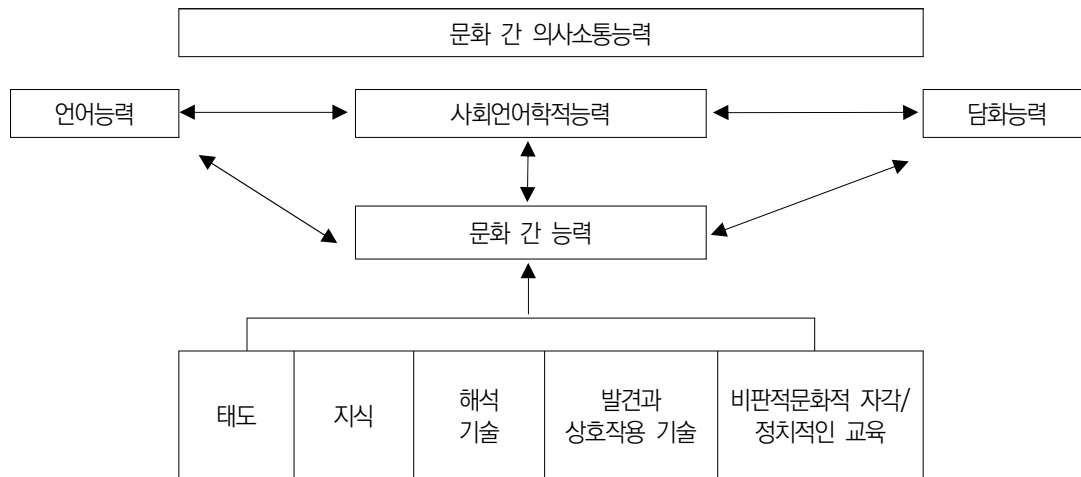
Byram이 문화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한 이유는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yram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자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과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Byram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 언어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문화 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 간 능력을 태도, 지식, 해석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적 자각/정치적인 교육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⁸⁾. 그가 정의하고 있는 ‘태도’는 타문화와 학습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 호기심과 개방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은 두 문화의 사회적 집단과 산물, 관습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일반적인 사회적·개인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지식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해석 및 말하기 기술’은 외국의 문서나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의 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은 한쪽 문화에서 중요한 현상을 발

7)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연구의 경우 전래 동화, 전래 동요, 국악 등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일방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8)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의 영역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예시는 Derman-Sparks, L.&Edwards, Julie Olsen(2010)에 나타나 있다. 미국 Midwest 대학 부속 아동발달센터의 한 교사는 인종적 편견을 다루기 위해 교실에 걸린 달력을 활용하였다. 그 달력에 등장하는 아동은 온통 백인뿐이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아동들은 달력에 여러 인종의 어린이가 고루 나오지 않는 점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고, 달력을 만든 회사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적어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자 교사는 아동들이 쓴 편지를 인용하여 탄원서를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아동들은 이 탄원서로 수많은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냈고 마침내 달력 회사는 이듬해 모든 인종의 어린이가 고루 나오는 달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견하고 지식, 태도,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문화 인식’은 한쪽 문화와 다른 쪽 문화의 산물, 관습, 관점을 준거를 갖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림 1]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모형(Byram, 1997: 34, 73참조)

이러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 다섯 가지는 교육 대상에 따라 다루어지는 내용과 비중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미동포 아동의 경우 유아반, 유치반,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 지식, 발견과 상호작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차이를 지각하고 그 차이에 대해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태도’의 영역과 다른 문화의 문화적 산물, 양식, 가치 등에 대한 ‘지식’의 영역 그리고 문화와 문화적 실천에 관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식, 태도와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인 ‘발견과 상호작용’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기초적인 문식성(literacy)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해석 기술’과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산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인 ‘비판적 문화 자각’의 내용 역시 교실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대상의 특성상 제한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주창한 Vygotsky가 명명한 ‘발달적 성취’는 각 연령마다 특수하게 적용되는 ‘발달의 사회적 상황’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Vygotsky(1984)에서 발달적 성취는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나이에서 성숙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역설하고 있다(Bodrova & Leong, 1996 재인용).

Leont'ev(1977; 1978)는 주요 활동(leading activity)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발달적 성취로 이끌어

주는 유아와 사회 환경 간의 상호 작용 형태를 구체화하려 하였다. 그가 제시한 주요 활동은 각 발달 단계마다 다르며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Leont'ev(1977; 1978)와 Elkonin(1971; 1977)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요 활동들을 제안했다(Bodrova & Leong, 1996 재인용).

〈표 1〉 연령에 따른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발달적 성취
영아기	정서적 의사소통	애착, 사물의 조작, 단순한 감각 운동 활동
걸음마기	사물의 조작	감각 운동적 사고, 자아 개념의 출현
유아기	놀이	상상력, 상징적 기능, 감정과 사고의 통합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활동	이론적 추론의 시작, 고등 정신 기능의 출현,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유아기의 발달적 성취로는 상상, 상징적 기능, 사고와 감정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상상의 상황을 창조하기도 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상상은 사회적·지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글학교 유아, 유치반 및 저학년 교실은 아동이 경험하는 첫 사회 공간이자 놀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언어와 문화를 능숙하게 이해하는 화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이 언어 습득을 위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종합적 놀이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실 활동의 중심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교실은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의 문화와 계승 문화인 한국 문화의 관련성(related to first language and culture)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과제 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룹 활동, 짝 활동, 전체 학급 활동 등 다른 화자와 접촉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경험은 나, 또래, 교사로 이루어진 교실 공간에서 시작되지만 가정 그리고 나아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한국학 기반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

본 연구는 재미동포 아동의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학 기반의 문화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한글 배우기와 한국어 학습 등 언어 수업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시간도 자료도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학은 '한국에 관련된 각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즉 한국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위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되지만 본고에서는 그 대상이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학의 하위 중
에서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의 민속놀이, 세시 풍속, 전래 동화, 민요, 의식주 문화
등 아동이 접할 수 있는 문화로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학의 영역을 생활 문화와 민속 문화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Vygotsky가 역설한 발
달적 성취로 이끌어 가는 주요 활동이 아동들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놀이, 노래,
이야기 등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자아형성을 위해 필요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화 항목의 내용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전달이 아닌 문화 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하
여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아동들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을 새로운 경험에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 축적하게 함으로
써 문화 교육이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강조하되, 일방적 전달에 그치지 않도
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전래동화, 역사, 지리 등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두
문화를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모형 수립에서의 국가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 모형 개발(2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내용 중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에서 다
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⁹⁾.

먼저 <표 2>에 제시된 1급의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호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절성은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이 공
동 집필자로 참여한 재미동포 아동을 위한 맞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9) 이 항목은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김진영·서유석(2008) 「춘향전과 한국 문화」, 구현정·서은아(2008) 「이민자를 위한 한국 사회 이해」, 김재욱(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래동화 다독 라이브러리」, 김진호 외(2011) 「외국인을 위
한 한국 문화」, 김해옥 외(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박경수 외(2004) 「쉽고 재미있는 한국문화 1」, 박금주 외
(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박성현(2009) 「요약하며 읽어 보는 한국」, 박한나 외(2009)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외
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 입문서」, 백봉자 외(2005) 「한국언어문화듣기집」, 서울대학교 한국학교재편찬위원회(2005) 「한국
의 역사」, 손대준(2008) 「한국을 알자」, 순천향대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1, 2」, 오홍석(2008) 「한국의 전통
마을」, 윤서석(2008) 「한국의 풍속 잔치」, 이미혜(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이윤진(2006) 「김치 한국어」,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전정례(2007) 「언어와 문화」, 전민순
(2008) 「문화 속 한국어 1, 2」, 조재운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조항록 외(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
와 문화」, 전정례(2007) 「언어와 문화」, 최운식(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최준식(2007) 「한국의 종교,
불교」, 천안편(2008) 「한국의 문화생활」, Dong-sung Kim(2008) 「Long Long Time Ago - Korean Folk Tales」를 분석한 결
과이다(국제통용표준교육모형 개발 2단계 사업 결과보고서, 2011 재인용).

〈표 2〉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의 1급 문화 항목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인사	-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 약수하기 -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름과 호칭	-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일상생활	식생활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한국 사회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식생활	-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한글 창제 원리
			이름과 호칭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한국사회	경제	경제제도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 사계절과 날씨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급의 문화 내용과는 달리 2급의 내용 중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어 제외하였다. 이는 아동의 인지 능력 발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 항목으로 주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것과, 배경지식이 없어 상호작용이 어려운 시험, 결혼, 음주, 전월세, 공공기관 등은 아동 대상 교육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다양한 대중교통 등에 대한 내용 등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한국 문화이므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적절한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배제하였다. 이에 적절한 항목을 다음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3〉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급 문화 항목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절한 항목	부적절한 항목
성취 문화	한국의 문화 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유적지(송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세계문화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절한 항목	부적절한 항목
행동 문화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 호칭의 확대 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한글과 한국어	•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일상 생활	식생활	•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 특별한 날 먹는 음식(합격-엿/이사-떡, 결혼-잔치국수) •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활동	•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한국 사회	교통	교통수단		•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체계	•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 문화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주생활	•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온돌 생활, 좌식 생활)	• 원룸, 기숙사 등 • 전월세, 하숙/자취
			식생활	• 계절음식(삼계탕, 팔방수, 냉면, 팔죽)	
			경제활동		•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 경조사(돌, 한갑 등)	•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한국 사회	교육	교육제도		•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	교통체계	•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노선 • 환승, 교통카드
		관혼상제	관례/혼례		•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 풍속	명절	•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다음 단계로 Deman-Sparks(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다문화 교육과정의 주제 범주에 따라 문화 요소를 구분하여 구성해 보았다¹⁰⁾. 먼저 이를 참고하여 다문화 주제를 민족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개인의 다양성, 집단의 다양성으로 나누고 다음의 표와 같이 그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표 4〉 다문화 주제와 하위 범주

다문화 주제	하위 범주	범주 설명
민족의 다양성	인종, 긍정적인 민족적 정체성	민족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인식하고 피부색, 머리칼 형태 등과 같은 유전적인 신체적 특징을 포함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 언어,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	다양한 문화의 독특성과 유사성, 차이점, 특별한 기념일, 관습, 언어 등을 포함
개인의 다양성	재능, 장애, 성, 다른 사람 이해	재능,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능력으로서 편견에 대응하는 것,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가치, 정형화되지 않은 성 역할과 행동 및 양성성 개념을 포함
집단의 다양성	가족, 계층, 신념, 지역, 편견, 연령, 외모	다양한 가족구조와 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연령 및 세대 간의 차이와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을 포함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내용과 함께 유아 교육 과정 개발 연구인 김영옥(2008)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치원과 친구’와 ‘나와 가족/우리 동네’ 또한 하위 주제로 포함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실시하고 있는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주제인 전통의상, 종교, 음식, 악기, 수도, 유명한 도시, 국기, 지도, 역사, 자연환경, 전통음악과 춤, 기후, 인종, 기념일, 언어 인사법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목을 아동 학습자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것과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비교 문화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문화 항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선정한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주제 항목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주제 항목

대주제	하위 주제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가족, 친족(친족 호칭), 친구와 이웃, 자기 소개하기, 유치원과 친구
국가와 역사	국가의 상징(국기, 수도, 국가), 한국과 미국의 식생활 변천
인물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한국의 기업인과 미국의 기업인, 백범 김구와 마틴 루터 킹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빨간 모자 소녀와 늑대, 개와 고양이(Why Dogs Chase Cats), 별주부전(The Trickster Tricked), 콩쥐팥쥐(신데렐라)
놀이와 노래	한국과 서양의 자장가 배우기, 한국과 미국의 사방치기, 한국과 미국의 비에 대한 전통 민요 비교하기(기후 등), 겨울맞이(동지, 헬로윈데이)
세시풍속	설날과 새해, 단오와 메모리얼데이, 추석과 추수감사절, 정월대보름과 크리스마스(소원 빌기, 달이나 산타에게 편지 쓰기/답장 쓰기)
의식주와 예절	인사법, 식생활과 예절, 의생활과 예절, 주생활과 예절(한국의 다양한 집)
종교	성인, 민간 신앙, 한국과 미국의 금기 배우기, 교회와 절과 성당,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풍경

10) Deman-Sparks는 문화의 내용의 주제와 하위 범주를 민족의 차이점과 공통점, 능력, 성 정체성,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 갈등 및 협동으로 나누었다.

5.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1) 문화 교수요목의 설정

국가 차원에서 개발된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육용 교육과정의 경우 초급 1·2·3·4, 중급 1·2·3, 고급 1·2단계의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성열 외, 2009).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로 되어 있고 각각의 비중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초급 3단계부터는 6: 3: 1.5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고 초급1, 2 단계의 경우 한국사를 제외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4: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 1회, 3-4시간 정도로 실시되는데 방학과 시험 등을 제외하면 32주 기준, 연간 총 96시간에서 128시간 사이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유아, 유치반의 경우 자모 습득이 교육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문화 수업을 1주당 1회씩(40분) 운영한다고 했을 때 1차시*16주*2학기 즉 32차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¹¹⁾

32차시의 수업을 기준으로 구성한 교수요목은 <표 6>과 같다. 교수요목은 주제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3.1.장에서 선정한 대주제 8개 항목 아래에 네 가지의 하위 주제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수요목의 운영은 본고에서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아반, 유치반,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학년별로 탄력적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시 표에서 8개의 대범주 중에 국가와 역사, 인물, 종교, 의식주 예절과 같은 주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더 많이 다루고 유아반과 유치반의 경우에는 나와 가족과 이웃, 이야기, 놀이와 노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표 6〉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교수요목

대주제	소주제	한국 계승 문화 예시	현지 문화 예시 ¹²⁾
나와 가족과 이웃	1.1. 자기 소개하기	우리 가족 소개	my family tree 만들기
	1.2. 가족	호칭(우리)	호칭(나의)
	1.3. 친족	고모와 이모	aunt
	1.4. 친구와 이웃	놀이터	play day, sleepover
국가와 역사	2.1. 국가 상징	태극기, 애국가, 서울	성조기, 국가, 워싱턴DC
	2.2. 시대별 모습	한국 식생활의 변천	미국 식생활의 변천
	2.3. 국가 이주사	단군 신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2.4. 우리 가족의 이주사	결혼으로 독립	18살 이후 독립
인물	3.1. 한국과 미국의 위인	이순신 등	토마스 제퍼슨
	3.2.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세종대왕	조지 워싱턴
	3.3.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삼성, 이건희	애플, 스티브 잡스

11) 이러한 교육과정의 적용은 현지 한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4. 위대한 지도자	김구	마틴 루터 킹
이야기	4.1. 지혜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빨간 모자 소녀와 늑대
	4.2. 동물 이야기 1	개와 고양이 이야기	Why Dogs Chase Cats
	4.3. 동물 이야기 2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4.4. 소망 이야기	콩쥐팍쥐	신데렐라
놀이와 노래	5.1.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5.2. 사방치기	한국의 사방치기	미국의 사방치기
	5.3. 비 노래	구슬비	Rain, rain go away
	5.4. 겨울 맞이	동지	할러윈 데이
세시 풍속	6.1. 설날과 새해	세배, 덕담, 떡국, 나이	새해 인사
	6.2. 단오	여름 맞이 민속	메모리얼 데이 ¹³⁾
	6.3. 추석과 추수감사절	추석	추수감사절
	6.4. 소원 빌기	해돋이, 보름달, 소원빌기	산타에게 편지 쓰기
의식주 예절	7.1. 인사법	허리 숙여 인사하기	손 인사(흔들기, 악수)
	7.2. 식생활과 예절	식사 예절	식사 예절
	7.3. 의생활과 예절	전통 혼례복	결혼식 의상
	7.4. 주생활과 예절	온돌	침대
종교	8.1. 성인	부처	예수
	8.2. 민간 신앙	도깨비	요정
	8.3. 한국과 미국의 금기	행운의 숫자 3, 불운의 숫자 4	행운의 숫자 7, 불운의 숫자 6
	8.4. 종교별 행사	절의 연등	교회의 대형 트리

2) 수업 지도안 예시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화 요목 중 대주제 ‘놀이와 노래’ 중 ‘한국과 서양의 자장가 배우기’를 선택하여 수업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자장가를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경험은 현지 문화와 계승 문화 모두에서 접한 경험이 있을 법한 동시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한글학교의 유아반 교실에서도 자주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Vygotsky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교실은 아동들의 첫 사회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

12) 지면을 빌어 현지 문화 내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신 열린문 한국학교 박희진, 황보양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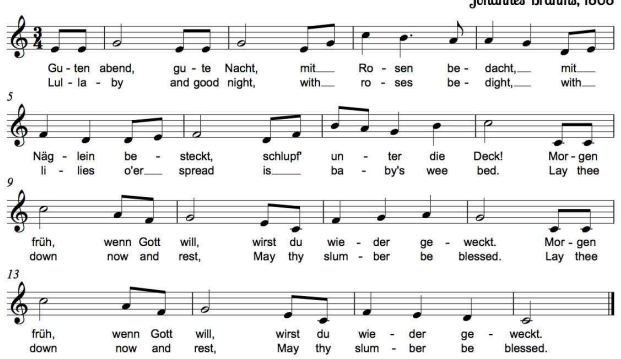
13) 미국의 공휴일로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정해져있다.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전쟁 등의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라는 계절적 특징과 겹쳐져, 최근에는 흔히 메모리얼 데이를 미국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실외 수영장이 이때 개장을 한다.

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장가’는 좋은 문화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민요는 한국인의 정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하여 형성된 노래로서 한국인의 생활의식이나 시대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요는 한국인의 의식이나 전통문화를 고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된 자장가의 수업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단원명	자장자장 우리 아가/ Lullaby(잘 자라 내 아기)			
문화 항목	한국과 서양의 자장가			
학습 목표	•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의 기능에 대해 인지한다. • 한국과 미국에서 불리는 자장가를 감상한다. • 한국과 미국에서 불리는 자장가의 노랫말을 이해한다. • 토닥이는 동작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자장가를 부를 수 있다.			
활동 자료	1. 한국과 미국에서 가족의 구성원(엄마인지 할머니인지 구분이 모호한 여성과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모호한 남성)이 좋을 것 같음이 아이를 재우는 그림/ 사진/ 동영상 2. 아기를 업거나 안고 재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인형과 포대기(인형을 눕힐 수 있는 베개와 이불/수건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음) 3. 한국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음악 mp3 file/CD 등 4. 서양 자장가 ‘Brahms’ Lullaby(잘 자라 내 아기) 음악 mp3 file/CD 등 5. 개가 멍멍 짖는 그림, 닭이 꼬꼬 우는 그림			
사전 활동	•우리 가족이 아기를 재우는 방법/ 아기를 재울 때 불러주는 자장가 조사해 오기			
단계	수업 활동	시간	활동자료	비고
도입	1.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아기를 안거나 침대/바닥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아기를 재우는 그림/사진/동영상을 보여준다. 교사: (그림/사진/동영상을 보여준 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동: 아기가 자고 있어요./아이를 재우고 있어요./자장가를 불러 주고 있어요. * 유의점: 그림/사진/동영상 자료는 특정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한다.	3분	1번 자료	
제시1	2. 아기가 잠이 들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자장가를 들었거나 불러 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시연(사전 활동으로 제시하여 미리 가정에서 조사해 오게 하기)을 보며 경험을 같이 나눈다. 그리고 교사가 인형을 안고 재우는 흉내를 내면서 한국의 민요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장가’를 불러준다. 교사: 아기는 잠을 많이 자야 해요. 그런데 아직 혼자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동: 안아 줘요./업어 줘요./조용히 해요./자장가를 불러 줘요. 교사: 누가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아기를 재우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어요? 아동: (지원하는 아동이 나와서 집에서 조사해 온 자장가나 아기를 재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5분	2번 자료	

단계	수업 활동	시간	활동자료	비고
제시1	교사: 선생님은 아기를 이렇게 재워요. (교사가 인형을 안고 토닥이면서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 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교사: 자장가를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동: 좋아요./자고 싶어요./졸려요. 선생님은 아기를 이렇게 재워요. (교사가 인형을 안고 토닥이면서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 준다.) 교사: 여러분이 아는 자장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 볼래요? 아동: 네. (서양의 자장가를 부른다.) 교사: 잘했어요. 미국에서도 엄마들이 아기들을 재울 때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연습1	3. 교사는 한국의 자장가를 다시 한 소절씩 나눠 부르면서 아동이 따라 부르게 한다. 교사: (선생님을 따라서 아동이 자장가를 한 소절씩 부르게 한다.) 선생님을 따라 하세요. 교사: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동: “자장자장 우리 아가” 교사: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동: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교사: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아동: “멍멍 개야 짖지 마라” 교사: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아동: “꼬꼬 닭아 우지 마라” 교사: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아동: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교사: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아동: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교사: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동: “우리 아기 잘도 잔다” 4. 서양의 자장가를 한 소절씩 듣고 따라 불러본다. 이때 한국어 번역 가사와 영어 가사를 모두 준비해서 교사가 아동들이 자장가를 부를 때 가사 전달을 도와준다. * 유의점: 자장가를 들을 때는 조용히 듣도록 지도한다.	5분		
제시2	5. 교사는 자장가의 가사에 등장하는 꼬꼬 닭과 멍멍 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아동이 관련 부분을 따라 부르게 한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 후, 자장가의 기능과 방법, 아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교사: 잘했어요.(개가 멍멍 짖고 있는 그림과 닭이 꼬꼬 우는 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다시 따라하게 한다.) 선생님을 따라서 부르세요.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아동: “멍멍 개야 짖지 마라” 교사: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아동: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교사: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아동: “꼬꼬 닭아 우지 마라” 교사: 왜 개하고 닭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아동이 그 이유를 생각해서 말 해 보게 한다.) 아동: 시끄러워서요./아기가 자니까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런데 아기는 약해서 작은 소리에도 많이 놀라고, 적은 자극에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장가를 불러 줄 때도 작고 편안한 목소리로 불러야 해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히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5분	3번 자료	
연습2	교사: 그럼 인형을 편안하게 앉고 같이 자장가를 불러 줍시다. 교사·아동: (각자 인형을 앉고 토닥이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5분		역할 놀이
활동	교사: 아기가 잠을 자야 하는데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텔레비전 소리, 청소기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을 들려준다.)	10분		

단계	수업 활동	시간	활동자료	비고
	아동: 텔레비전 소리요./청소기 소리요./자동차 소리요. 교사: 그럼 아기의 이름도 넣고, 아기가 못 자게 시끄럽게 하는 것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으로 자장가의 가사를 바꿔 볼까요? 자장자장 우리 (정후) 우리 (정후) 잘도 잔다 (텔레비전아 조용히 해라) 우리 (정후) 잠을 깰라 (청소기야 조용히 해라) 우리 (정후)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정후) 잘도 잔다 교사: (아동들이 자장가를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무리 및 평가	교사: 여러분 어때요? 자장가를 들으니까 좋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불러 볼래요? 어떤 자장가를 부르고 싶어요? 아동: 미국 자장가요. 한국 자장가요. 교사: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자장가를 한번 불러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봐요.			
1. 한국, 자장자장 우리 아기(고정미, 2011) ① 가사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자장자장 우리 (정후) 우리 (정후) 잘도 잔다 2. 미국, Brahms' Lullaby(http://downloadspaces.com/download/query.php?sub=0&q=brahms-lullaby-piano) ① 가사 Lullaby and good night, Lullaby and good night, With roses bedight, Thy mother's delight, With lilies o'er spread Bright angels beside Is baby's wee bed. My darling abide. Lay thee down now and rest, They will guard thee at rest, May thy slumber be blessed. Thou shalt wake on my breast. ② 악보 Brahms' Lullaby "Wiegenlied" - "Cradle Song" Johannes Brahms, 1868  Gu - ten abend, Lul - la - by, gu - te Nacht, and good night, mit Ro - sen be - dacht, mit Lul - la - by, with ro - ses be - dight, with. Näg - lein be - steckt, schlupf un - ter die Deck! Mor - gen li - lyes o'er spread is ba - by's wee bed. Lay thee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 - der ge - weckt. Mor - gen down now and rest, May thy slum - ber be blessed. Lay thee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 - der ge - weckt. down now and rest, May thy slum - ber be blessed.				
[참고 자료] 고정미(2011), 한국영어음악 활동이 만2세아에 미치는 영향-또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옥·서현·박형신·정상녀·윤경선·박미자·이나영(2011), 유아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http://downloadspaces.com/download/query.php?sub=0&q=brahms-lullaby-piano				

6. 결론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의 핵심은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함께 배우고 이를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기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학의 요소를 교육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학의 하위 중에서 ‘민속놀이, 세시 풍속, 전래 동화, 민요, 의식주 문화 등’으로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지 문화인 미국 문화와 접목되는 교육과정 개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나와 가족과 이웃, 국가와 역사, 인물, 이야기, 놀이와 노래, 세시풍속, 의식주와 예절, 종교’의 8가지 대범주로 구분하고 세부 주제 항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강조하되, 문화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교수요목을 구성하였다.

재미동포 아동의 인지적 발달 특징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한 문화 교육 교수요목과 문화 활동 모형과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재미동포 아동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나 관습을 잘 파악하게 되어 향후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고정미(2011), 한국영아음악 활동이 만2세아에 미치는 영향-또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14). 재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문화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열 외(2009).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옥·서현·박형신·정상녀·윤경선·박미자·이나영(2008), 유아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정숙(2010),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25~46쪽.
- 김준희(2005), 인터넷을 활용한 재미 동포 한국어쓰기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김정숙·강현화·김현전·이정희(2011).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국립국어원
-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 주체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2005), 재미동포의 한국어 가정교육 실태 및 지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15). 거시적 접근법 기반의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재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호민(1999). 한국어 교재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새 천년 맞이 제 10 차 국제학술회의,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25 ~ 38쪽.
- 안수정(2015).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한나(2008).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재미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4(2), 139 ~ 167쪽.
- 이경란(2006). 재북미 한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정희(2013a), 재미 동포 미취학 아동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발달 연구, <한국어교육> 24,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09 ~ 236쪽.
- 이정희(2013b), 계승어 사용자로서의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한글학교 유아반 교실 운영<이중
언어학> 52, 이중언어학회. 391 ~ 424쪽.
- 이정희(2014). 재미동포 학령전기 아동의 한국어 어휘 능력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어교육>
2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9 ~ 280쪽
- 정아현(2010).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 실태와 인식 -뉴욕·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2001), 재미한인2세의 학업성취에 대한 이해. <재외한인연구> 제11권 1호. 재외한인학회. 13
1 ~ 164쪽.
- 하연주(2007). 재미교포 청소년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 중심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애란(2006),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 읽기 텍스트 및 과제 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drova & Leong,(1996) The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 교육, 김억환·박은혜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yram,M. (1998). Cultural identities in multilingual classrooms .InJ.Cenoz & F.Genesee(Eds.),
Beyond bilingualism.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187-198.
- Cho, G. (2000). The role of heritage language in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Reflections from a language minority group. Bilingual Research Journal, 24(4), 333-48.
- Derman-Sparks, L. & Edwards, Julie Olsen (2010),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selves, 김명순·한찬희 역(2012), 『편견없는교사, 편견없는사회』, 다음세대.
- Geertz, C. (1975),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London: Hutchingson. p.89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의 방향

문영은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초기의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생존의 문제이자 실존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설계되고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 한국어에 대한 재외동포의 인식과 태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달라지고 있다. 이 주국의 언어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면서, ‘한국’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세대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체험을 통한 한글문화 교육이 재외동포 교육의 새로운 내용 범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보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키워드: 한글, 한글 교육, 한글문화, 한글문화 체험, 재외동포, 계승어, 정체성, 주체성

1. 서론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한 문해 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성인이 되어 국외로 건너간 1세대 동포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언어 환경에 대처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 계승하는 것이 후속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었다. 이는 교육은 생존의 문제이자 실존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교육이 설계되고 수행된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 한국어에 대한 재외동포의 인식과 태도는 재외동포를 둘러싼 언어적, 문화적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달라지고 있다. 국립국어원(2014)의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세대를 거듭

할수록 한국어를 모국어로써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며¹⁾,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²⁾ 가치 판단과 인식 차이가 세대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초기 세대와 달리 1.5세대 이후의 재외동포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민국의 국민이기는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의식 또한 함께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국의 언어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이후 세대의 경우, 국적(nationality)과 민족(ethnic) 사이에서 경계인으로서의 크고 작은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³⁾ 한국은 이들을 ‘재외에 있는 동포’ 즉 ‘한민족’으로 끌어안으려 하나, ‘한국’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후속세대가 많아진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결부한 한국어 교육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전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문화 체험 교육은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 1) 1세대 재외동포의 경우 모국어를 한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97.4%),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한국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79.2%). 그러나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인식이 서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 2세대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61.4%), 모국어를 영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또한 높았다(36.9%). 또한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2세대의 대다수가 영어를 꼽았으며(94.5%), 한국어를 꼽은 응답자는 소수에 그침을 확인할 수 있다(4.2%).

조사 항목	구분	한국어		영어		둘 다		기타 언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당신의 모국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2세대	178	61.4	107	36.9	4	1.4	1	0.3
	1.5세대	210	98.6	2	0.9	0	0.0	1	0.5
	1세대	516	97.4	10	1.9	1	0.2	3	0.6
	합계	904	87.5	119	11.5	5	0.5	5	0.5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2세대	12	4.2	273	94.5	4	1.4	-	-
	1.5세대	88	41.3	107	50.2	18	8.5	-	-
	1세대	416	79.2	80	15.2	29	5.5	-	-
	합계	516	50.2	460	44.8	51	5.0	-	-

- 2) 1세대의 경우 재미 동포라면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높아 5점 만점에서 평균 4.45점을 보인 반면 세대가 지날수록 점수가 떨어져 2세대의 경우 3.95점의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세대의 경우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 4.41점으로 한국어에 대한 평균 점수(4.45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2세대는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51점). 1세대의 경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평균 4.41점), 1.5세대의 경우 평균 3.43점, 2세대의 경우 평균 3.18점의 인식을 보여 세대가 지날수록 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항목	구분	인원(명)	평균(점)	표준편차	F/유의확률
재미 동포는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세대	290	3.95	.794	40.179 /.000**
	1.5세대	211	4.09	.871	
	1세대	529	4.45	.806	
	합계	1030	4.24	.847	
재미 동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세대	289	4.51	.698	4.331 /.013*
	1.5세대	213	4.31	.756	
	1세대	532	4.41	.782	
	합계	1034	4.42	.757	

- 3) 이 과정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반드시 어느 한 국가나 민족에 귀속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둘 이상의 정체성을 모두 선택하기도 한다. 선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든 그가 한국 사람인지 혹은 한민족 동포인지의 여부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방문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 음식, 문학, 글꼴, 서예 문화를 주제로 하는 한글문화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설계는 한글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험하고 향유해야 할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문화 체험 교육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한국어 교육이 아닌 언어문화로서 한글과 한글문화에 접근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과 맞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특수성과 정체성 문제, 이들에게 한국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한글문화 체험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교육 설계를 위한 접근법

1) 재외동포의 대상적 특수성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외국 국적 동포)으로 구분된다. 외교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아주지역 392만 명, 미주지역 283만 명, 구주지역 63만 명 등 총 743만 명에 이른다. 본고에서는 조태린(2010:196)의 정의에 따라 ‘재외국민의 직계 비속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재외동포’로 지칭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외동포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거주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 정책, 이주민 정책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언어적 지향, 언어 노출 혹은 사용 환경, 이주의 시기, 이주 형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인에 따라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일차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차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도 다른 측면을 지닐 수밖에 없다(조태린, 2010: 194). 더불어 국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결혼이민자 및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도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foreign language) 또는 제 2언어(second language)가 아닌 ‘계승어(heritage language)’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2)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재외동포 교육의 특성 중 하나는 교육 설계의 주체와 교육의 대상이 모두 재외동포라는 것이다. 초

4) ‘계승어’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이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나 외국어(foreign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거나 언어 접촉, 구사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소수언어(minority), 공동체 언어(communitary language), 가정 언어(home language)가 사용되기도 하나 다른 용어들에 비해 계승어가 용어 자체로서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김대희, 2012:36).

기의 재외동포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재외동포 1세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로 사용하던 언어라는 점에서 초기의 한국어 교육은 ‘모어(母語)’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더욱이 한국어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이면서 유대감 결속의 도구였으므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민족 정체성의 계승’과 ‘모국과의 연계 강화’, 나아가 ‘민족문화의 발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뿌리를 둔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주제들로 자신의 부모들이 가진 아름다운 한국적 유산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거주국 간의 융합된 훌륭한 문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목표를 설정한다.”

- 심용휴 외(201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교육과정

그러나 대부분의 재외동포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한국어는 모국어도 제 2언어도 되지 못한다(진정란, 2010:175). 또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는 그 언어를 주로 사용하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처음으로 배운 언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내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재외동포의 모어로 동일시하는 것과 재외동포 자신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자신의 모어로 동일시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조태린, 2010:203). 이민 1세대의 경우 이주국의 언어보다 한국어의 사용에 능숙한 반면 이후 세대는 많은 수가 이주국의 언어에 더 능숙하며,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⁵⁾

따라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한국어는 ‘계승어(Korean as a Heritage Language)’로서 고려되어야 한다(조태린, 2010, 2014; 강승혜, 2013; 김태진, 2014 등). 계승어는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그 언어의 화자 또는 학습자에게는 특별한 ‘가족 관련성(family relevance)’이 있는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의 언어이다.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재외 동포에게 ‘계승어’ 개념은 모어도 아니고 제 2언어도 아니며 완전한 외국어도 아닌 한국어의 특수성을 잘 포착해 주는 접근 방식이다(조태린, 2010, 2014).

3) 자기 이해로서의 한글문화 교육

언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5) 계승어는 다른 유무형의 상속 유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상속받은 개인, 즉 학습자(또는 화자)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가 다르기 마련이다. 재외동포에게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가 갖는 의미나 가치는 한국어에 대한 아동기 노출의 정도, 수동적 지식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다. 더구나 이러한 의미나 가치 부여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나 실용 가치, 거주국 내 평가 등의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재외동포가 한국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배우고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조태린, 2010:211-212).

다시 언어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도구적, 기능적 차원을 넘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이선이(2007:63)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타 문화에 대한 가치가 자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이될 때 ‘자기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외동포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감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한글문화’는 재외동포 교육 설계에 다시금 천착해볼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된다. 한글문화는 ‘한글을 통해 이루어진 유·무형의 모든 문화 현상’을 말한다.⁶⁾ 한글문화는 한글에 대한 문자 문화이면서 삶을 담고 있는 생활 문화이다. 한민족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유물로서 존재하는 실재 문화이기도 하다. 곧 한글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생활양식부터 가치관까지 한국 문화의 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경계 위에 놓인 혹은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재외동포에게 한글을 통한 문화적 만남(cultural encounter)은 문화적 감수성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 지점이 될 수 있다.

3. 한글문화 교육 사례 분석

1)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와 우리말글’

박물관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 문화 속에서 의미 주제로 구분되는 특수한 지점들을 모아 보존하고 연구를 통해 전시, 교육하는 곳이다. 그간의 박물관은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등과 달리 엄숙하고 진지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은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관리, 전시에 있어, 그간 관람객의 쌍방향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다양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확산, 뉴미디어 및 새로운 여가 문화의 출현과 같은 문화 소비의 다변화 등에 따라 ‘적극적인 문화 재전유의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떠오르게 되었다(태지호, 2016:150-151).

국립한글박물관은 자국의 문자를 주제로 하는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4년 10월 9일 한글날에 개관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한글 자료가 축적되고 전승되는 장, 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한글문화가 재창조되고 확산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박물관은 실재로서의 문화와 만나는 곳이므로, 박물관에서는 유·무형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사물 중심 학습(Object-based Learning)이 가능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6) ‘한글문화’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어 왔으나 명확하게 그 의미 범주를 정리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언어 문화’에 대한 민현식(2006)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민현식(2006)에서는 ‘언어 문화’를 두 관점으로 나누어, 좁게는 ‘언어학, 문학, 독서, 화법, 작문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에서 넓게는 ‘문학, 정치, 경제, 과학, 음악, 예술, 언어 등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 관련 현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의 언어 문화 관점에 따라 한글 문화를 정의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한글문화 또한 설계, 운영에서 이 관점에 선다.

다양한 교육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방문 외국인과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한글의 특성뿐 아니라 한글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음악, 음식, 문학, 한글 글꼴, 한글 서체를 주제로 하는 5가지의 한글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⁷⁾ 2018년부터는 세종학당 재단 ‘세종문화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여 국외에서도 한글문화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⁸⁾

[표 1]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관

순번	프로그램명	관련 문화	관련 유물	교육 내용
1	흥겨운 한글	한국의 전통 음악, 춤, 공연 문화	악학궤범, 봉산탈춤 악보, 시조창 악보 등	한글로 전해 내려오는 봉산탈춤을 통해 한국 전통 춤, 음악과 공연 문화를 체험함.
2	맛 전하는 한글	한식	규합총서, 음식디미방, 음식방문 등	한글로 전하는 조리서 내용에 따라 전통 음식을 만들고 먹어봄.
3	이야기 한글	한글 문학의 전승과 인쇄문화	홍길동전(필사본, 목판본), 딱지본 소설 등	한글 소설의 전파 과정과 인쇄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방식으로 책을 엮어 봄.
4	글꼴로 그린 한글	한글 글꼴	훈민정음해례본,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등 한글 글꼴을 살펴볼 수 있는 한글 자료	다양한 한글 글꼴 도장으로 나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 봄.
5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한글	한글 서예, 캘리그래피	훈민정음해례본,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현대 캘리그래피 작품 등 한글 서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한글 자료	한글 캘리그래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봄.

흥겨운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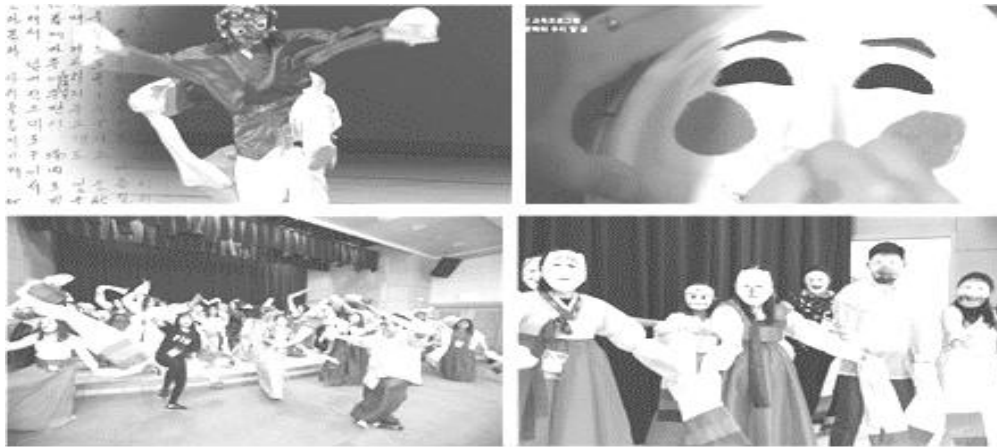
‘흥겨운 한글’은 한글로 전해지는 한국의 음악과 춤 문화에 대한 유물을 관람하고, 한국의 고유 장단과 추임새, 봉산탈춤의 전통 장단과 춤사위를 배우면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가면극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토대로 한국의 탈춤 문화와 봉산탈춤을 이해하고, 탈춤 연희를 즐기면서 소통과 공감의 매개체인 한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교육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흥겨운 한글’은 실내 강당이나 야외 잔디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 공간과 비교육 공간의 경계가 없다. 이는 한국의 놀이판이 지니는 특색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류를 통해 한국의 음악과 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 고유의 가락과 춤사위에 대한 관심이 큰데, 장구의 장단에 맞추어 함께 불러보는 별달거리 사설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중략)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후략)’가 ‘랩(rap)’과 비슷하여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다. 탈과 한삼을 착용하고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흥을 체험하게 된다.

7)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http://www.hangeul.go.kr/>)을 통해 상시로 신청을 받으며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어 수준별, 언어권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8) 올해는 세종학당재단과의 수요조사 및 기관 선정을 통해 터키 앙카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스토니아 탈린, 라트비아 리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지역 세종학당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7월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글문화 체험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 'hungry 한글' 교육 장면



맛 전하는 한글

‘맛 전하는 한글’은 한글로 전하는 음식 문화를 알아보고, 조리서 내용에 따라 한국의 다식 등을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특히 디저트 문화를 초점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음식디미방, 규합총서 등을 통해 한글로 전해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살펴본다. 9) 음식은 대중적 보편성을 지닌 훌륭한 문화 체험 소재이다. 단순히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서, 음식에는 해당 문화의 역사와 가치관, 풍습, 철학 등이 녹아 있다. 참여자들은 한글 조리서의 설명을 따라 명인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맛보면서 음식을 둘러싼 세계 문화의 보편성과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림 2] ‘맛 전하는 한글’ 교육 장면



9)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은 1670년(현종 11년)경 안동의 정부인 장계향이 쓴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다. 여성이 쓴 동아시아 최초의 조리서이기도 하다. 규합총서(閏閣叢書)는 1809년 빙허각 이씨가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이야기 한글

‘이야기 한글’은 한글 소설의 전파 과정과 인쇄문화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 목판 인쇄와 활판 인쇄, 오침안정법¹⁰⁾을 통해 전통 책을 만들어보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옛이야기를 살펴보면 ‘건국, 영웅,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금기, 신체 변화’ 등을 주제로 공통적인 이야기 구조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 한글’은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인 <홍길동전>을 통해 ‘영웅’을 주제로 하는 세계 여러 이야기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한다. 또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이 과정에서 한글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 서예에서 목판 인쇄, 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한글 소설의 전파에 기여한 인쇄문화를 알아본다.

홍길동전을 직접 목판과 활판으로 인쇄해보고 ‘오침안정법’을 통해 전통 책으로 엮어보는 체험은 생경한 만큼 흥미롭다는 평가가 많다. 이밖에 낱활자에 잉크를 묻혀 딱지본 소설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인쇄해보는 활동, 전기수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체험 등을 진행한다.

[그림 3] ‘이야기 한글’ 교육 장면



글꼴로 그린 한글

‘글꼴로 그린 한글’은 훈민정음 속의 글꼴부터 현대의 다양한 글꼴에 이르기까지 한글 글꼴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다양한 모양의 한글 자모 도장을 사용하여 나를 표현하는 그림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문자가 새기거나 그려지는 필기의 역사를 거쳐 활자로 만들어진 반면, 한글은 창제와 활자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문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훈민정음 해

10) 종이 여러 장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책의 등 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고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꿰매는 방식이다. 네 군데 혹은 여섯 군데로 구멍을 뚫어 책을 엮은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섯 개의 구멍을 사용했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통 제본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레본,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훈몽자회, 오륜행실도 등 한글 글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을 활용하여 글꼴에 담긴 가치와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다.

글꼴을 통해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와 자기 안의 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글자를 해체하고 글자에 담긴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한글 글꼴의 경우 소리를 내는 모양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창제 원리가 과학적이면서 형태와 의미가 유기적이다. ‘글꼴로 그린 한글’은 알파벳, 한자, 가나 문자 등 다양한 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글 자모가 지닌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소리나 모양, 감정 등을 한글 글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만의 의미 기호로서의 한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한글 도장은 훈민정음 원형 글꼴 8종, 바탕체 글꼴 8종, 탈 네모 디지털 글꼴 10종 등 총 26종의 자모 도장이며,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 ‘글꼴로 그린 한글’ 교육 장면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한글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화선지에 글씨를 써 내려가는 장면은 특히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생경하며, 이를 보여주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 교육이 될 수 있다.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한글’은 서예에서 한글 캘리그래피에 이르기까지 한글 붓글씨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생각이나 감정을 한글 캘리그래피로 표현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정조 어필 한글 편지첩, 김만중의 딸이 영조에게 보내는 한글 상언 등의 유물을 통해 한글 창제 이후 한글 붓글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생활 속 다양한 캘리그래피 작품 사례를 통해 한글 서체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캘리그래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 붓을 들고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나 의미 있는 문구를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글 서체의 균형과 아름다움을 경험

하고 나눌 수 있다. 그림으로 인식한 것들이 의미 기호인 글자라는 점에 놀라움을 보이며, 디자인으로 서의 한글에 매료되는 참여자들이 많다.

[그림 5]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한글’의 교육 자료¹¹⁾



이러한 교육 설계는 한글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험하고 향유해야 할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모국어어를 한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재외동포 후속세대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글과 한국 문화의 절대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한국어 교육이 아닌 언어문화로서 한글과

11)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한글’은 대전대학교 오민준 교수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작품은 모두 오민준 교수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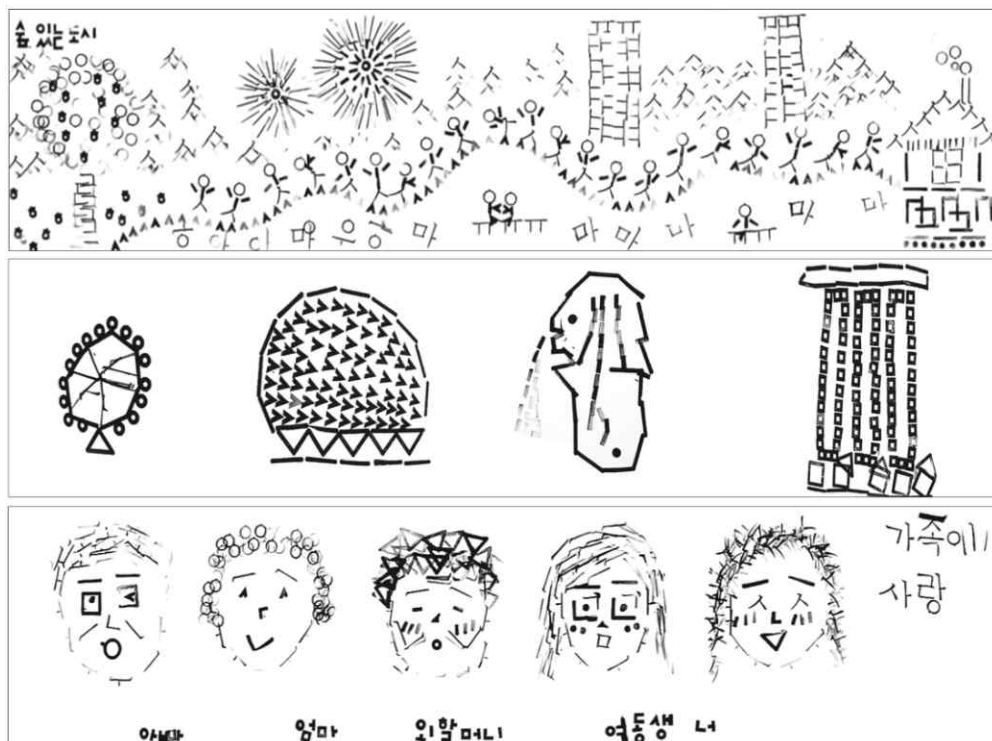
한글문화에 접근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과 맞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시사점: 오감을 통한 진정성 있는 문화 체험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와 ‘만나고’, 체험을 통해 ‘만지고’, 이를 통해 문화적 자아로서의 주체성을 ‘만드는’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문화 체험은 학습자가 스스로를 주체적인 참여자로 인식하게 하여 보다 주도적인 문화 탐구자가 되도록 한다. 오감을 통한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문화 체험은 언어적, 지역적,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한국의 한글문화를 감각적, 신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화적 만남(cultural encounter)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인 연결 고리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글꼴로 그린 한글’의 경우 한글 자모 도장을 활용하여 종이에 찍어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문화 체험을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글 글꼴을 들여다보고 만져 보면서 언어 기호로서의 한글을 이해하고 의미 기호로서 한글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해 보는 활동은, 자기 자신과 그를 둘러싼 문화를 새로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사람들과 그들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산과 숲, 높은 건물, 산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 일본식 주택 등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국의 상징물을 활용하거나 가족을 그리기도 한다.

[그림 5] ‘글꼴로 그린 한글’ 결과물 사례



결국 중요한 점은 문화교육이 단순 체험을 통한 문화 기능의 습득이 아니라 문화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정형근, 2017:49). 문화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은 자기 이해에 있기 때문이다.¹²⁾

4. 재외동포 대상 한글문화 교육의 방향

1) 상호문화 접근법에 따른 문화 다양성 이해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 교육은 상호 간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습자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다. 상호문화 접근법(intercultural approach)은 다문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상호 간의 문화 존중 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요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 교육 접근법이다. 이 관점에 설 때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자신과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문화 수용 범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르게 된다. 문화의 동화와 이화 과정을 거치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김은정, 2011:11-15).¹³⁾

이를 위해 문화 교육은 문화의 ‘보편성’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글문화의 경우 ‘한글’이라는 매체적 특수성이 아닌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이루어진 유·무형의 모든 문화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재외 동포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한글로 전해지는 한국의 탈춤은 가면극 문화로, 다식은 디저트 문화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화 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감수성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부딪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습자는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현재성’이다. 다음의 진술은 그간의 문화 교육에서 학습자의 ‘지금 여기’와 맞닿는 지점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보면 유감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실린 내용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4절기에 어떤 것이 있고 절기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관)혼상제를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니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요즘 24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혼상제를 옛날식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것을 한국 문화라고 소개하는 것일까? 이것 역시 박제된 전통이다. 현대 한국인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 최준식(2012: 275)

12) 자기이해란 결국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타문화의 가치를 자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이하는 과정이다. 문화지식 습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형화한 Moran(2005)의 경우에도 자기이해를 문화 교육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Moran(2005:21)은 문화교육은 대상을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이라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에 도달한다고 보고 참여, 기술, 해석, 반응의 과정으로 문화교육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화교육이 결국 자기이해로 완성된다는 것이다(이선이, 2007:63-64).

13) Byram 외(1994:15)에서는 상호문화 접근법을 통해 문화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공하림 외, 2016:43-44에서 재인용).

물리적, 심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화는 과거의 유산으로서의 좁은 의미를 넘어 현대적 가치 위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달리 재외동포 대상의 교육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목표 차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Erikson, 1968),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리 발현되는 여러 개의 의미 집합이다(정호영, 2001). 즉 정체성은 개인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의 것으로서, 개인의 경험과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다면적 자아 인식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언어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하고 문화를 내면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에(Fishman, 1977), 그간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민족 정체성의 유지 및 신장’ 또는 ‘모국인 한국과의 연계 강화’에 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교육 관점들은 비판적 검토 없이 자연스레 대물림되어 왔다.¹⁴⁾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집단적 유대감과 정체성 계승, 민족 역량 강화라는 사회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다. 정체성은 민족 교육의 표상적 가치이자 모든 한글학교의 공통적인 목표인 것이다(김태진, 2015:1). 여러 연구에서 또한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체성 또한 학습 태도와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 및 신장’, ‘모국과의 연계 강화’,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 등 기존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철학과 목표는 대부분 학습자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혹은 정책 제공자 입장이 강조된 것이다. 재외동포 후속세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특수한 상황보다 민족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입장과 당위성을 더 중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¹⁶⁾

14) 이러한 내용은 조향록(2004), 박갑수(2007), 정재훈·김태희(200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어 교육의 기본적인 특성 및 기능의 측면으로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를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즉 민족어’로 배우고자 할 때 한민족으로서의 열과 정서를 지니어 민족적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조향록, 2004:200-201).” / “한민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국민’ 아닌,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이에 의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박갑수, 2007:368).” /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신장하고,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상을 구현(박갑수, 2007:370).” /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지 모범시민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 받는 국민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 속의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을 구현하는 것(정재훈·김태희, 2009: 434).”

15)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안한나(2006, 2008)와 한국어 숙달도와 문화정체감, 문화적응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전희정(2011)을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을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었기에 구체적인 교육 대안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김태진, 2014:100; 2015:3-4에서 재인용).

재외동포들이 지니는 정체성의 성격은 흔히 ‘이중적’이고 ‘혼종적’이라는 말로 대변된다. 즉 자신의 뿌리와 거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정형근, 2017). 재미동포의 정체성에 대한 초기 연구인 박아청(1989)에 따르면 재미동포 후속 세대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순응 및 동조, 불일치 및 회의, 저항 및 돌입, 반성 및 재평가, 종합 및 융합의 단계를 거치는데, 양쪽의 문화를 조화롭게 종합한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의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문화적·사회적으로 가장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Kim(1994)은 이를 ‘통합적 민족 정체성(integrated ethnic identity)’으로 일컫는데, ‘이중 정체성’으로 언급하는 윤인진(2005), 강승혜(2013), 김태진(2014, 2015) 등의 연구도 이와 논지를 같이 하고 있다.¹⁷⁾ 이들은 Gee(1990)의 정체성 키트(identity kits) 개념을 언급하면서, 특정 민족 혹은 국가의 어느 하나로 정체성을 귀속하는 것보다 다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¹⁸⁾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육의 과정 혹은 결과로서 재외동포 후속세대에게 구성되어야 할 정체성의 방향은 언어 주체로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곧 주체성(subjectivity)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적 주체는 사회 문화적 실천을 담당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적 실천자(신명선, 2013:100-101)로서, 자신이 가진 언어 문화적 배경과 자원을 상황에 맞게 부려 쓸 수 있는 화자이다. 다문화적, 다언어적 상황에서 경계인으로 놓여 있는 재외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언어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한글문화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31: 79-10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공하림(2016),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문화 요소 분석 및 단위 구성 방안 -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하여, 문화와 융합 38(2): 37-63, 한국문화융합학회.

16) 그간 재외동포 교육은 한민족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민족 또는 자국 중심주의적 태도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조태린, 2014:403). / 한국어를 내국인과 동일한 의미의 모어로서 강조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모국과의 연계 강화’ 또는 민족적 정체성 유지·신장이라는 목표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재외동포에게 자칫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당위성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국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태린, 2010:200-210).

17)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한 사적 검토는 김태진(2015)을 참고할 수 있다.

18) 계승어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계승어 화자들이 여러 개의 정체성(multi-identities)을 지닌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혜영(2001:205)이 지적한 것처럼 재미한인 2세에게 영어 화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동화된(assimilated) 정체성 혹은 미국화된 정체성을 보유하게 된다거나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한국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다기보다는 이들의 다양한 언어 스타일과 역동적인 언어 사용이 재미한인으로서의 복잡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강승혜, 2013:98).

- 국립국어원(2014),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연구책임자: 원미진).
- 김대희(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 김은정(2011),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한 문화 교육 -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비교 관점에서, 프랑스어 문교육 37: 7-3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태진(2014),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 54: 99-122, 이중언어학회.
- 김태진(2016),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정체성 구성요인과 언어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 논문.
- 민현식(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1): 59-103, 한국언어문화학회.
-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137-180.
- 박노자(2000),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33: 365-393, 이중언어학회.
- 박갑수(2013),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 교육, 역락.
- 박영순(2005), 이중언어교육의 최근 동향과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문제, 이중언어학 28: 11-31, 이중언어학회.
- 박형우(2006), 국어교육에서의 한글 교육, 청람어문교육 34: 217-242, 청람어문교육학회.
- 신명선(2013),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3: 83-119, 한국어교육학회.
- 신성철·고성배·류영주(2016), 한국계 호주인 대학생들의 계승어 학습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27(1): 111-15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성철·정신지(2015),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계발과 유지에 대한 연구의 비판적 고찰 - 호주의 상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3: 97-134,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 외교부(2017), 재외동포 현황.
- 윤인진(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3: 191-243, 단군학회.
- 윤인진(2010), 재외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49-77, 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8), 한글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 127: 281-305, 국어교육학회.
- 이선이(2007), 문화 인식과 문화교육, 언어와 문화 3(1): 51-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정란·이해영(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 56:

267-290, 이중언어학회.

심용휴 외(201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교육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재훈·김태희(2009),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2: 415-438, 한국국어교육학회.

정형근(2017), 재외동포 후속세대를 위한 문화교육 방향 모색, 한글 315: 35-66, 한글학회.

조태린(2010),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21(2): 193-2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이중언어학 55: 381-407, 이중언어학회.

조항록(2004),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교육 15(2):199-2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혜영(2001), 해외한민족 문화공동체 건설 모색을 위한 시론, 정신문화연구 24(3): 91-123, 한국학 중앙연구원.

지민정(201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구, 한국어 교육 26(2): 213-23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지민정(2016),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학습 신념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27(2): 275-3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진대연(2016),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8: 223-252, 국어교육학회.

진정란(2010), 주말한국학교를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국어 캠프 - 잭슨한국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73-1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최준식(2012),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국언어문화학 9: 271-28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태지호(2016), 문화적 재전유의 공간 모색을 위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기호학 연구 49: 149-176, 한국기호학회.

Byram, M., Morgan, C., et al.(1994),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Gee, James Paul (1990).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ideology in discourse. Philadelphia: Falmer.

Guilherme, M. (2002), Critical Citizens for an Intercultural Worl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s Cultural Methodologies, London: Sage.

Moran, Patrick R., 정동빈 외 역(2005), 문화교육, 경문사.

지역연계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

주현영

큐레이터, Korean Heritage Foundation 사무총장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이민자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다문화국가이고, 재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한민족의 핏줄을 지닌 미국 내 소수민족 자녀들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공교육에서는 타민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소수민족인 한인 학생들에게는 반대로 다양한 문화 안에서 우리 집단의 문화를 찾게 하는 문화 정체성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은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의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정체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자아정체성과 문화 정체성

1) 자아정체성

(1) 자아정체성의 개념

자아(self)는 심리적인 표현으로 자존감, 자아의식이 중심이 되는 개체이다.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대답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다움의 사상을 뜻한다.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심리학자인 Erick Erikson(1968)은 “자아 외부의 변화에 직면하여 이루어지는 자아의 적응”을 정체성으로 정의 내렸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을 “개인과 세상에 대한 단일성(sameness) 및 지속성에 대한 주관적 그리고 관찰 가능한 의식”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들과 함께 앞으로 갖게 될 다양한 선택영역들을 통합한 독특한 단일화”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 그리고 미래의 기대 간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체감 자체는 청소년기에만 중요한 개념이 아닌 전 생애를 통해 계속 형성되고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다.

자아정체성은 수시로 변하는 자기 평가 속에서도 ‘나는 누구다’라고 인식하는 보편적인 자아 개념으

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일관되고, 타인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생각될 때, 개인의 자아 정체감은 확고해진다. 반대로 일관성과 동일성 중 둘 중 하나가 결여될 때 개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자아 정체감은 감소된다(조현재, 2013).

미주 한인 2세대들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주변성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현실과 문화의 혼용화(hybridization)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한다(이상억, 2012). 그러므로 자아발견 및 정체성 교육은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수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예술체험을 통한 자아정체성 교육의 사례

필자는 약 15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초, 중, 고 및 대학교 학생들, 공립학교 교사, 공무원, 시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프로그램은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심리학 등 여러 장르를 통합한 것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나’, ‘너’, ‘우리’의 세 단계로 구성된 활동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관찰 및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예술 활동으로 객관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그림 1 미술활동을 통해 자아의 어두운 내면을 표현한 중학생들의 그림



그림 2 움직임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체험하는 고등학생들



그림 3 경기도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연수 중 즉흥연극을 통해 타인 이해하기



2) 문화 정체성

(1) 문화의 개념

문화(Culture)는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된 말로, ‘경작’이나 ‘재배’라는 의미이다. 이후 인간의 삶에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문명’, 혹은 ‘교양’과 동의어로 쓰여 ‘원시’ 혹은 ‘미개’의 대응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문화는 인간의 영혼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게오르그 짐멜은 문화를 “영혼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 실체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는 역사 세계, 문화 세계, 사회세계에 대한 철학적, 경험과학적 인식의 선험적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영혼, 내부의 이런저런 개별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형성되었더라도 아직 문화화된 것은 아니다. 국가, 교회, 단체 등 다수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발전과 객관적 정신의 가치가 종합되었을 때 비로소 문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개인적 관계나 조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문화적 삶을 문화 공동체, 사회적 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문화는 일반적인 언어 감각을 통해 개별적인 정신이나 지식, 능력이 통일성을 이루고 집단적 중심성의 발전에 기여해야만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문화는 객관화된 사회제도와 구조적 사실이나 실체를 구성요소로 갖는다.

문화는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문화를 성취문화와 행동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이루어져 결과로 남은 문학이나 역사 등을 성취문화(achievement culture)라고 하고, 신념이나 지각에 의해 형성되는 행동방식을 행동문화(behavior culture)라고 한다. 행동문화는 신체적인 동적 행위, 언어적 사유 행위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웃어른과 대화할 때의 자세, 청소년들끼리 사용하는 은어 등을 들 수 있다. 문화는 국가, 성, 세대, 계급, 인종, 지역, 직업 등 집단별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즉 문화는 수많은 하위문화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하위문화들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로 나뉘는데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 고급적이고 대중음악이 저

급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끊임없이 문화를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고 있다.

최근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문화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보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두 번째로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에 있다. Max Weber는 사회적 삶은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사회적 삶을 반영한다고 했다.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새로운 소통 기술이다(Hubert 외 1, 2014). 가속도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문화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된다.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할 때 그들은 서로 낯선 이(strangers)로 간주한다(Georg Simmel, 1950). 낯선 이들은 어떤 상황에 실제로 함께 참여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국외자(局外者)에 해당된다. 낯선 이들에게는 그들이 접근하는 집단 구성원들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토착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낯선 이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글로벌, 다국적, 다문화 시대에서(특히 학생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 타인들의 문화를 각각 읽어내어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경험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적, 논리적인 근대적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 감성적, 디지털적, 감각적 소통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소통능력을 갖추려면 바로 ‘문화’를 읽어내야만 한다. 문화를 읽어내고 표현하는 수단은 ‘창의력’이다(Hurbert 외 1, 2014). 창의력은 모든 것이 기계화, 컴퓨터화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Reckwitz는 “aesthetic capitalism”에서 창의력은 예술이나 고급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창의력은 정치, 경제, 도시계획,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창의력은 결국 ‘문화’가 길러낸다.

(2) 문화 정체성과 한인 문화

한국인은 누구이고 한국은 무엇이며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세상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택하느냐 하는 선택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고 재구성된다(이윤희, 2009).

역사적으로 한국은 불교와 유교 등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라는 집단적인 의식과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일본 식민지화 경험으로 현대화를 겪었다. 한국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은 광복 후의 남북 분단과 압축된 산업화, 최근의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문화 정체성도 애매모호한데, 미국 내 한인 문화를 정립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문화와 미국 이민사, 이민 1세, 1.5세, 2세 등 세대별 집단 의식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미 한인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온 타 문화권의 문화까지 우리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문화 정체성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미국을 비롯한 재외 한인 문화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인 문화 정체성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전문가 및 전문단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3. 지역연계 문화 정체성 교육

1) 문화 정체성 교육의 방향 -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교육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아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찾고 알게 되는 과정이라면, 문화 정체성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집단이 과거, 현재, 미래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총체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문화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인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행해 온 많은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역사 공부, 전통 예술 활동, 한국문화유산 소개 등 한국의 '과거 문화'만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듯 하다. 문화 정체성 교육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화까지 찾고 알게 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자라는 학생들과 다르다. 한국의 학생들과 미국의 한인 학생들은 그들의 과거,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과거 화는 서로 같을 수 있으나 현재와 미래의 문화는 현저히 다르다. 미국 내 한인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인으로서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미국의 문화 또한 학생들의 문화이며, 미국의 미래가 곧 학생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은 과거의 한국문화유산을 가지고 현재의 문화를 관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미래 지향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의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자원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를 적응할 수 있게 한다(문성진, 2017).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 자라고 있는 한인 학생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미국 주류의 지역사회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⁹⁾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 생산을 제안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는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요소인 사회적 자본 개발에 기여한다(Uslaner and Coney 2003). 학생들의 활동은 문화정체성 교육에서 더 나아가 미국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19)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문화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류사회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이 중요 요소이다(문성진, 2017)

2) 지역연계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 사례 - 한인타운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1) 1단계- 성인 리더 양성

2016년 10월, 온라인에 커뮤니티 아트 페이지를 개설하여 커뮤니티아트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집하였다. 현재(2018년 5월 31일) 976명의 지역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들은 한인이거나 특정 집단이 아닌, 미국 일반 시민들이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참가자들과 리더 양성 워크숍을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미술활동으로 자아정체성 찾기, 커뮤니티아트에 대한 이해, 작가와의 만남, 지역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리더양성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2) 2단계- 지역연계 어린이 문화교육

1단계에서 양성된 성인 리더들이 직접 한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인타운 거리를 걸어보면서 지역을 관찰하여 지역에 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토론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워싱턴DC 지역 내 한국학교들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5 어린이 커뮤니티아트 워크숍 진행모습



(3) 3단계- 새로운 문화 만들기

3단계 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 봉사하는 것이다.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부터 Flash mob 이벤트, 캠페인, 아트마켓,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3단계의 활동은 한인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지역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 정체성 교육에서 더 나아가 지역 문화 리더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워싱턴DC 한인타운 프로젝트는 아직 3단계 활동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2010년부터 한국에서 실행했던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아래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군포시 프로젝트도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지역 문화교육, 리더 양성 교육 등 한인타운 프로젝트와 같은 과정을 거쳤고, 학생들과 공공기관 실내 꾸미기, 마을 벽화 제작, 재활용품으로 동네 이야기 조형물 만들기, 축제, 공연, 아트마켓, 마을 위인 찾기, 마을 방송 만들기, 환경 캠페인, 옛 사진 전시회, 에코 공예품 판매,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등 수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3단계 활동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시켜주기 위한 어른들의 적극적인 행정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여러 기관의 참여, 협력, 후원이 필수요건이다.

그림 6 지역사회에서 예술활동으로 봉사하는 학생들



4. 결론 및 제언

자아정체성의 발견은 끊임없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부족한 자아를 보완하고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타인과의 차이와 차별을 심하게 느낄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때 정체성은 보다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 정체성 또한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문화를 보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한인학생을 위한 문화 정체성 교육은 한인 문화를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갖고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 미국의 문화와 소통하고 미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미국 내 한인 학생들을 위한 지역과 연계한 문화 정체성 교육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한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한국학교가 문화의 언어적 측면인 한국어 교육에서 더 나아가 총체적 문화교육의 역할을 해 준다면 보다 더 빨리 매력적이고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Chris Jenks. 『Cultrue』, 2005
- David Inglis. 『Culture and Everyday Life』, 2005
- Hubert Knoblauch/Mark Jacobs/Tene Tuma. 『Culture,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2014
- Ross Abbinnett. 『Culture and Identity』, 2003
- Wendy Grisworld. 『Cultures and Societies in a Changing World』, 2008
- 오영수 외. 『지식의 사회 문화의 시대』, 경북대학교출판부, 2004
- 최윤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김근영.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연구의 대안적 접근: 서술적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 연구, 2012
- 문성진. 「미주이민자의 기부와 봉사」, 한국지방행정학보, 2017
- 이상억. 「자아정체성 혼돈을 경험하는 미주 한인 2세를 위한 치유목회의 실천적 제안」,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12
- 이윤희.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009
- 임철일 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문화예술 기반 교육방법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2014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21세기 세종대왕의 꿈 품기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school@prkorea.org)

미국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학교 선생님이라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선생님의 마음속에 세종대왕의 꿈을 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 누군가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오천 년 한국 역사 속 최고의 위인 중 한 명이라 칭하는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조선의 말이, 조선의 땅이, 조선의 하늘이, 조선인의 몸이 ‘중국과 달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의 창조력 그 자체를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 500년 전 세종대왕은 한자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슬러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을 창조했습니다. 한글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땅이 중국과 달라” 우리 땅에 맞는 농사 방법을 연구했고 《농사직설》을 편찬했습니다. 또한 “조선인의 몸이 중국과 달라” 《향약집성방》을 편찬했으며, “조선의 하늘이 중국과 달라” 서울 하늘을 기준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한국의 하늘에 맞는 달력 ‘칠정산’을 편찬했고, “조선의 시간이 중국과 달라”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와 ‘해시계’를 창조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소리가 중국과 달라” 조선의 음악인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5곡’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창조한 모든 업적 앞 문장에는 “조선이 중국과 달라”라는 문구가 맨 앞에 위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세종을 만든, 세종의 위대한 업적을 끌어낸 그 힘의 비결은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상징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힘이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세종대왕의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다른 생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미국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세종대왕은 조선이 중국과 다름을 직시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거슬러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 예술,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조선의 시간이 중국과 달라

천자국(天子 國)인 중국만이 천문을 관측해 시간을 알 수 있던 시기. 중국과 지리적 위치가 다른 조선에서 중국의 시간을 생활에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선의 시간에 맞춘 ‘물시계’와 ‘해시계’를 발명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조선의 백성은 중국 중심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

15세기 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의 문어 구실을 했던 중국의 한자. 하지만 조선의 말은 중국의 말과 달라서 한자로써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문화 질서를 거슬러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을 발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의 문자를 벗어나 우리 고유의 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땅이 중국과 달라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중국의 《농사집요》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요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땅에 부합하는 우리의 농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땅에 맞는 농사 방법을 연구했고 《농사직설》을 편찬해 백성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조선의 백성은 중국의 농법에서 벗어나 조선의 땅에 알맞은 농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인의 몸이 중국과 달라

조선의 백성들은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을 때 중국 의학서의 처방전에 따라 몸을 치료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중국의 의학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약재는 값이 비쌌고 조선인의 체질은 중국인들과는 달라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 《향약집성방》을 편찬했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 의학을 벗어나 우리 몸에 가장 알맞은 의학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중국과 달라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 학문 ‘천문학’. 당시 조선과 아시아의 여러나라는 중국의 천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지리적인 위치가 다른 나라들에서 중국의 천문학으로 하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서울 하늘을 기준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우리나라 하늘에 맞는 달력 ‘칠정산’을 편찬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과학으로 살펴봐도 오차가 없을 만큼 우리 하늘의 해, 달, 별, 우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우리는 중국을 통해 바라본 하늘을 벗어나 조선의 하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소리가 중국과 달라

당시에는 중국의 음악인 ‘당악’이 조선의 국가적 행사에서 우대를 받고 우리 전통 음악인 ‘향악’은 중국 음악보다 낮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음악은 중국의 음악과 달라서 중국 음악으로는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국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세종대왕은 향악을 바탕으로 조선의 음악인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5곡’을 만들게 됩니다. 세종대왕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조선의 음악은 위대한 세계 유산 ‘종묘제례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중국과 달라

조선이 중국과는 다름을 직시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백성들에게 열어 준 위대한 세종대왕. 우리만의 과학 기술, 우리만의 문화, 우리 고유의 문자 등 당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우리만의 문화를 개척한 위대한 인물.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있었기에 15세기 조선은 세계 역사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15세기 조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성취를 이룬 나라라고 평가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1983년에 일본의 이토 준타로(伊東俊太郎)가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科學史技術史事典)>에 세계를 뒤흔들만한 과학기술 업적을 조사했는데,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랍 등 전 세계 모든 나라 합쳐 19건의 업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21건으로 조사가 되어 조선을 제외한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의 과학적 성취를 다 합해도 조선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세기 한국은 21세기의 미국처럼 세계 1위 수준의 과학 대국이었던 결과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우대형 교수는 <한국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한 것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76개 국가를 대상으로 1500년경의 국가 수준을 조사했는데, 조선의 수준은 76개 국가 중 1위였고, 과학 기술은 세계 2위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역사적 유산이 한국을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성장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5세기 세종대왕이 이끈 위대한 조선의 비결은 조선의 문자, 조선의 하늘뿐만 아니라, 조선의 음악, 조선의 의학, 조선의 땅, 조선의 문자 등 조선이 중국과 다름을 직시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독창적인 문화, 예술, 과학을 창조해서 세계적인 과학, 문화 대국의 길을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이끈 지도자인 세종대왕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조선의 문화를 개척해 주제적이고 독창적인 나라를 구현하여 한국을 통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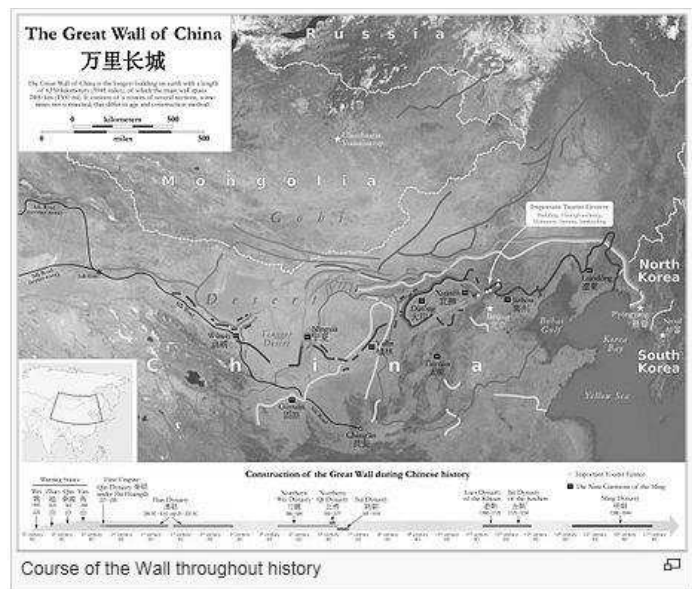
이제 21세기 한글학교 교육자들 또한 5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 중국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응전했던 도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중국의 힘에 눌려 심각한 경제적, 문화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교, 정치, 경제 분야를 떠나 한글 교육 또한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전 세계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중국 역사와 중국어를 배우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 공자 학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은 현재 전 세계 142개국 500여 개의 네트워크와 함께 1000여 초, 중등학교에 교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100여 공자 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 공자학당이 확대되고 공자학당을 통해 중국어와 중국역사, 문화가 세계에 확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바로 21세기 중화사상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나라의 거대한 만큼이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해 이른바 ‘중화사상’, 중국이 온 천하의 중심이고 가장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 잡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사상은 국력과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 중화사상은 중국 중심의 국제 외교 질서를 구축해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이 세운 질서에 따르기를 강요하는 중국식 패권주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국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이는 중국과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교육사이트에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해외의 유명 사이트들이 중국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지도 전문 출판사인 맵스오브월드가 만리장성을 소개하는 지도에는 중국 진나라(BC221 ~ 207)와 한나라(BC206 ~ AD220) 시기 만리장성이 평안남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맵스오브월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구글, 아마존, 브리태니커와 협력해 전 세계 청소년과 교사, 교육기관, 해외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세계지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명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세계지도 속 만리장성은 북한의 평양까지 뻗어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리장성을 검색하면 첫 화면 맨 위에 이 지도가 나타납니다. 호주의 언론사 디오스트레일리언(theaustralian.com.au), 인터넷에서 18개



▲ 위키피디아 만리장성 지도 ▲

언어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보이지(wikivoyage.org), 전 세계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네이션온라인(nationsonline.org), 세계인들에게 영어로 중국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에이지(www.chinasage.info), 아이룩차이나(ilookchina.com), 톱차이나트레블(topchinatravel.com), 차이나마이크(china-mike.com)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유명 지도회사, 백과사전, 언론사, 관광사이트 등이 만리장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싣고 있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 지도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왜곡해 세계에 퍼뜨리는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중국 사회과학원이 간행한 '중국 역사 지도 집'에 실려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2000년대 중반에 만리장성 길이를 6천km, 2009년에는 8천851km라고 발표했다가 2012년에는 2만1천 196.18km라고 늘렸다.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만리장성에 포함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만리장성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한국의 전체역사가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다는 역사 왜곡을 미국 등 전 세계 교과서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출판사인 '홀트 린하트 윈스턴'이 발행하는 역사 교과서 '세계사, 인간과 국가'에는 한국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역사 부분에는 '중국 당 왕조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서술돼 있고, 단원 마지막에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 속 고구려를 중국사 일부분으로 표기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www.oupcanada.com)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대상의 세계사 교과서인 '고대 세계들' 1쪽에서 고대 중국의 영토를 표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 땅에 포함했습니다.

캐나다의 국가 보훈부(Veterans Affairs Canada)도 마찬가지인 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곳 기관 사이트에는 "한국의 역사는 연속적인 지배의 역사로 표시돼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러·일전쟁 이후 1910년부터는 일본

Civilization Developed in Korea

Korea occupies a peninsula on the eastern border of the Chinese mainland (see map, this page). China

controlled the peninsula for much of Korea's history and, as a result, greatly influenced Korea's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China first invaded Korea in 200 B.C., during the Han dynasty. At this time the Chinese began to transmit their culture to Korea.

After the fall of the Han dynasty, three independent kingdoms, with shifting boundaries, took control of the peninsula. The kingdom of Silla (Si-luh) eventually emerged as the strongest and unified the country in 668.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but kept its own ruling dynasty. Buddhism was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is period. Then Korea became part of the Mongol Empire, and when the Mongols were expelled, a new dynasty, the Yi (YEE), was founded in 1392. This dynasty survived until 1910, when Japan annex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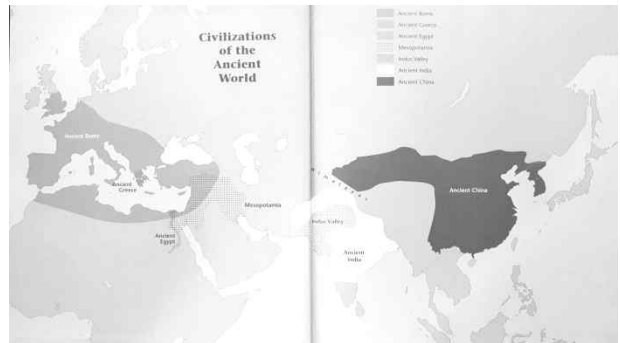
Buddhism had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influence on Korea. Its teachings can be seen in the country's culture, philosophy, and morality. In 845 Buddhism was made the state religion. Scholars studied the Confucian classics, a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Chinese civil service system, based on the teachings of Confucius. The Koreans did not, however, completely copy the Chinese. They retained both their native dress and their own language. Sejong (SA-ZHONG), a Yi emperor who ruled in the mid-1400s, directed the development of a Korean alphabet. The Koreans also invented a method of printing using movable metal type that the Chinese later adopted.

SECTION 3 REVIEW

1. **Define** shogun, samurai, Bushido, seppuku, daimyo
2. **Identify** Shinto, *The Tale of Genji*, Ashikaga, Seijong
3. **Locate** Kyoto, Kamakura, Korea
4. **Comparing Ideas** Compare the favorable and unfavorable features of Japanese geography.
5. **Interpreting Ideas** What were China's major contributions to and influences on Japan?
6. **Organizing Ideas** (a) Name the two centers of power in Japanese feudalism. (b) How did they complement each other? (c) How did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7. **Analyzing Ideas** How did Zen Buddhism influence Japanese culture?
8. **Identifying Cause and Effect** What effect did years of Chinese domination have on Korean culture?

▲ 홀트 린하트 윈스턴 출판사의
〈세계사, 인간과 국가〉

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 중심으로 왜곡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외 교과서나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 교과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고 올바른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한인 교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500년 전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역사에 도전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나갔던 세종대왕처럼,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의 꿈을 계승해 21세기 확장되어가는 중국 중심의 왜곡된 한국 역사를 벗어나 올바른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역사를 회복해야 하는 실천적이고 세계적인 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천 년 역사 이래 중국의 힘과 영향력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문화를 꽃피우며 발전해왔습니다. 약 500년 전 거대한 중국 중심의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한 세종대왕. 그는 조선이 중국보다 약하다 하지 않고 우리의 다름을 직시하여 새로운 조선을 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나갈 21세기 세종대왕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활동에 참여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Bring Korea to the US Classroom 프로젝트_ usa.prkorea.com

반크는 미국의 초, 중, 고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ing Korea to the US Classroom'(미국 교실에서 한국을 배우게 해요)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사이트에서는 Why Korea(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역사가 잘못 소개된 이유와 올바른 역사), History, People, Heritage, Korean war, Economic, Social issues 등 총 7가지 주제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더 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인물, 지명, 장소, 역사와 관련 있는 한국 내용을 엮어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미국 초, 중, 고교 수업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던 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미국 교과서 속 한국에 대한 서술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사이버독도사관학교_ dokdo.prkorea.com

독도를 향한 한국인의 열정과 관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 사이트입니다. 특히 반크의 회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반크에서 제작한 다양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도 이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도, 동해, 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 등 한국어, 영어로 제작된 반크 영상 500여 편을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반크 유튜브 채널에서도 반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vankprkorea

■ 21세기 이순신 오류시정 프로젝트_korea.prkorea.com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오류를 제보하고 바로잡기 위한 프로젝트 사이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 현황과 오류를 바로잡은 시정 현황을 비롯해 시정 설득 서한 내용 등 오류 시정 노하우도 담겨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바다를 지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 것처럼, 세계 곳곳에 퍼진 일본해 표기 시정으로 동해를 지켜내며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21세기 이순신이 되어주세요!

■ 제국주의 과거사 연계 독도, 일본군 '위안부' 홍보 프로젝트_www.maywespeak.com

독도, 일본군 '위안부' 이슈 등 일본 전쟁범죄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외국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데에 반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제국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발생한 범 역사적 문제인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문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제국주의'라는 큰 맥락 속에 홀로코스트와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전쟁 범죄와 일본 제국주의를 함께 엮어 보다 친숙하지만 직접적으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 동해 홍보 프로젝트_eastsea.prkorea.com

동해 표기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그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반크의 동해 표기 오류 시정 활동 노하우와 방법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지난 15년간 어떻게 해외 교과서, 지도, 방송,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 표기로 바꾸었는지 반크 회원들이 지도 속 동해 표기를 되찾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직지 세계화 사이트_korea.prkorea.com/wordpress

5천 년 한국 역사 속 빛나는 선조들의 기록 정신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보유국 세계 4위, 아시아 1위에 빛나는 위대한 기록유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류사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금속활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역사상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한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크는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세계에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 한국 역사영웅, 이순신장군 홍보 프로젝트_ yisunsinkr.prkorea.com

해외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에는 외국의 영웅들은 잘 소개가 되어 있지만, 한국의 위대한 영웅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위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리더십이 세계인들에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순신 세계화 캠페인’ 정보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 독립운동가 꿈 프로젝트_ (한국어)kkum.prkorea.com (영어)peacemaker.prkorea.com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제 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꿈을 기억하고, 이 꿈을 자양분으로 21세기 한국 청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프랑스의 드골 등에 비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세계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크는 이 사이트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 그리고 꿈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21세기 집현전 프로젝트_wisdom.prkorea.com

해외여행, 유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출국하는 한국 청년들과 세계인과 우정을 나누며 한국을 홍보하는 반크 회원들의 한국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크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한국 홍보 콘텐츠 100 여종 150만 부를 전 세계에 배포해왔습니다. 이 홍보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록된 이미지 자료, 원고 내용 등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도록 <21세기 집현전 프로젝트 사이트-홍보물 아카이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오인 폭격과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김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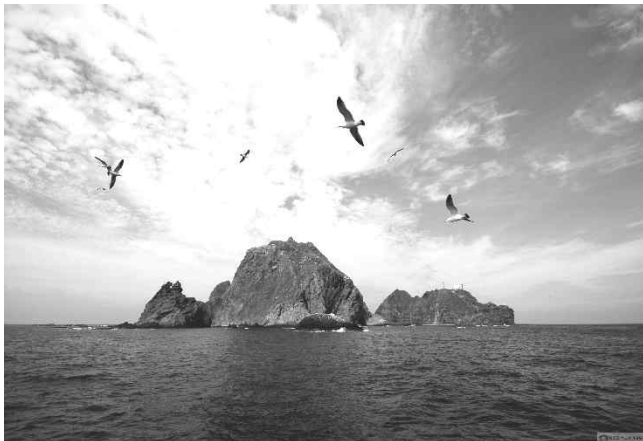
독도재단 교육홍보부장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은 오키나와 주둔군 미 공군 B-29 중폭격기가 독도 어장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민간어선 20~30척과 어민들에게 폭탄과 기총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미 공군 기가 어선과 어민들을 노려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 때문에 한국인들은 강한 분노심을 나타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왜 폭격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의식으로 확산되었다.

폭격 생존자들은 “비 오는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바위와 배 위에 총알이 비 오듯 하였다”고 기총소사를 주장하고 “두터운 파편과 기관 총알을 주었다”는 사실도 증언하였다. 또 다른 생존자들은 ‘기총소사’에 의해 동료가 생을 마감했으며 “비행기에서 배를 향해 총까지 놓았다”고 증언하였다. 생존자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상이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수산경제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주요기사 1면 제목 기사에



〈사진1〉 독도의 전경

‘출어 중 어민 폭격’, ‘미군 비행기에 의한 독도 폭격 사건발생’, ‘미군 독도폭격 사건’, ‘피습사건’, ‘어민을 실험물시(實驗物視)하는 만행(蠻行)’을 보도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공개 처단 등을 요구하였다. 6월 15일 제헌국회는 「울릉도 어선 피습의 건」을 긴급 동의안으로 결정하였다. “동해에 살인 비행기가 출현해 기총소사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국회는 ‘피습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을 요구하였다.

주한미군·극동군 사령부의 조사와 성명서 발표

주한미군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1948년 6월 10일이었다. 1948년 6월 10일 13:00 시에 조선 해양경비대 포항기지의 부사령관이 울릉도 경찰서장으로부터 독도폭격과 선박침몰 사상자 발생 소식을 들었고 구조대 파견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군정장관은 즉각 폭격 현장인 독도에 미국인 군정조사팀과 의료진을 파견하였는데 생존자들은 비행기의 폭격뿐만 아니라 기총소사도 당했는데 미 공군 표식을 보았다고 일제히 증언하였다.

이에 미국동공군사령부는 6월 12일, 15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 및 발표하였다. 미국동군사령부는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B-29 폭격대가 독도를 폭격을 하였으나 이 구역이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어 선박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고 정찰과정에서 어선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형어선들을 암석으로 오인해 폭격했다고 발표하였다. 암석으로 오인한 사건으로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하지 중장은 성명서를 만들고 6월 16일 국회 외무위원회 장면을 통해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였다. 하지사령관이 6월 15일 독도에서 많은 어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폭된 상황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미군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 책임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배상을 약속하였다. 또한 6월 22일 공보부를 통해 “이번 독도 불상사에 비추어 앞으로 이 섬을 중심한 일체의 폭격 행위는 마땅히 금지될 것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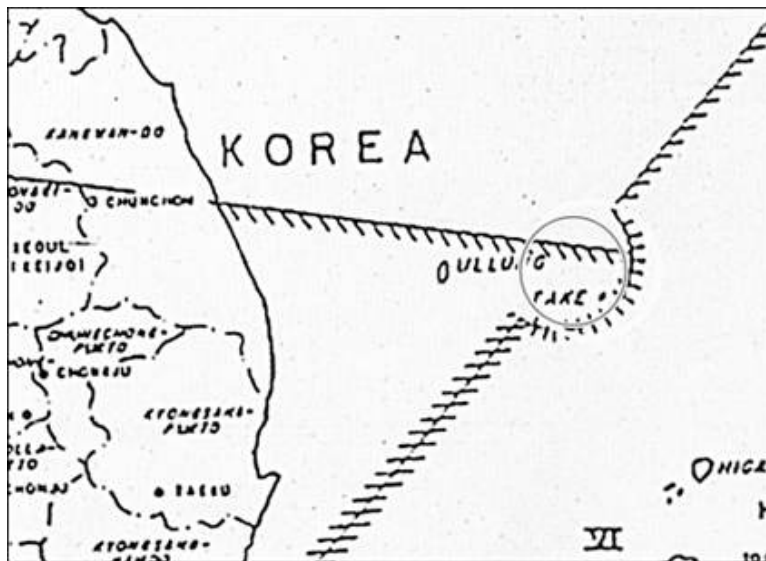
1949년 7월 9일 군정장관 딘 소장은 ‘독도 폭격 사건 배상 진상 등 제반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배상을 완료하였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딘 군정장관은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감사히 생각할 정도로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사건의 전말은 “항공군 소속이라 나는 알 수 없으며 배상금액은 하지 중장이 임명한 소청위원회가 처결한 것이므로 그 역시 나로선 알 수 없다”고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발표하였다. 독도 폭격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극동군사령부, 극동 공군사령부, 제5공군, 주한 미 군정사령부 중 어느 쪽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주한 미 군정은 하지 사령관이 아닌 딘 군정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밝히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경상북도는 내무부(1951)와 외교부(1952)에 보낸 서류에 「미군의 사과」, 「미군 측 배상」 조항을 두고 “6월 16일 미군 장교 여러 명이 울릉도에 출장하여 행정관 및 유지, 조난자 유가족, 중상자 가족 등을 찾아 마음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배상금으로 212만 5,52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신문 보도에는 미군은 인명피해보상으로 총 180만 원, 재산피해보상으로 총 68만 4,200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도 폭격 사건은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없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미 군정은 폭격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도 어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주한미군소청위원회역사」 기록을 보면 ‘독도 어장은 미역이 잘 자랐으며 한국인들은 미역 거래로 생계

를 유지하였고,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독도에 갔는데 이곳은 그들 조상의 조상들이 그들 이전에 갔던 곳이다.’(They were preparing to go to Dokdo Island to gather sea weed, where their fathers and their fathers’ fathers had gone before them)고 기록하였다. 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소장이 극동 군사령관에게 독도 폭격금지를 요청하는 공한에서는 ‘리앙쿠르트암 인근이 한국 어부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어장에 속하며 이 해역이 울릉도와 인근 도서에 거주하는 1만 6,000명의 어부 및 그들 가족의 주요 자원’이라는 서한을 보내 독도 폭격금지를 요청하였다. 폭격금지구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건」 제3항 “일본의 선박 및 선원은 리앙쿠르트암으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령, 즉 맥아더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미 군정은 독도에서 12마일까지 독도 폭격 금지를 요청하였다. <지도1, 2 참조> 미 군정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 구역을 폭격금지구역으로 요청한 것이다.

〈지도1〉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CG,USAMGIK(Dean) to Commander in Chief, Far East(1948.6.24.),
Subject: Bombing off Liancourt Rocks 'AG 684 Target and Bombing
Ranges, 1948, "RG 554, Entry A1 1378,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Decimal Files)1945-1949, Box 141.(『1947』
192~193쪽)

〈지도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한·미공동조사와 「독도조난어민위령비」 건립

미극동공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독도 폭격 사건을 오인사고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였고 자신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증언에 따라 미군과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6월 14일 미국인 CIC 해안경비원 6명과 경상북도 수산국 기사 문영국은 경상북도 경비선 계림호를 타고 울릉도 수중 대원 11명과 어민 9명 등 총 28명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폭격 당시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반쪽 부서진 선박과 시신 1구를 발견했을 뿐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폭격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생존자의 말에 의하면 비행기 14기가 주로 선박이 많은 북쪽 편에 탄알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약 2~30분간
에 먼저 기관총을 발사한 후 애초에 나타났던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극도의 위험과 공포에 휩쓸려서 어
민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피할 장소를 찾았으나 독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 외에는 거의 다 사격 대상이 되
어 침몰하고 크게 파손되었고 두 섬 일대는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는 오전 11시 40분경 남동방면에서 14대의 비행기가 날아와 폭탄을 투하하고 20~30분 간 기총 소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미군 해안경비원들과 수산국 문영국이 확인한 것으로 미군 측도 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군 비행기 독도 폭격(오인) 사건경위’, ‘독도 연해 어선 조난사건 전말보고서’로 각각 내무부와 외무부에 보고되었다. 기안자는 수산과 직원이었고 수산과장을 거쳐 수산국장, 지사까지 직인한 경상북도 내부문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방향에서 폭격 사건을 어민 조난사건으로 문서화하고 정리해 희생자의 영혼을 비는 조난위령비를 건립하였다.

독도 조난어민위령비

1948년 6월 1일(8일-주)에 독도에서 고기잡이 중이던 어민 59명이 18척의 어선에 나누어 타고 조업하던 중 미군 연습기의 오인 폭격을 받아 사망 및 행방불명 14명, 중경상 6명, 4척의 선박이 파괴되는 등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바위틈에서 일을 하는 조국 재건의 해양용사들에게 이 무슨 억울하고 답답한 뜻밖의 재난이냐. 이 일에 미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그리고 사회적 온정이 모아져서 수중의 원혼과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살핌에 성의를 바친 바 있었으나 수많은 한과 슬픈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살피고자 사건 발생 2주년을 기하여 작은 비석을 세우고 삼가 조난 어민 여러분의 명복을 비노라



〈사진2〉 독도위령비 제막: 경상북도 조재천 지사(1950.6.8.)

1950년 6월 8일 경북도지사 조재천은 미군기 오인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문을 낭독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사진2〉. 해방과 분단, 군정과 주권국가 부재의 혼란 속에서 독도 폭격 사건은 ‘질은 슬픔이 동해바다에 먼지처럼 떠다녔다’고 수산국 기사가 보고한 것처럼 해방 후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약소국 수난의 표상인 동시에 주권국가의 불가침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독도 폭격사건의 진실 규명

근대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간의 싸움으로 독도는 전략상 중요지점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기 군사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고 미국은 대소련 봉쇄 작전을 위해 폭격장으로 이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과 영유권분쟁이 발생하였고 미 공군 폭격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이라는 시기적 중요성 때문에 폭격 사건을 조난사건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는 안타까운 희생을 차원에서 조난위령비를 세워 어민들의 넋을 위로하였다.

‘조난’이란 조난을 향해 중 만나는 ‘재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어민들이 만난

재난이니 포괄적 의미로 ‘독도 조난어민’이라 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조난과 그 성격이 다르다. 사건 발생한 당시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1946.1.29.)에 의해 일본 정부의 정치상, 행정상 권력 행사가 정지되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1033호(1946.6.22.) 즉 맥아더라인 선포에 따라 일본어선의 독도 접근이 금지되었던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우리 어민들의 어로 작업장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어떠한 사전 보고나 주의 없이 그 작업장을 폭격연습장으로 활용하였고 일본 어민 및 어선에게는 폭격 2주 전에 사전 경고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1952년 독도 폭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이 개입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당시 희생당한 어민들은 조난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한 ‘폭격’으로 희생당했다. 그것은 의도된 폭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난이란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 사건은 미군의 오인이 아닌 우리의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미 군정의 인식에서 발생한 우리 어민에 대한 폭격 사건이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터전을 폭격연습장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전의 양해와 주위가 없었다는 것은 미군의 군사정책과 함께 그들이 인식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당시의 국가 현실과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독도 폭격 사건’을 조난으로 일어난 ‘조난사건’으로 문서화한 것은 재고할 문제이다. 따라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피해 어민을 조난어민으로 지칭하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독도폭격희생어민위령비」로 재고하고 폭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1948.6.11/1948.07.08

《동아일보》 1948.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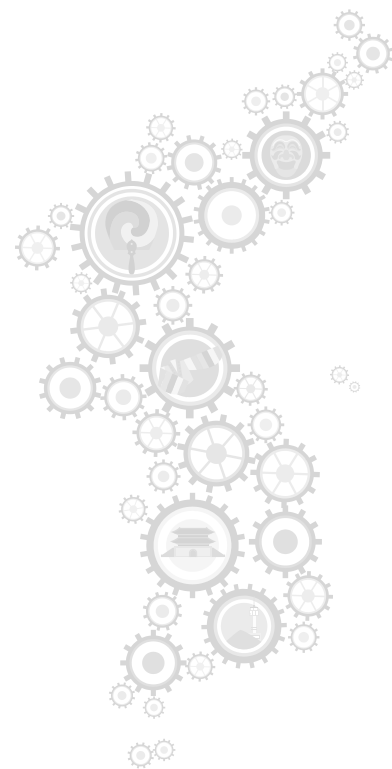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고하는 글

.....

강용철 '개인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가는 길



‘개인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가는 길

-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고하는 글 -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 경희대 겸임교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누적되면 그것은 ‘개인의 역사’가 된다. 하지만 그 하루 중에 ‘타인을 위한 하루, 봉사와 기여의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 한국을 생각하는 하루’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역사를 넘어 ‘민족의 역사’가 된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소중한 개인의 시간을 한글학교에 쏟아부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낸 풀뿌리 역사의 산증인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선생님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앞으로 한글학교가 걸어갈 ‘역사의 길’에 몇 가지 제언을 드려보고자 한다. 미력한 생각으로 주제넘은 말씀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의 조각을 남겨 본다.

그동안 한글학교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제 주목해야 할 초점은 바로 차세대, 그리고 그다음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고민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이민을 간 세대나 한국과 유대 경험이 많은 세대와 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세대가 갖는 정체성, 국가관, 인생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차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방향’ 설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떠올리며 다양한 협의와 의논을 하는 고민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네 가지 관점의 ‘생각거리’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교수자로서의 관점으로, 현재 한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 우수 교안들을 갈무리해서 체계성을 갖춘 교재와 교구로 정리했으면 한다. 한국에서도 정부 기관, 연구자들이 많은 우수 자료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적 자료, 현지에 맞는 적절한 교안들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한다. 또한 새로운 온 초임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신규교사 연수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한글학교에 근무한 분들의 비법과 경험이 함께 공유되길 희망한다.

둘째는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학교별로 개별적이고 다채롭게 진행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

았으면 한다. 한글, 역사, 문화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무학년제 커리큘럼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효과성을 검증하며 우수한 내용이 한글학교 사이에서 교류되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정체성 프로그램’이 대거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학교 운영의 측면으로, 학교의 다채로운 활동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한다.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 중에 만든 학생들의 결과물, 학교 교사들의 글, 학교 운영의 기록을 학교신문이나 적은 분량의 교재로 편찬했으면 한다. 또한 차세대 교사들이 한글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거나 교재, 교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적인 관점으로, 한글학교를 거쳐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글학교가 ‘뿌리를 알려준 배움터’라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차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 교류 및 협업 프로그램을 많이 제안하여, 이들이 한글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어 한국 학생들에게 ‘동포’에 대한 인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차세대 한글학교 교사들과 한국의 차세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신적 연계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글학교는 현재의 아이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아이의 ‘현재’와 더불어, ‘미래’까지 생각해야 한다. 한글학교가 아이들의 삶과 성장 속에 따뜻한 자양분이 되어 왔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며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한글학교에서 ‘개인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낸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글학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교사를 위해 치열한 고민을 시작하자!

- 한글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을 보내드리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2016년 7월 ~ 2018년 6월

이광호 정리 및 수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이사장

지난 37년간(1981년~2018년)의 전체 연혁은 재미한국학교(NAKS) 웹사이트 www.nak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권 31호 부록에서 계속〉

2016년

- 7. 15. **정기이사회 - 제13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고은자 부이사장: 신현주 총무이사: 황희연
 회칙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심의된 개정안(5가지)을 통과시킴.
 집행부 부회장 후보 중에 개인 사정으로 기권한 1명의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하기를 총회에서 결의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킴.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확정 - 동남부지역협의회(Atlanta)
 제3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확정 - 중서부지역협의회(Chicago)
- 7. 16. **제 34차 정기총회 - 18대 임원 선출**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장은영, 오정선미, 유미순
 사무총장: 오정선미 재무: 김미경
 편집장: 김윤희 간사: 김선형(교육), 윤한나(홍보), 지수경(웹)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 임지현	뉴잉글랜드: 한순용	동남부: 선우인호
동북부: 박종권	동중부: 심수목	미시간: 김선미
북가주: 한희영	서북미: 이미숙	워싱턴: 한연성
중남부: 김명숙	중서부: 윤현주	콜로라도: 유미순
플로리다: 김진희	하와이: 손애자	

- 8. 28. 총회에서 위임 받은 한 명의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전자우편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 - 유미순

2017년

- 1. 20~22.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 Arlington, VA
- 3. 24~26. **제 21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187개 학교에서 2603명 응시
- 4. 15. **회보 18권1호 발행**
- 4. 27. **Korean Heritage Foundation 면담** - 참석: 이승민 총회장, 주현영 실장
- 5. 9. **제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날 간담회**
- 5. 15. **ACTFL 추진 회의** - 참석: 이승민 총회장, Marty Abbott, Executive Director
- 6. 23~25. **제 3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 Orlando, FL
주제: 차세대 선도 교사의 역할과 리더쉽
참석자: 9개 지역협의회 교사 25명
남서부, 동남부, 동북부, 미시간, 북가주, 워싱턴, 중서부 등
- 8. 1. **한인 교육 연구 통권 32호 발행**
- 8. 10~12.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A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기조 강연: 박종협(Jason Jonghyop Park) 검사, Assistant District Attorney - 1.5세 2세들의 정체성 혼란(Identity Crisis)을 극복하는 지혜
목요 특강
I. 도산 안창호와 미주 한인 독립운동이 길 -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II. 독도 - 이상모 (독도재단 대표이사)
III. 국립한글 박물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 이승재 (국립한글 박물관 관장)
IV. 금속 활자 발명국, KOREA - 황정하 (청주 고인쇄박물관 관장)
V.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 모의고사 전문위원 7명
분반 강의
언어문화 정보와 한국어 교육 / 신현숙
아이들의 꿈을 이끌어 주는 교재와 활용법 / 강주언, 오승연

한글학교 교사인증 과정이란? / 정소원, 김은애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 허병렬
 거꾸로 하는 교안 설계 (Lesson Planning: Backward Design) / 강사희
 작문 교수법: 한국어 쓰기의 주요 변인과 활동 유형 / 박석준
 수업의 기초 “수업하다 길을 잃으면 여기를 보라” / 정문성
 재미있고 효과적인 초등 수업의 모형 제시 / 김민정
 놀이를 통한 한국어 익히기 / 진정란
 성인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 이선근
 역사자료 활용과 관계 맺기를 통한 한국역사 학습 / 임정은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Visual Thinking / 김차명
 재미있는 맞춤법 / 조현용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2부: 교육자들을 위한 자료 / 루스 랜잘, 유자희
 전통과 문화로 배우는 재미있는 한국어 / 이수정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 김경령
 내용 중심 교수법을 통한 통합적 한국어 지도 / 정지혜
 한국어 문법, 무엇을 무엇으로 가르칠까? / 홍윤기
 이미지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역사 / 김차명
 한국어 발음 교육: 자모 수업을 위한 한국어 음성학 / 권성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쓰기 영역의 이해와 지도방안 / 김아영
 우물 안의 한국이 아닌 세계 속의 한국을 배운다 / 한미정
 세종대왕과 한글 중심도시 여주 / 원경희
 한국학교에 적용해 보는 미국학교 교육법 / 한연주
 따라 하기 쉬운 유아, 유치반 수업 꾸러미 사용설명서 / 최희정
 SAT II 한국어 수업 / 박은주
 예술체험으로 한인문화 정체성 찾기 / 주현영
 NAKS (낙스) "학습활동 및 포스터 발표 1" (유아반 및 초급) / 최경주, 최수임, 이은선
 NAKS (낙스) "학습활동 및 포스터 발표 2" (중급 및 고급) / 강희정, 소지희, 한미정
 NAKS (낙스) "학습활동 및 포스터 발표 3" (유아반~ 고급반) / 노경희, 윤혜선, 황보양선
 한국학교에서 한자 교육 / 한연성
 컴퓨터/인터넷을 이용한 한글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수설계모형(ASSURE) 소개 / 김대상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Visual Thinking / 김차명
 수업에서 활용하는 모듈 활동 A / 정문성
 음악 놀이하면서 한글 배우자! / 국원혜
 온 몸으로 배우는 한글, 뇌의 곳곳을 자극하라! / 명미 몬친스키
 동화책으로 배우는 한글 / 여승진
 한글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 vs 미국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 / 김명주
 이미지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역사 / 김차명

한국어, 한국문화를 말하다 / 조현용

A View from Friends of Korea / Dr. Gerard A. Krzic

Panel Discussion: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 발표 I: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 Mary Abbott,
Executive Director

• 발표 II: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강사희 회장

• 발표 III: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 원 클라라 회장

• 발표 IV: The Canadian Association of Korean Schools - 신옥연 회장

• 발표 V: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 이승민 총회장

동시개최프로그램 및 대회

- 집중연수회: 주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수법 - 교수 6명, 9개 과목 강의
- 한국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를 위한 운영자 초청 워크숍 - 교수 2명, 6개 과목 강의
-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발표 학생 6명
- 제 7회 <백범 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 백범상: 이설이 (한솔한국학교)
- 제 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 대상: 최하영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 제 2회 한국 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 참가 학생 33명
- 한국역사/문화 체험관 - 전시 및 제공 Hotel 10층 Skyline Level

개교 20주년 이상 수상 한글/한국학교

40년 - 휴스턴 한인학교, 성 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 콜럼버스 한국학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장)

30년 - 미시간 한글학교,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뉴비전 한국학교, 빛의 나라 한국학교

20년 - 뉴욕교회 한글학교, 셋별 한국학교, 뉴라이프 한국학교, 몬트레이 한국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벨뷰통합 한국학교, 예사랑 한국학교

장기근속 교사 수상자 (30년 이상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패)

50년 - 허병렬

25년 - 김혜병, 장은영, 최미영, 권순우

20년 - 윤수연, 이해연, 강봉희, 김선미, 심용휴, 조이미션, 홍사라, 이영복, 윤현주

15년 - 김명희, 김아영, 오승연, 한기선, 이미셀, 류인숙, 현규원, 곽미숙, 신은경, 이치정, 이화영, 최지애, 임병애, 이진순, 홍소영

10년 - 박덕남, 백경인, 윤정혜, 전정문, 최희정, 고은아, 박미경, 백혜련, 임현숙, 정혜주, 김미숙, 김연선, 김혜성, 장영주, 김진영, 윤희란, 이수경, 류선숙, 석수진, 유영경, 위미애, 조변재, 최성연, 이미숙, 이세라, 이윤경, 정동순, 박정현, 최경주, 권윤하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황보철, 윤수연, 이정욱, 심승재, 이명원, 성윤아, 손민호, 권순우, 정광미, 이현구, 김정애, 오그레이스

- 11. 3. 장은영 부회장 자격 상실 (헌정 제8조)

2018년

- 1. 5~7.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and Convention Center - Chicago, IL
- 3. 24~26. **제 22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189개 학교에서 2650명 응시
- 4. 15. **회보 18권2호 발행**
- 5. 12. **제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날**
- 6. 2~3. **제 4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장소: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rvin Center, Washington D.C.
주제: 차세대 교사의 역할과 리더쉽
참석자: 6개 지역협의회의 차세대 교사, 강사, 관련자 20여 명
남서부, 동남부, 동중부, 워싱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 7. 1. **한인 교육 연구 통권 33호 발행**

연혁 작성의 내용 및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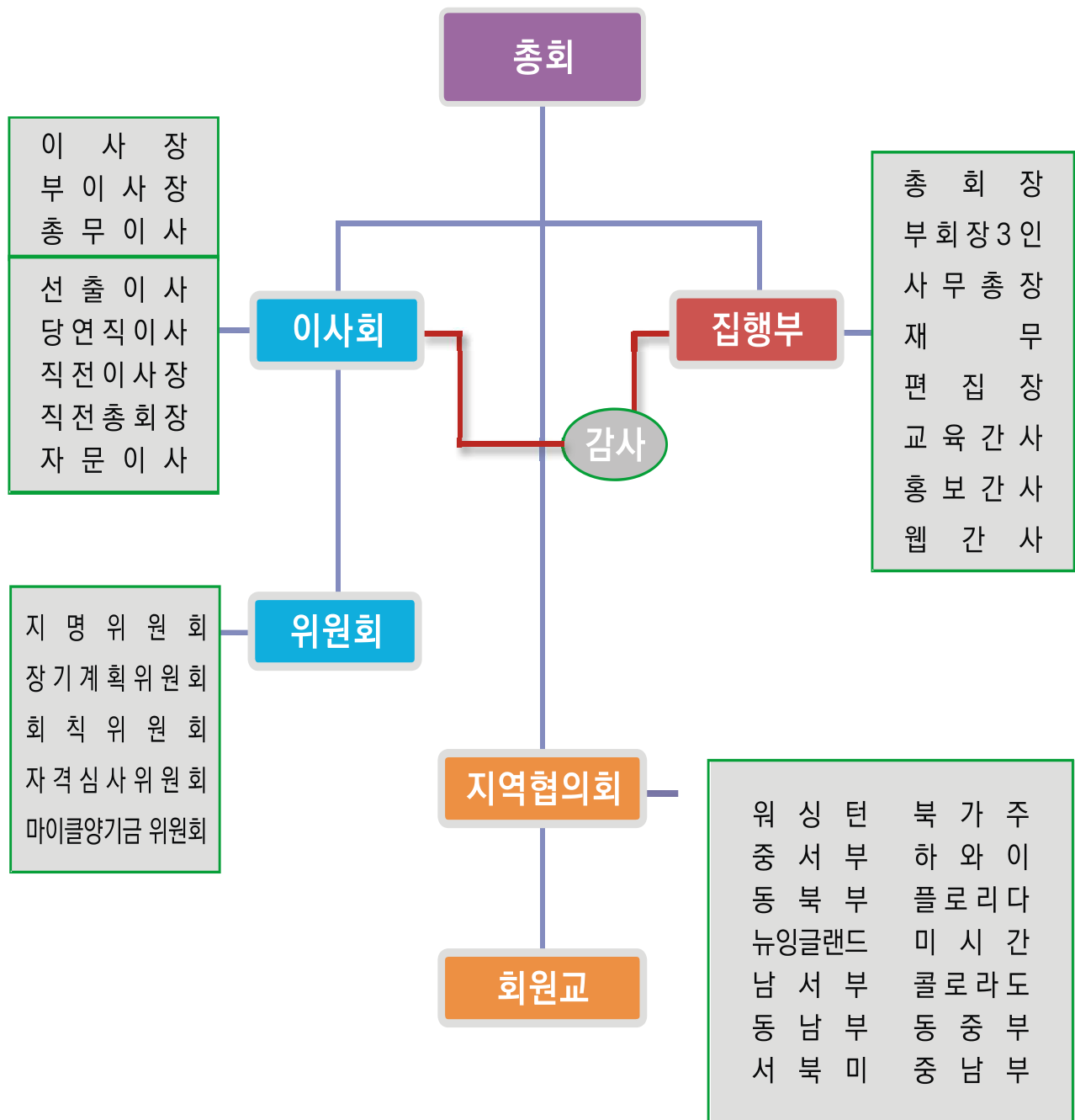
〈편집자 주〉

1. 중요 사항을 연대순으로 기록
2. 본 협의회가 발행한 모든 출판물을 기록
예) 한국어 교과서, 역사/문화 교과서 및 단원 (Module), 〈한인교육연구〉지, 교육과정, SAT(II) 한국어 문
제집, 회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홍보용 안내 책자, 주소록
3. 대표자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날짜, 주제, 참가 인원
주제강의와 특강 제목과 강사 이름 (학위와 직위 기록), 분과 강의 제목과 강사 이름, Workshop-SATII
한국어, 역사/문화 (학위와 직위 생략)
교육자료 전시품은 제출 학교와 교사 이름 기록
4. NAKS가 증정한 감사패, 공로패, 교육부 장관 감사장/표창장 수상자, 개교 20년 이상 된 학교 명단, 장
기근속 교사 표창 명단
5. 회장단 및 임원 명단, 지역협의회 회장 명단, 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 명단, 선출이사 및 감사 명단은 신입
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기록 (격년)
6. 본 협의회에 후원금을 기증한 개인이나 단체 (1만 불 이상) - 한국 정부 지원금은 기록하지 않음 (매년
결산서에 기록됨)
7. 사업, 행사, 회의 등은 중요한 것을 골라 기록

연혁 초안은 모든 전직 회장들이 검토하였고 검토된 초안은 다시 현 17대 임원진에서 보완하였음. 과거 35년간의 업적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교육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함. 이광호 전 이사장의 재정리와 검토 및 17대 편집장의 기록 및 수정과 편집으로 재구성을 하였음.

제18대 임원진에서 지난 2년간의 업적을 추가 기록하였으며 이광호 전 이사장의 재정리와 검토 및 제18대 편집장의 기록 및 수정과 편집으로 과거 37년간의 연혁을 재구성을 함.

NAKS 조직도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1981. 04. 18.	Washington D.C.	주하성
1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1984. 03. 23.	Washington D.C.	염영일
2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3.	Chicago, IL	김기원
3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5. 11.	New York, NY	허병렬
4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1989. 10. 14.	Boston, MA	김영집
5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9. 11. 18.	Houston, TX	하인태
6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1990. 11. 03.	Atlanta, GA	김경숙
7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1.	Seattle, WA	오계희
8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9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3.	Honolulu, HI	조성천
10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16.	Miami, FL	정대용
11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1.	Detroit, MI	남영렬
12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8.	Denver, CO	선창균
13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2000. 09. 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4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2007. 10. 13.	Indianapolis, IN	김용순

역대 이사회 임원

순위	이사장	임기	부이사장	총무이사	감사
초대	오학근	1981년 4월 ~ 1982년			고일석, 고충흠
2대	주하성	1984년 11월 ~ 1987년 8월			이춘재, 정금조
3대	강경식	1988년 9월 ~ 1991년 8월		류기창	김일호, 김치경
4대	허병렬	1991년 9월 ~ 1994년 8월	김치경 (김은자)	류기창 (김은자)	김숙자, 김송희
5대	황보철	1994년 9월 ~ 1997년 8월	이광자	이경이	김근순, 김정오
6대	서문원	1997년 9월 ~ 2000년 8월	김기봉 (임금진)	조동렬 (김근순)	김정태, 이휘자
7대	이상오	2000년 9월 ~ 2003년 8월	김홍준	남경숙	남영림, 이광호
8대	최경수	2003년 9월 ~ 2006년 8월	정원팔	심형란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9대	김홍준	2006년 9월 ~ 2009년 8월	이내원	오금옥	홍태명, 조신숙, 정삼숙
10대	이내원	2009년 9월 ~ 2010년 8월	김수라	이호순	심상연, 홍태명
11대	이광호	2010년 9월 ~ 2013년 8월	장동구	이호순	문성록, 허낭자, 김대영, 심형란
12대	장동구	2013년 9월 ~ 2015년 8월	김대영	김미경	신현주, 심운섭, 홍승희
13대	고은자	2015년 9월 ~ 현재	신은주	황희연	길병도, 황현주, 김현, 김용수

역대 협의회 임원진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1대	1981.4.~1984.10.	주하성 Harold Chu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이서구			
제2대	1984.11.~1986.8.	강경식 Kyung Sik Kang	서문원 김치경 염영일	이영장	고익곤		
제3대	1986.9.~1988.8.	서문원 Moon Won Suh	고익곤 김유미	김기봉	김영균	류기창	
제4대	1988.9.~1990.8.	허병렬 Grace Huh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김기봉	이휘자		
제5대	1990.9.~1992.8.	황보철 Charles C. Hwangbo	남영림 김기봉 김일호	류기창	이휘자	허병렬	
제6대	1992.9.~1994.8.	김기봉 Kibong Kim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이광자	김근순	허병렬	
제7대	1994.9.~1996.8.	이상오 Sang-O Rhee	함혜란 김홍준 장혜경	방정웅	이휘자	허병렬	
제8대	1996.9.~1998.8.	최경수 Kyungsoo Choi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명계웅	임선자	허병렬	김정태 (기록)
제9대	1998.9.~2000.8.	방정웅 Jung Woong Bang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장동구	심운섭	허병렬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10대	2000.9.~2002.8.	임선자 Suncha Lim Lee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심운섭	심수목	허병렬	
제11대	2002.9.~2004.8.	이광호 Kwang-Ho lee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김정근	이경이	이영주	이민노
제12대	2004.9.~2006.8.	손창현 Chang Hyun Son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이민노	권옥순	이영주	손애자 최희윤 심수목
제13대	2006.9.~2008.8.	김정근 JungKeun Gim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남일	심형란	심수목	오선미 김진형
제14대	2008.9.~2010.8.	이민노 Paul M. Yi	김대영 신현주 남일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선미 고은자 엄재윤
제15대	2010.9.~2012.8.	심용휴 John Y. Shim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업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더 이현진
제16대	2012.9.~2014.8.	강용진 Yongjin Kang	강남옥 문윤희 선우인호	김선미(전)	송지은(전) 한순용(후)		노옥남 김금자 이정현(전)
제17대	2014.9.~2016.8.	최미영 Miyong Kim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 권예순 김원구
제18대	2016.9.~현재	이승민 Seungmin Lee	장은영 (2017.11.까지)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김미경	김윤희	김선행 윤한나 지수경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1회	1981	4월 (창립 총회)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2회	1984	11월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3회	1985	11월 30일	New York, NY	동북부	N/A	Holiday Inn
제4회	1986	9월 06일	Chicago, IL	중서부	N/A	Hyatt Lincolnwood
제5회	1987	8월 30일	Baltimore, MD	워싱턴	N/A	Omni Int'l Hotel
제6회	1988	8월 27일	New York, NY	동북부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Marriott Hotel
제7회	1989	8월 25일 ~ 26일	Chicago, IL	중서부	교육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교육을 하자	Hyatt Hotel
제8회	1990	8월 24일 ~ 25일	Arlington, VA	워싱턴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Holiday Inn
제9회	1991	8월 23일 ~ 24일	Houston, TX	남서부	한민족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Double Tree Hotel
제10회	1992	8월 28일 ~ 29일	Baltimore, MD	워싱턴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BWI Marriott
제11회	1993	8월 27일 ~ 28일	New York, NY	동북부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Holiday Inn
제12회	1994	8월 19일 ~ 20일	Chicago, IL	중서부	세계화 시대의 2세교육	Radisson Hotel
제13회	1995	8월 25일 ~ 26일	Los Angeles, CA	미주한국학교 협의회와 공동주최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교육으로	Omni Angeles Hotel
제14회	1996	8월 09일 ~ 10일	Seattle, WA	서북미	2세 교육창달은 한국 고유문화 전승으로	Pacific Lutheran Univ
제15회	1997	8월 07일 ~ 09일	Chicago, IL	중서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Chicago Marriott
제16회	1998	8월 13일 ~ 15일	Atlanta, GA	동남부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Atlanta Airport Marriott
제17회	1999	7월 29일 ~ 31일	Dallas, TX	남서부	한국 교육의 창조성 재발견	Harvey Hotel
제18회	2000	8월 03일 ~ 05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Clarion Hotel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19회	2001	7월 23일 ~ 25일	Arlington, VA	워싱턴	새천년의 한인학교	Hyatt Regency Crystal City
제20회	2002	7월 18일 ~ 20일	Philadelphia, PA	동중부	새 시대를 여는 교사	Hyatt Regency
제21회	2003	7월 23일 ~ 25일	Honolulu, HI	하와이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Hyatt Regency
제22회	2004	7월 22일 ~ 24일	Atlanta, GA	동남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제23회	2005	7월 21일 ~ 23일	Houston, TX	남서부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제24회	2006	7월 20일 ~ 22일	Denver, CO	콜로라도	세계속의 한류 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Hyatt Regency Tech Center
제25회	2007	8월 02일 ~ 04일	Detroit, MI	미시간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Hyatt Regency Dearborn
제26회	2008	7월 17일 ~ 19일	Boston, MA	뉴잉글랜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Sheraton Framingham Hotel
제27회	2009	7월 22일 ~ 24일	Orlando, FL	플로리다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Rosen Center Hotel
제28회	2010	7월 22일 ~ 24일	Seattle, WA	서북미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Hyatt Regency
제29회	2011	7월 14일 ~ 16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교과과정 확립과 전문성을 향한 도약	Hyatt Regency
제30회	2012	7월 24일 ~ 26일	Reston, VA	워싱턴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Hyatt Regency Reston
제31회	2013	7월 18일 ~ 20일	Honolulu, HI	하와이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Hilton Hawaiian Village
제32회	2014	7월 03일 ~ 05일	Indianapolis, IN	중남부	봉사와 전문성	JW Marriott Hotel
제33회	2015	7월 16일 ~ 18일	Teaneck, NY	동북부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Teaneck Marriott Hotel
제34회	2016	7월 14일 ~ 16일	Denver, CO	콜로라도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차세대 교육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제35회	2017	8월 10일 ~ 12일	Atlanta, GA	동남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Atlanta Marriott Marquis
제36회	2018	7월 19일 ~ 21일	Chicago, IL	중서부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북미지역 한국교육원 공동 사업 개요

1. 한글학교 지원

- 한글학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 한글학교 지원금 및 각종 업무 지원

2. 한국어 보급

- 해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개설 및 확대
- 한국어 강좌 운영

3. 한국 유학 홍보

- 정부의 체계적인 유학 지원
- 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 지급

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 학부 장학생 매년 60-70개국 약 110명
- 대학원 장학생 매년 110-140개국 약 300-700명

5.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시행

- 정부 인증 한국어능력시험 시행(매년 1회 혹은 2회)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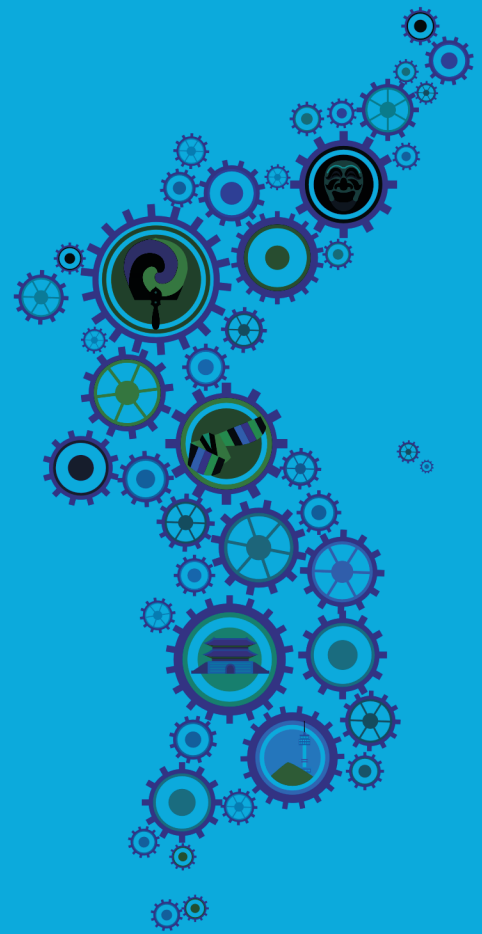
6.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선발

- 한국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한국 문화 체험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미국 영주권자 이상)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7. 국제교육 교류

- 시도 교육청 교류 방문 활동 지원
- 한미 교육 관계기관 간 국제 교류 활동 지원

8. 해외 교육 정보 수집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3호

발행인: 이승민

편집인: 김윤희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18년 7월 1일

인쇄: 대진프린팅

Copyright ©2018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s reserved.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9 781947 581067 72018
ISBN 978-19-475810-6-7